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 논문

제주 돌문화자원의 문화경관적 가치

- 발담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동 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임 진 강

2017년 2월

제주 돌문화자원의 문화경관적 가치

- 발담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동 찬

이 논문을 이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임 진 강

2017년 2월

임 진 강의 이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교수

김 신 원

(인)

부심교수

민 병 옥

(인)

부심교수

백 원 진

(인)

부심교수

장 호 시

(인)

부심교수

김 동 찬

(인)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년 2월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탁월한 자연생태환경과 독특한 돌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제주의 다양한 돌문화자원의 발굴과 더불어 그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돌문화자원의 범위와 자원의 분포적 측면에서 돌문화자원의 대표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주 발담을 대상으로 세계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와 그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 더불어 발담의 경관보호를 위한 것이 근본적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곧 제주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생태적 개발을 위한 경관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연구방법으로 제주지역에 관한 고문헌과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통해 제주지역과 돌문화자원의 특성, 세계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유산 관련 정책과 그리고 운영기관 등에 관한 문헌조사와 더불어 2016년 04월~0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각 자원의 소재 및 현황에 대하여 사진촬영과 특성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 발담과 돌문화자원의 선호 및 이미지 특성, 돌문화자원의 우선순위 도출 등을 위한 돌문화자원에 대한 평가기준 추출과 인지적 특성 평가, 돌문화자원의 대표적 자원 도출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 등을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도출된 제주 발담에 대해 문화경관에 측면에서 그 가치를 검증하고 제주의 문화경관 관련 법제를 검토한 후 문화경관 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돌 문화자원에 대한 인지적 특성에 있어 16개의 경관형용사는 안락성과 자연성, 쾌적성으로 설명되어지며, 제주 돌문화자원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조화로운', '매력적인',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넓은', '아늑한', '시원한'의 이미지가 낮게 평가되었다.

경관자원에 대한 이미지는 용천대가 '자연스러운'으로, 봉천수가 '푸르른'으로, 발담이 '아름다운'으로 평가하였으며 불턱이 '조화로운'으로, 산담은 '자연적인', 방사담은 '매력적인', 돌하르방은 '친근한' 등으로 평가되었다.

돌문화자원의 전체 경관선호도에 있어 내국인은 발담>인공포구>용천대>돌하르방 순으로, 중국인의 경우 돌하르방>발담>본향당 순으로 평가 되었으며. 이에 한·중인이 가장 선호하는 돌문화자원인 발담과 돌하르방의 대한 한·중인의 선호도는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돌문화자원의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는 양국 전문가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완전성>진정성>탁월한 보편적 가치(v)순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기준별 자원의 중요도에 관해서는 모든 기준에서 발담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발담을 제주 돌문화자원의 대표자원으로 도출하였다.

제주 경관보전에 관한 법제의 고찰에서는 국내 법령에 있어 ‘문화경관’에 관한 법적 정의와 정확한 적용 및 보호 방안 또한 그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문화경관’의 도입과 체계 정립을 위해 우선 [경관법]에서 ‘문화경관’에 대한 부분적 법의 제정이나 그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주도의 경우 경관조례에서 좀 더 다양한 대상의 지정과 더불어 문화경관의 정의가 및 경관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 발담의 가치에 관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 담으로서의 연속성’, ‘자연 환경을 이용한 주민의 결속’을 그 가치로 평가하였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v) 측면에서는 ‘제주 전역에 걸쳐 농업 경제 정주지’와 ‘인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근거’, 그리고 ‘800여년에 걸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특성’을 그 가치로 평가하였다. 진정성 측면에서는 제주 화산암을 활용한 바람을 이용하는 담의 축조 방식과 화산암의 단일 재료 측면, 완전성 측면에서는 제주 전역을 걸쳐 분포하는 면적 분포와 원형유지 상태, 방대한 발의 경계와 모든 경관요소를 포괄하는 점을 그 가치로 판단하였다.

발담의 보전방안으로 발담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써 유네스코 문화경관 등재 도전과 국내의 법제화 체계 구축 및 제주 조례의 제정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돌담의 가치 판단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가치를 측정하지 못한 점과 더불어 설문 표본의 선정에 있어 중국인의 선정이 세계인으로서의 전체를 설명하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제주 발담, 문화경관, 돌문화자원, 문화경관가치, 세계유산, AHP

목 차

목 차	i
표 목차	v
그림 목차	vii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관련 연구 동향	4
1) 문화경관	4
2) 세계문화경관유산	7
3) 제주문화경관	8
4) 제주 발담	9
3. 연구 의의	10

II. 이론 고찰 12

1. 문화경관	12
1) 개념	12
2) 유형 및 등재 현황	16

2. 세계유산	27
1) 개념	27
2) 유형	28
3) 등재체계 및 주요기구	32
4) 등재기준 및 절차	35
 Ⅲ. 연구 방법	 41
1. 연구 대상 및 범위	41
2. 연구 주요내용 및 구성	49
1) 연구의 주요 내용	49
2) 연구 진행 과정	50
3. 분석 방법	51
1) 돌문화자원 관련 평가기준 추출	52
2) 돌문화자원의 인지적 특성 평가	52
3) 돌문화자원의 우선순위 평가	59
4) 발담의 문화경관적 가치	59
5) 문화경관 관리를 위한 법제 제고	60

IV. 결과 및 고찰 61

1. 돌문화자원의 현황	61
2. 돌문화자원의 인지적 특성 평가	70
1) 기초 인식 조사	70
2) 이미지 분석	75
3) 경관선호도 분석	96
4) 소결	102
3. 대표자원 도출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	104
1)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chy Process)의 계층구조 설정	106
2) 평가기준의 중요도 분석	111
3) 평가기준별 돌문화자원의 우선순위 분석	112
4) 종합 분석	122
5) 소결	125
4. 제주 문화경관 관리를 위한 법제 제고	126
1) 문화경관 관련 법체계 현황	126
2) 국제기구의 법체계 측면	128
3) 국내 법체계 측면	132
4) 종합	138

V. 제주 발담의 문화경관적 가치 및 보전 방안 139

1. 문화경관적 가치 139

1) 발담의 현황 및 실태 139

2) 문화경관 등재기준 측면의 가치 146

3) 문화경관의 유형 측면의 가치 150

4) 종합적 가치 151

2. 보전 방안 152

VI. 결론 154

1. 연구 결과 요약 155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57

참고문헌 158

中文摘要 194

표 목차

<표 1> 문화경관 관련 선행연구 동향	6
<표 2> 세계유산 관련 선행연구 동향	7
<표 3> 제주문화경관 관련 선행연구 동향	8
<표 4> 제주발달 관련 선행연구 동향	9
<표 5>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13
<표 6>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차별성	15
<표 7> 세계문화경관의 유형(종류)과 등재 기준	16
<표 8> 분명히 규정된 경관	19
<표 9>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지속 경관)	19
<표 10>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화석 경관)	21
<표 11> 연상적 문화경관	21
<표 12> 문화경관의 61개국 102개 유산에 대한 국가별 정리(영문)	23
<표 13> 세계유산의 유형	28
<표 14> 한국 유네스코 등재 현황	29
<표 15> 한국 유네스코 등재 현황(기록유산 등)	30
<표 16>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2013년 12월 16일 현재)	31
<표 17> 세계유산협약의 주요내용 및 운영기구	32
<표 18>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33
<표 19> 기구별 주요기능	34
<표 2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	35
<표 21> 세계유산 등재 절차	37
<표 22> 연구대상 돌문화자원의 분류	41
<표 23> 연구 대상 돌문화자원	42
<표 24> 조사 설계 및 통계적 분석	51
<표 25> 농촌 경관형용사 목록 도출을 위한 분석 연구 리스트	55
<표 26> 이미지 평가를 위한 형용사 어의구별척도	58
<표 27> 제주 돌문화자원의 분포 현황	61
<표 2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0
<표 29> 기본 인식에 관한 특성	71
<표 30> 경관자원을 직접 본 경험 유무	73
<표 31> 이미지 평가 사례 사진	76
<표 32> 제주돌문화경관의 이미지의 형용사에 대한 요인분석	78
<표 33> KMO와 Bartlett의 검정	79

<표 34> 제주 돌문화자원의 이미지 형용사 전체 표현에 대한 기초통계량	80
<표 35> 정주석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2
<표 36> 축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2
<표 37> 울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3
<표 38> 통싯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3
<표 39> 올렛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4
<표 40> 용천대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4
<표 41> 봉천수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5
<표 42> 듬돌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5
<표 43> 발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6
<표 44> 우영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6
<표 45> 갯성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7
<표 46> 불턱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7
<표 47> 인공포구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8
<표 48> 도대불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8
<표 49> 원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9
<표 50> 소금빌레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89
<표 51> 산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90
<표 52> 고인들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90
<표 53> 방사탑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91
<표 54> 본향당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91
<표 55> 돌하르방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92
<표 56> 미륵불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92
<표 57> 동자석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93
<표 58> 연대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93
<표 59> 진현성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94
<표 60> 환해장성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94
<표 61> 각 경관자원별 이미지 평가 종합	95
<표 62> 총체적 선호도 측면의 분석	96
<표 63>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에서의 선호도 분석	97
<표 64> 탁월한 보편적 가치 (v) 측면에서의 선호도 분석	98
<표 65> 진정성 측면에서의 선호도 분석	99
<표 66> 완전성 측면에서의 선호도 분석	100
<표 67> 한중인의 차이에 따른 발담과 돌하르방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101
<표 68> 총체적 선호도 측면의 경관자원	102
<표 69> 평가기준별 높은 선호도의 경관자원	103
<표 70> 평가기준별 측면의 낮은 선호도의 경관자원	103

<표 71> 제주 돌문화자원의 평가 기준 도출	108
<표 72> 쌍대 비교표	109
<표 73> 응답자 현황	110
<표 74> 돌문화경관에 대한 평가기준의 중요도에 관한 쌍대비교	111
<표 75>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의 절대비교	112
<표 76> 탁월한 보편적 가치(v) 측면의 절대비교	113
<표 77> 진정성 측면의 절대비교	114
<표 78> 완전성 측면의 절대비교	115
<표 79>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의 절대비교	116
<표 80> 탁월한 보편적 가치(v) 측면의 절대비교	117
<표 81> 진정성 측면의 절대비교	118
<표 82> 완전성 측면의 절대비교	119
<표 83> 평가 기준별 중요자원	121
<표 84> 제주 돌문화경관의 중요도에 관한 종합 평가	122
<표 85> 제주 돌문화경관의 중요도에 관한 종합 평가	124
<표 86> 종합 평가 정리	125
<표 87> 문화경관 관련 법체계 정리	127
<표 88>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주요 내용	128
<표 89>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29
<표 90> 유럽경관협약 주요 내용	131
<표 91> 국내 경관 관련 법률 현황	132
<표 92> 경관법의 주요 내용	134
<표 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경관 관련 주요 내용	136
<표 94>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관련 조례 현황	137
<표 95> 발담의 축조 유형	140
<표 96> 제주 발담 훼손 상태	143
<표 97> 제주특별자치도 발담의 물리적 기초 특성	145
<표 98> 세계문화경관의 유형(종류)과 등재 기준관련 의의	150
<표 99> 등재 기준에 따른 발담의 문화경관적 특징	151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방향 설정	11
<그림 2> 문화경관과 자연·문화·복합유산과의 관계 정립	14
<그림 3> Royal Palace of Aranjuez	17
<그림 4> Blaenavon Industrial Landscape	18
<그림 5> 세계유산협약 운영기구 조직도	34
<그림 6> 세계유산 주요 등재절차	36
<그림 7> ICUN 심사절차	38
<그림 8> ICOMOS 심사결과	39
<그림 9> 연구흐름에 대한 개념도	50
<그림 10> 이미지 형용사 도출 과정	57
<그림 11> AHP 분석 과정	106
<그림 12>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 평가에 대한 계층구조	107
<그림 13> 제주 돌담의 축조 유형	141
<그림 14> 제주 말담의 분포 현황	142
<그림 15> 제주 말담의 분포 현황	144
<그림 16> 다양한 암석의 말담	147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향토(鄕土)자원은 문화유산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그 시대와 역사, 그리고 지역특성 및 사회발전 과정과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의 행태와 한 지역의 전통적 특징, 그리고 원시공간의 형태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전통 민족문화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향토문화유산은 보전 가치가 아주 높은 자연적 자원과 역사·문화자원, 그리고 사회적 자원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발전, 그리고 무분별한 지역개발로부터 우리의 전통 지역자원은 훼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관광지로 유명세를 보이는 지역은 자원의 훼손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전통자원과 향토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차원의 관리와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 방법에는 여전히 정확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관광객을 내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특히 많은 중국관광객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제주도 내 ‘중국 거리’가 형성되어 있기도 한 상황이다. 이러한 유명세 이면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자본 바람에 의해 많은 제주의 토지와 건축물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개발은 제주의 경제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면에는 제주 향토자원이 소실되는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제주도의 대표적 경관요소이자 중요 향토 자원인 돌담과 돌과 관련된 문화자원 등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그 원형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 관광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제주 올레길 및 여러 자원에 대한 탐방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탐방객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제주 문화자원의 훼손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원 훼손 방지와 보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역자원을 관리·보전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며 이런 추세에 맞추어

제주의 문화자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잦은 화산활동의 흔적인 현무암이 제주 전 구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수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주 돌자원은 현재까지도 제주의 경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형태가 제주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다. 이에 자원의 보호·관리 및 발전 차원에서 제주 향토 자원인 돌문화자원의 문화경관적 가치 발견을 위한 검토와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즉, 제주도의 돌문화지원을 제주만의 특수한 생활환경의 조건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독특한 삶의 대한 경관으로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과 더불어 잠재력이 큰 소중한 자원임이 분명하다고 사료된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적 작용에 의미를 둔 제주 돌문화자원의 보전과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 입증을 위해 세계유산의 한 범주로서 문화경관유산을 기준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타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은 유형의 자연유산이나 건축물 등의 점적인 유형물에서 경관으로까지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더불어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관리가 더 이상 어느 한 영역의 문제로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역할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또한 주요 흐름이다. 이에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전 관리는 더 이상 특별 영역이 아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유적이나 기념물 위주의 유산에서 문화경관으로 그 중심이 변화하고 있는 유네스코(UNESCO)¹⁾와 이코모스(ICOMOS)²⁾의 최근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즉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³⁾ 세계유산은 1975년 등재 이래 195개국의 세계유산협약 가입국(2016년 06월 현재)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문

1)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이며 인류가 보존 보호해야할 문화,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298&cid=40942&categoryId=40464>/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2)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로서 국제적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UNESCO(유네스코)의 비정부기구(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國際紀念物遺蹟會議)

3) http://www.unesco.or.kr/about/sub_01.asp(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화유산은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짐과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유산관리에 있어 유산 등재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관자원 관리에 대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적 정신을 간직한 문화경관에 관한 연구와 자원개발은 아직 원활하지 못한 실정으로 문화경관의 개념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문화경관에 대해 최근에서야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우리의 전통적 문화와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문화경관’에 대해 지역적인 사례 발굴 시도 및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문화경관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그에 대한 가치를 입증하거나 제시한 연구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탁월한 자연생태환경과 독특한 돌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제주의 다양한 돌문화자원의 발굴과 더불어 그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돌문화자원의 범위와 자원의 분포적 측면에서 그 대표성을 가지는 제주 발담을 중심으로 세계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제주의 경관보호가 근본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은 곧 제주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생태적 개발을 위한 경관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이는 앞으로 제주의 문화유산 관리와 경관 보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제주의 이미지 개선과 문화유산의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여 세계적인 섬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

2. 관련 연구 동향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관련 선행연구는 “문화경관”, “세계문화경관유산“, “제주문화경관“, “제주 발담“으로 키워드를 구분하여 국내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그에 따른 관련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였다.

1) 문화경관

문화경관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2000년 이후부터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화적 경관의 해석이나 특성,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서 어떠한 장소성에 대하여 문화경관적 해석과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경관의 특성에 대해 일차적 해석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는 정도의 연구로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길지혜 외2(2016)는 「조선시대 옛글을 통한 한양도성 연지(蓮池) 일대의 문화경관 고찰」의 연구를 통하여 한양도성의 연지인 동·서·남지 관련하여 그 당시의 옛글의 분석을 통해 연지에서의 각 개인의 행태 및 감흥적인 경관 특성을 분석하여 연지를 당대의 문화경관으로서 그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서·남지의 경관을 묘사하고 있는 시문이나 일기문, 또는 기문 등에서 옛글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지가 한 도시의 문화적 기능 보완 및 오픈스페이스로의 가치, 그리고 한양 고유의 경관체험 장소임을 알 수 있었으며, 고도(古都)의 잠재적 가치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수경관 임을 알 수 있었다.

천현진(2015)은 「서울속의 소연변: 대림동 중국인 거주지 문화경관 해석」을 통해 조선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네인 대림동의 중국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용행태와 물리적 형태를 참여 관찰법을 사용하여 문화경관을 분석·해석하였다. 그 결과, 대림동의 중국인 거주지는 공간의 물리적 형태와 이용행태가 중국의 연변과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이승희(2015)는 「고산 윤선도 원림 권역의 문화경관적 해석과 가치」를 통해 윤선도 원림을 대상으로 입지, 공간구성, 조영기법, 경관구조에서 드러나는 원림의 조영 특성을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문화경관 관점에서 문헌조사와 현지답사

를 중심으로 해석 및 그 가치를 도출하였다. 문헌자료를 통하여 윤선도 개인 삶과 사상적인 배경, 학문, 활동 등을 분석하여 윤선도 원림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찰하고 현지답사 하였다. 그리고 원림의 원형 추정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지형 모델링을 구축하여 지형·지세와 가시권을 분석하여 문화경관적 측면의 윤선도 원림은 사회경제적인 활동과 이득을 위한 생활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박은희(2014)는 「도산구곡의 문화경관 해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산구곡 관련 고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적 요소와 청량산의 유람로 경로를 해석함으로써 문화경관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현지 조사를 통해 보충하였다. 도출된 특성을 통해 도산구곡의 명승지정 가능성의 근거를 제시하여 문화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이갑(2014)는 「도시의 토지이용과 문화경관 연구」를 통해 신사동 가로수길의 문화경관을 해석하였다. 방문관찰을 통하여 가로수길의 사진과 유동인구의 현황, 인터뷰를 통한 문화경관의 패턴을 도출하였으며, 현장답사를 통해 지적·임야도를 바탕으로 시설들을 파악하고 상인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김민우(2013)는 「특화가로 문화경관 해석: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을 중심으로」를 통해 도시공간의 공간 형태에 부여된 문화경관을 해석하기 위하여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문화적 패턴을 시간적 흐름에 의해 해석하고, 공간의 외부에서 내부로, 형태에서 의미로, 객관에서 주관으로 들어가 문화경관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인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가로수길의 문화경관을 해석하였다.

강용(2015)는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 비교연구: 창차이촌(長財村)과 무이동(慕義洞)을 대상으로」를 통해 중국 조선족 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을 비교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문화기술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문화경관의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즉, 대상지 내 공간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공간 배치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체계를 분석하여 서로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양희은 외1(2014)는 「경리단길 창조계급의 유입과정과 문화경관 형성요인」의 연구를 통해 광산지역의 자원화 전략을 위한 문화경관자원의 가치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문화경관의 특성을 보전개념을 바탕으로 경관자원의 가치를 파악하였다. 방법으로 문화경관자원을 가치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계량적 수치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즉 문화경관자원의 가치를 유형별 점수로 평가하여 해석하였다.

최원석은(2012)는 「세계유산의 문화경관 유형에 관한 고찰」의 연구를 통해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경관에 대한 개념, 의의, 범주에 대해 고찰하고 산(山) 유산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가치를 분석하여 한국의 명산이나 문화경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실질적인 전략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1] 문화경관 관련 선행연구 동향

연구 주제	연구자		내용
조선시대 옛길을 통한 한양도성 연지(蓮池) 일대의 문화경관 고찰	길지혜 외2	2016	경관해석/ 특성/이미지
서울속의 소연변: 대림동 중국인 거주지 문화경관 해석	천현진	2015	
고산 윤선도 원림 권역의 문화경관적 해석과 가치	이승희		
도산구곡의 문화경관 해석에 관한 연구	박은희	2014	
장소기억을 통한 문화경관의 층위 해석: 형용사를 사용하여	박재민 외1		
도시의 토지이용과 문화경관 연구: 신사동 가로수길 중심으로	김이갑		
특화가로 문화경관 해석: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김민우	2013	
중국 이주민 거주지역 내 시장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서울시 대림동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천현진 외3	2012	
안좌도의 경관이미지와 경관잠재력 제고를 통한 문화경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신안군 안좌도의 경관테마 공원을 중심으로	이춘홍		
밀양 금시당 12경의 문화경관 해석	엄태건 외4	2011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김수진 외2	2010	
해안 마을숲의 문화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김수희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 비교연구: 창차이촌(長財村)과 무이동(慕義洞)을 대상으로	강용	2015	문화경관 비교
국가 유산 '명승'의 조사 기록을 위한 가치 범주의 구상: '문화 경관으로서의 명승'의 관점에서	전정환	2014	가치범주
경리단길 창조계급의 유입과정과 문화경관 형성	양희은 외1	2013	형성요인

요인			
광산지역 문화경관자원의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	박익수	2012	경관가치
세계유산의 문화경관 유형에 관한 고찰: 산(山) 유산을 중심으로	최원석		유형고찰
한국의 문화 경관에 대한 통합적 관점	류제현	2009	통합관점

2) 세계문화경관 유산

세계문화경관유산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먼저 조준현(2015)은 「울산 대곡천 유역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의 연구를 통해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울산 대곡천 유역이 얼마만큼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으로 구곡 문화와 반구대를 중심으로 문인의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정신적 측면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에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을 적용해 봄으로써 문화경관적 가치를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경관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최원석(2012)은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구성」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산악 문화경관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경관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지리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분석하여 세계유산 등재전략을 수립하여 대비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지리산 문화경관 복합체의 구성관계와 OUV 구성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문화경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구성에 대해 분석한 후 그 가치와 의의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리산의 문화경관적 가치는 ‘신성한 어머니 산, 지리산’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한 유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표 2] 세계유산 관련 선행연구 동향

연구 주제	연구자		연구 내용
울산 대곡천 유역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조준현	2015	유산적 가치
관광자원으로서의 세계유산문화경관	한숙영		사례 분석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구성	최원석	2012	유산적 가치

3) 제주문화경관

문화경관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많은 진행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 문화경관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양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연구의 내용은 대부분 전통적 성격의 문화경관에 대한 분석으로 유교적 성격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Haeng Lyoul Lee (2015)는 「제주도 대정향교와 유교문화경관 연구」를 통해 전통적 문화경관 자원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는 목적이며 대정향교의 물리적 특성을 위주로 입지적인 해석, 생태적 해석, 풍수지리적 해석, 배치형태, 마당의 D/H비례 등을 통하여 유교적 문화경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정향교는 지역성이 나타나는 유교문화경관의 특징이 있는 잘 나타나도록 조성된 사례라고 결론 지었다.

강성기 (2011)는 「문화경관으로서의 제주 발담의 의미 탐색」의 연구를 통해 제주 발담을 문화경관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주의 발담이 잘 유지되고 양호한 지역 3곳과 개발로 인해 발담을 거의 볼 수 없는 지역 1곳을 선택하여 현장답사와 주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의 지역성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상기 연구는 현재 본 연구자가 수행하려는 연구의 주제와 가장 흡사하나 제주 지역의 3곳에 대한 발담의 보전상태와 현황을 원론적 입장에서 조사 분석하는 정도에 그친 점이 아쉬운 점으로 판단된다.

김상범 외1(2010)은 「제주 묘지(墓地)경관의 구성요소로 본 『동자석(童子石)』의 쓰임새 및 상징성 분석」을 통해 제주도 분묘석상 동자석의 경관상징성 및 의미 분석을 위해 동자석이 가진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를 분석하고, 공간구성원리에 대한 특성과 신앙적 의의를 재조명하였으며 그 결과 제주의 사상과 풍토에 의해 재탄생한 제주적인 석상으로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제주문화경관 관련 선행연구 동향

연구 주제	연구자		연구 내용
제주도 대정향교와 유교문화경관 연구	Haeng Lyoul Lee	2015	물리적 문화경관
문화경관으로서 제주 발담의 의미 탐색	강성기	2011	경관적 의미
제주 묘지(墓地)경관의 구성요소로 본 『동자석(童子石)』의 쓰임새 및 상징성 분석	김상범외1	2010	물리적 특성

4) 제주 밭담

제주 밭담에 관한 연구는 농업환경이나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써 2000년대 후반에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먼저 강성기(2015)는 「제주도 농업 환경에 따른 밭담의 존재 형태와 농가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주도의 농업환경에 따른 제주 밭담의 존재 형태를 분석하고, 밭담에 대한 각 농가들의 인식 규명이 목적이며, 이에 사례지역의 농업의 환경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로 밭담의 존재형태와 농가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밭담의 존재형태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의 농업적 환경 특성에 따른 많은 변화와 더불어 밭담에 대하여 농가의 인식 또한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밭담은 더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임근옥(2015)는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의 농업관광에 대한 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제주도 밭담의 농업시스템에 대한 우수한 문화를 통해 관광개발 잠재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 교육, 관광, 홍보마케팅 등의 다각적인 농업관광 활성화 방안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고성보(2007)는 「제주밭담의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경관자원(제주밭담) 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제주 밭담의 농촌 경관 제공 기능을 가지는 존재 가치 측면의 제주 밭담의 경관자원을 가치 평가 요소로 결정함과 더불어 경관자원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경관보전직불제의 도입에 필요한 밭담의 평가 점수를 도출하고 경관자원으로서 상대적인 등급 결정과 절대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DELPHI 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표 4] 제주밭담 관련 선행연구 동향

연구 주제	연구자		연구 내용
제주도 농업 환경에 따른 밭담의 존재 형태와 농가인식에 대한 연구	강성기	2015	농업 환경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의 농업 관광에 대한 연구	임근옥		농업시스템
제주밭담의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경관자원(제주밭담) 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고성보	2007	농어시스템/ 정책

3. 연구 의의

이상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화경관에 대하여 경관해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문화경관에 대한 현황과 해석, 사례지의 이미지 특성에 대해서 일차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측면에서의 문화경관을 해석한 연구가 많았으며, 세계문화경관유산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최근에서야 그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역시 문화경관에 대한 해석이 중심이 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그리고 제주 발담에 관한 연구는 농업 환경이나 농업시스템, 농가의 농업 환경에 대한 인식, 경관보전직불제 등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경관적 측면이나 유산적 측면이 아니 농업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의 연구(농업 관련 시스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제주 향토문화자원에 대해 그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제주 돌문화경관의 선호도 및 이미지의 느낌을 도출하는 등 돌문화경관의 특성을 분석하여 문화경관 자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문화경관적 가치를 타진함으로써 제주 발담에 대한 보전과 경관적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제주돌문화경관의 현황 및 심리적 특성, 제주 돌문화자원의 우선순위 도출, 경관 관련 법제화 고찰 등의 분석을 통하여 돌문화자원의 보전 및 발담의 가치에 관한 기초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경관 정체성을 보전하고 문화자원의 개발과 원형유지를 위해 독특한 제주의 문화경관인 제주 돌문화경관에 대한 명확한 경관정체성 모색과 현황의 파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한국인과 중국인이 느끼는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한 인식 및 선호특성·이미지 특성, 제주 돌문화경관의 우선순위 및 법제를 분석하여 대표자원으로 도출된 제주 발담의 문화경관적 가치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그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해 문화경관유산의 유형과 제주 관련 유산에 관해 심도 있게 파악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한국의 주요 문화경관과 자원에 대한 세계문화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수립에 있어 기초적 자료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아래 그림1은 관련 선행연구의 요약 및 한계점 도출을 통한 본 연구의 방향설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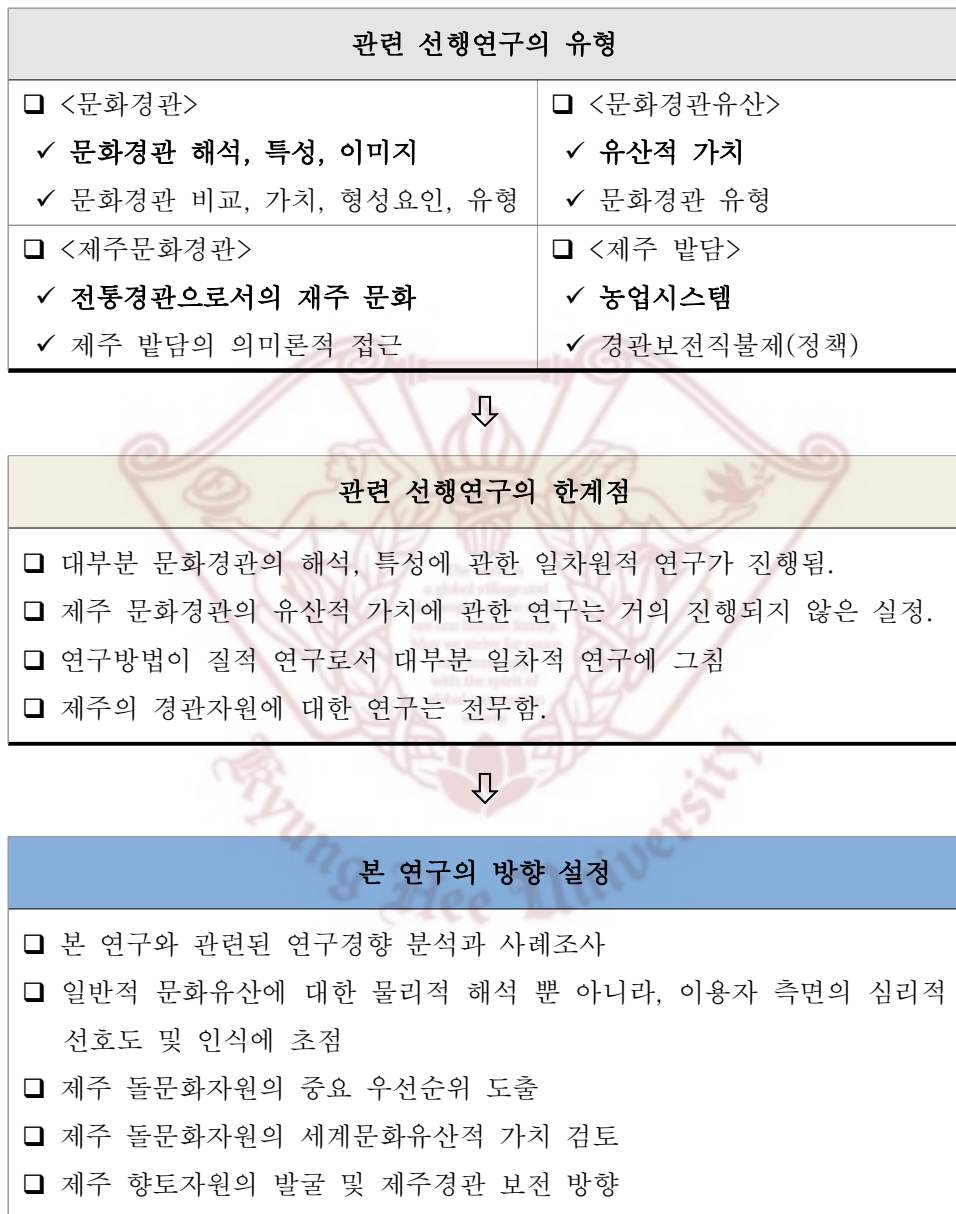


그림1. 연구방향 설정

II. 이론 고찰

1. 문화경관

1) 개념

문화란 사전적 의미로서 어떤 집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사유, 행동, 교환, 생활, 정보교환 등 그 집단에서 습득하여 이어져 온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국내 문화 관련 연구소 및 학계를 대상으로 문화의 개념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영역 관점에서 문화 이해의 경향이 강하였고, 문화를 인간의 정신·물질적 생활양식의 총체⁴⁾로 혹은 인간이 자연이나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들의 총체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지역이나 국가, 인종별로 모두 상이하며 그들만의 문화는 그들만의 역사를 대변하기도 하며 오랜 생활에 걸쳐 이어져 내려오면서 독특한 흔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그러한 흔적은 문화경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경관은 문화유산의 일종으로 유네스코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유산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전체 세계유산의 약 절반에 가까운 유산이 북미 및 유럽에 분포하는 지역적 불균형과 더불어 문화유산의 경우 역사도시나 기독교 유산,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살아있는 문화’를 나타내는 전통적 문화나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 문화적 산물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UNESCO, 1994).

이에 유네스코는 ‘인간과 인간에 영향을 주는 자연 환경과 길고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인류와 자연의 상호작용이 만든 걸작’(Combined works of nature and humankind, they express a long and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and their natural environment)⁵⁾이라고 문화경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정주와 인간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해온 것을 예증하는 것으로서, 진화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에 의해 주어진 자연적 제약이나 기회, 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문화적인 영향력을 받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

4) 정갑영 외2,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pp10~12.

5) <http://whc.unesco.org/en/culturallandscape/>(유네스코 홈페이지)

6) 조준현, 「울산 대곡천 유역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vi

유네스코의 문화경관 세계유산은 세계유산위원회(1992)에서 새로이 채택한 세계유산 범주의 하나의 목록이다. 그 내용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에 중심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유산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경관의 범주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의 제 47항(2013)에 명시되어 있다.

[표 5]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47. Cultural landscapes⁷⁾

Cultural landscapes are cultural properties and represent the "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 designat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hey are illustrative of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y and settlement over ti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physical constraints and/or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eir natural environment and of successiv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orces, both external and internal.

UNESCO는 문화경관 즉 ‘Cultural Landscape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re exist a great variety of Landscapes that are representative of the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Combined works of nature and humankind, they express a long and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and their natural environment.”⁸⁾

1972년 UNESCO에 의하여 채택된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근거하여 문화경관의 공식적 등재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문화유산은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념물, 건축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 문화유산은 6가지 등재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고, 자연유산은 사람의

7) <http://whc.unesco.org/en/guidelines/>(2015 Operational Guidelines)

8) <http://whc.unesco.org/en/culturallandscape>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4가지 등재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기준 중 각각 하나 이상씩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UNESCO 문화유산 분류에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2년 UNESCO 제1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관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이라 정의 하고, 이를 새로운 세계유산의 범주로 인정하였다. 이후 유럽은 2000년 10월 피렌체에서 유럽경관협약(Convention europeenne du paysage)을 채택하였고, 활발한 문화경관 보전활동을 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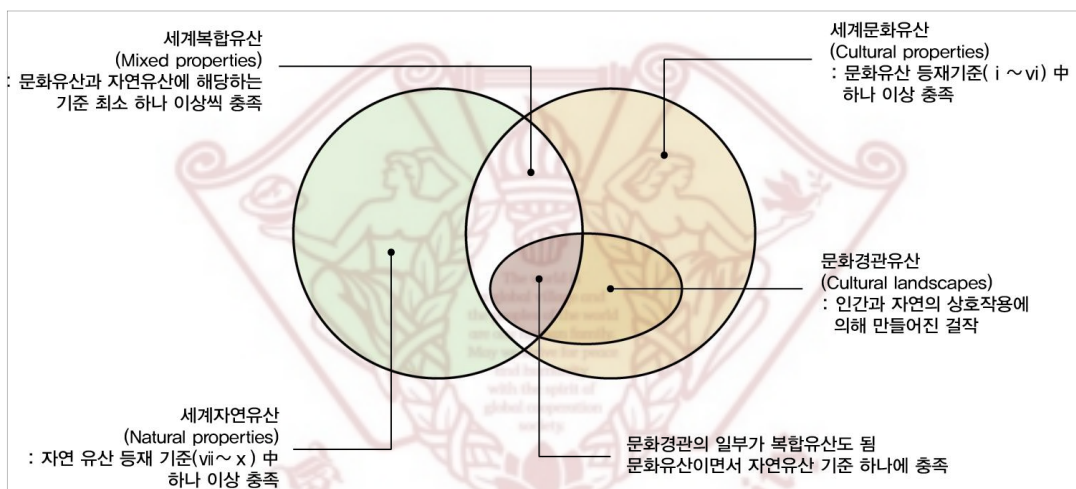


그림 2. 문화경관과 자연·문화·복합유산과의 관계 정립

1992년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목록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재의 추가적 범주(Category)로 문화경관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경관’이라는 범주는 1992년 회의기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한 것으로 「세계유산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1995)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운영지침들은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이 핵심적 초점이 되고 있는 장소(Site)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¹⁰⁾

세계유산위원회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화경관은 문화재(Cultural Properties)로서 세계유산협약의 제 1조에 명시된 ‘자연

9) 한숙영, 「관광자원으로서의 세계유산 문화경관」, GRI 연구논총, 2015, 17(3) p.165.

10) 류세현, 「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 과정」, 대한지리학회지, 2013. 48(4) p.577.

과 인간의 공동작품'에 해당한다. 문화경관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물리적 제약 그리고/또는 기회와,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힘에 의하여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인간사회 및 정주지 진화의 예이다(UNESCO, 1994b).”¹¹⁾

이에 1995년 문화경관 개념으로 세계유산이 등재되기 시작하여 전 세계가 문화경관 유산을 발굴·보전하면서 문화경관 등재의 노력을 계속해 온 결과 1993년 뉴질랜드의 Tongariro National Park를 시작으로 2016년 08월 기준 세계유산은 192개의 세계유산협약 가입국과 더불어 전 세계 165개국의 814점의 문화유산, 203점의 자연유산, 35점의 복합유산으로 총 1,052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많은 문화경관유산이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UNESCO는 세계 각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유산 목록에 단지 등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등재기준 및 절차 수립, 그리고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의 설립을 통해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규범을 마련하였다.

[표 6]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차별성

구분	차별성	내용
1.	자연유산과의 차별성	문화경관은 문화유산에 속하며 자연유산의 등재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2.	문화유산과의 차별성	기존 문화유산은 문화유산 등재기준 6개 중 하나 이상만 충족시키면 되는 반면, 문화경관은 문화유산 2등재기준 하나 이상과 더불어 “자연과 인간의 공동작품”이라는 것도 함께 증명해야 함.
3.	복합유산과의 차별성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기준을 각각 1개씩만 충족시키면 되는 반면, 문화경관은 반드시 “자연과 인간의 공동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함.
4.	문화경관+ 자연유산 =복합유산 등재	문화경관이 자연유산 등재기준 1개 이상 충족 시, 그 문화경관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조건을 공동으로 충족하기에 복합유산으로 등재.

이러한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경관’과 ‘보호경관’이라는 개념에 이어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이 1987년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화경관은 1970년 이코모스와 세계조경가연맹(IFLA:

11) 한숙영, 「관광자원으로서의 세계유산 문화경관」, GRI 연구논총, 2015, 17(3) p.16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이 함께 경관유산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한 후 매년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이며 다양한 범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유산 문화경관은 문화·자연·복합 유산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별된다.

2) 유형 및 등재 현황

① 유형

세계문화유산의 한 범주인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은 UNESCO 세계유산 등재기준 및 각 유산(자원)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 한다.

[표 7] 세계문화경관의 유형(종류)과 등재 기준

구분	유 형		등재기준의 관련성
①	분명히 규정된 경관(설계된 경관) (Designed landscape)		(v)
②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Organically evolving landscape)	지속(Continuous)	(i),(ii),(iii),(iv)
		화석(Fossil)	(i),(vi)
③	연상적 경관(결합한 경관) (Associative landscape)		(vii)

출처: 최원석, 「세계유산의 문화경관 유형에 관한 고찰」 역사문화지리, 2015, 24(1), p.31, 이용 저자 재작성

첫 번째는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경관”, 즉 분명히 규정된 경관(Designed landscape)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의도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며, 관상 목적의 정원·공원, 기념건축물과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 ‘아란후에즈 문화경관’ (Aranjuez Cultural Landscape)을 꼽을 수 있다.



그림 3. Royal Palace of Aranjuez

출처: http://www.wikiwand.com/en/Royal_Palace_of_Aranjuez

두 번째는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Organically evolving landscape)을 말하며 초기의 사회·경제·행정·종교적 필요성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자연환경과의 밀접한 관계로 발전 및 변천과정을 반영한다. 이러한 유기적 진화 경관에는 현재 자원의 진화 상태에 따라 지속경관(Continuous)과 화석경관(Fossil)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지속경관(continuing landscape)은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활발한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며 진화과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중요한 물질적 증거를 보여준다. 즉,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과거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물리적 증거를 보여준다. 화석경관(relict <or fossil> landscape)은 진화과정이 과거의 한 시점에서 끝났으나 중요한 특징들을 물리적 형태로 남아 현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영국 ‘블레나본 산업 경관’ (Blaenavon Industrial Landscape)을 꼽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연적 요소가 문화·예술·종교적 연관성을 강하게 가지는 연상적 문화경관, 즉 결합한 경관(Associative landscape)으로 크게 구분하며 하나의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유형을 가지는 있는 경우도 있다.¹²⁾ 이상의 문화경관의 유형을 세계유산 등재기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리한 내용은 위의 표7과 같다.

1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유산_새천년을 향한 도전」, 2010, p.40.



그림 4. Blaenavon Industrial Landscape

출처: <https://jaspasjourney.wordpress.com/2014/12/30/blaenavon-industrial-landscape-world-heritage-site-wales>

② 세계문화경관유산의 유형별 등재 현황

문화경관은 분명히 규정된 경관,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지속경관, 화석경관), 연상적 경관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문화경관은 총 61개국의 102개 유산이 현재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네스코의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6.22-30/스페인 세비야)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의 목록’(이하 위험유산)에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서 최종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세계에서는 두 번째이며, 문화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의 국가에서는 최초의 문화경관 삭제 대상국이기도 하다. 이에 그 유형별 문화경관 등재 목록은 아래 표8~표11과 같다.

아래 표8은 ‘분명히 규정된 경관’에 대한 목록이다.

[표 8] 분명히 규정된 경관

유산(名)	소유(國)	등재연도	등재기준 (문화유산)
테사우-빌리츠 정원	독일	2000	(ii),(iv)
드레스덴 엘베 계곡	독일	2009(삭제)	(ii),(iii),(iv),(v)
무스카우어공원/무자코프스키공원	독일/폴란드	2004	(i),(iv)
아란후에스 문화경관	스페인	2001	(ii),(iv)
큐 왕립 식물원	영국	2003	(ii),(iii),(iv)
콘월과 서부 데번 광산 경관	영국	2006	(ii),(iii),(iv)
아말피 연안	이탈리아	1997	(ii),(iv),(v)
포르토베네레, 친퀘테레와섬들	이탈리아	1997	(i),(ii),(iv)
레드니체-발티체 문화경관	체코	1996	(i),(ii),(iv)
신트라 문화경관	포르투갈	1995	(ii),(iv),(vi)
칼바리아제브지도프스카, 마나에리스모건축과 공원단지 및 순례공원	폴란드	1999	(ii),(iv)
쉴리 쉬르 루아르와 살론 사이에 있는 루아르 계곡	프랑스	2000	(i),(ii),(vi)
참파삭 문화경관 내 왓푸 사원 및 고대 주거지	라오스	2001	(iii),(iv),(vi)
오르콘 계곡 문화 경관	몽골	2004	(ii),(iii),(iv)
향저우의 서호 문화 경관	중국	2011	(ii),(iii),(vi)
콰디샤 계곡과 백향목 숲	레바논	1998	(iii),(iv)
바미안 계곡의 문화 경관과 고고유적	아프가니스탄	2003	(i),(ii),(iii),(iv) ,(vi)
향료교역로-네게브지역의 사막도시	이스라엘	2005	(iii),(v)
밤 지역 문화경관	이란	2004	(ii),(iii),(iv),(v)
페르시아 정원	이란	2011	(i),(ii),(iii),(iv) ,(v)
암보히망가 왕실 언덕	마다가스카르	2001	(iii),(vi)

아래 표 9는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중 ‘지속경관’에 대한 목록이다.

[표 9]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지속 경관)

유산(名)	소유(國)	등재연도	등재기준 (문화유산)
베가 제도	노르웨이	2004	(v)
라인 강 중·상류 계곡	독일	2002	(ii),(iv),(v)
쿠로니아 모래톱	리투아니아	2000	(v)

월란드 남부 농업경관	스웨덴	2000	(ii),(iv)
라보의 포도원 계단식 경작지	스위스	2007	(iii),(iv),(v)
트라문타나 산맥의 문화경관	스페인	2011	(ii),(iv),(v)
싱켈리어 국립공원	아이슬란드	2004	(iii),(vi)
마드리우-페라피타-클라로계곡	안도라	2005	(v)
잘츠카머구트지방의	오스트리아	1997	(iii),(iv)
할슈타트-다흐슈타인 문화경관	오스트리아	2000	(ii),(iv)
바하우 문화경관	오스트리아	2001	(v)
페르뒤-노이지들러 호 문화경관	이탈리아	1997	(ii),(iv),(v)
아말피 연안	이탈리아	1997	(ii),(iv),(v)
포르토베네레 및 친퀘테레와 섬들	이탈리아	2004	(iv),(vi)
발 도르차	포르투갈	2001	(iii),(iv),(v)
알투 도루 포도주 산지	포르투갈	2004	(iii),(iv)
피쿠 섬의 포도밭 문화경관	프랑스	1999	(iii),(iv)
생테밀리옹 특별지구	프랑스	2011	(iii),(v)
코즈와 세벤의 중세 농경·목축 문화경관	프랑스,스페인	1999	(iii),(iv),(v), (vii),(viii)
피레네 몽 페르뒤 산	헝가리	1999	(iv),(v)
호르토바지국립공원-푸스타	헝가리	2002	(iii),(v)
토케이 와인 역사·문화경관	미국	2010	(iii),(vi),(viii), (ix),(x)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국립기념물	인도네시아	2012	(ii),(iii),(v),(vi)
발리의 문화경관	파푸아뉴기니	2008	(iii),(iv)
쿠크 초기 농경지	필리핀	1995	(iii),(iv),(v)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가봉	2007	(iii),(iv),(ix),(x)
로페-오칸다 생태계 및 잔존 문화경관	나이지리아	1999	(iii),(v),(vi)
수크르 문화경관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7	(vi),(v)
리흐터스펠트 문화경관 및 식물경관	세네갈	2004	(iii),(iv),(v)
살룸 삼각주	세네갈	2012	(iii),(v),(vi)
바사리지역 :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	에티오피아	2011	(iii),(v)
콘소 문화경관	토고	2004	(v),(vi)
코타마코, 바타마리바 지역	멕시코	2006	(ii),(iv),(v),(vi)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데킬라 생산시설	아르헨티나	2003	(ii),(v),(vi)
우마우카 협곡	콜롬비아	2011	(v),(vi)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쿠바	1999	(vi)
비날레스 계곡	쿠바	2011	(iii),(iv)
쿠바 남동부 최초의 커피 재배지 고고 경관			

아래 표 10은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중 ‘화석경관’에 대한 목록이다.

[표 10]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화석 경관)

유산(名)	소유(國)	등재연도	등재기준 (문화유산)
케르나베 고고 유적	리투아니아	2004	(iii),(iv)
블래나번 산업 경관	영국	2000	(iii),(iv)
세인트 킬다 군도	영국	2005	(iii),(v),(vii), (ix),(x)
노르-파 드 칼레 광산	프랑스	2012	(ii),(iv),(vi)
그랑프레 경관	캐나다	2012	(v),(vi)
오르콘 계곡 문화 경관	몽골	2004	(ii),(iii),(iv)
빔베트카 바위 은신처	인도	2003	(iii),(v)
이와미 은광과 문화경관	일본	2010	(ii),(iii),(v)
고부스탄 암각화 문화경관	아제르바이잔	2004	(iii)
탐갈리 고고 경관의 암면 조각	카자흐스탄	2004	(iii)
향료교역로-네게브지역의 사막도시	이스라엘	2006	(iii),(v)
밤 지역 문화경관	이란	2007	(ii),(iii),(iv), (v)
북시리아의 고대 촌락	시리아	2011	(iii),(iv),(v)
마퐁구베 문화경관	남아프리카공화국	2003	(ii),(iii),(iv), (v),(vi)
오악사카 중앙 계곡의 야굴과 미틀라 선사동굴	멕시코	2010	(iii)

아래 표 11은 ‘연상적 경관’에 대한 목록이다.

[표 11] 연상적 문화경관

유산(名)	소유(國)	등재연도	등재기준 (문화유산)
싱벨리어 국립공원	아이슬란드	2004	(iii),(vi)
치렌토·발로 디 디아노 국립공원, 파에스툼과 벨리아 고고유적지	이탈리아	1998	(iii),(iv)
피에몬테와 롬바르디아의 사크리몬티 발 도르차	이탈리아	2003	(iii),(iv)
발 도르차	이탈리아	2004	(iv vi)
레드니체-발티제 문화경관	체코	1996	(i),(ii),(iv)
칼바리아제브지도프스카, 마나에리스모 건축과 공원단지 및 순례공원	폴란드	1999	(ii),(iv)
로아 마타 추장 영지	바누아투	2008	(iii),(v),(vi)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	오스트레일리아	1994	(v),(vi),(vii), (viii)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일본	2004	(ii),(iii),(iv), (vi)
우타이산	중국	2009	(i),(ii),(iv)
루산 국립공원	중국	1996	(iii),(iv),(vi)
항저우의 서호 문화경관	중국	2011	(ii)(iii)vi
과디샤 계곡과 백향목 숲	레바논	1998	(iii),(iv)
바미안 계곡의 문화 경관과 고고유적	아프가니스탄	2003	(i),(ii),(iii), (iv),(vi)
탐갈리 고고 경관의 암면 조각	카자흐스탄	2004	(iii)
슬라이만투 성산	키르기즈스탄	2009	(iii),(vi)
수크르 문화경관	나이지리아	1999	(iii),(v),(vi)
오순-오소그보 신성숲	나이지리아	2006	(ii),(iii),(vi)
암보히망가 왕실 언덕	마다가스카르	2001	(iii),(vi)
르몬 문화경관	모리셔스	2008	(iii),(vi)
마토보 언덕	짐바브웨	2008	(iii),(v),(vi)
미지켄다 부족의 카야 성립	케냐	2008	(iii),(v),(vi)
용설란 재배지 경관과 옛 데킬라 생산 시설	멕시코	2006	(ii),(iv),(v), (vi)
리우데자네이루: 산과 바다 사이	브라질	2012	(v),(vi)
까리오까 문화경관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	콜로비아	2011	(v),(vi)
비날레스 계곡	쿠바	1999	(vi)

다음 표 12는 세계문화경관 유산의 종합 목록에 대한 유네스코 영문 원문으로
써 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2] 문화경관의 61개국 102개 유산에 대한 국가별 정리(영문)

Nation	Cultural Landscape
Afghanistan	Cultural Landscape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Bamiyan Valley
Andorra	Madriu-Perafita-Claror Valley
Argentina	Quebrada de Humahuaca
Australia	Uluru-Kata Tjuta National Park 1
Austria	Hallstatt-Dachstein / Salzkammergut Cultural Landscape
	Wachau Cultural Landscape
Azerbaijan	Fertő / Neusiedlersee Cultural Landscape *
	Gobustan Rock Art Cultural Landscape
Brazil	Rio de Janeiro: Carioca Landscapes between the Mountain and the Sea
	Pampulha Modern Ensemble
Canada	Landscape of Grand Pré
Chad	Ennedi Massif: Natural and Cultural Landscape
China	Lushan National Park
	Mount Wutai
	West Lake Cultural Landscape of Hangzhou
	Cultural Landscape of Honghe Hani Rice Terraces
Colombia	Zuojiang Huashan Rock Art Cultural Landscape
	Coffee Cultural Landscape of Colombia
Cuba	Viñales Valley
	Archaeological Landscape of the First Coffee Plantations in the South-East of Cuba
Czech Republic	Lednice-Valtice Cultural Landscape
Denmark	The par force hunting landscape in North Zealand
Ethiopia	Konso Cultural Landscape
France	Pyrénées - Mont Perdu
	Jurisdiction of Saint-Emilion
	The Loire Valley between Sully-sur-Loire and Chalonnes
	The Causses and the Cévennes, Mediterranean agro-pastoral Cultural Landscape
	Nord-Pas de Calais Mining Basin
	Champagne Hillsides, Houses and Cellars
	The Climats, terroirs of Burgundy

[표 12] 계속

Gabon	Ecosystem and Relict Cultural Landscape of Lopé-Okanda
Germany	Garden Kingdom of Dessau-Wörlitz
	Upper Middle Rhine Valley
	Dresden Elbe Valley Delisted 2009
	Muskauer Park / Park Mużakowsk
Hungary	Bergpark Wilhelmshöhe
	Hortobágy National Park - the Puszta
	Fertő / Neusiedlersee Cultural Landscape
Iceland 20	Tokaj Wine Region Historic Cultural Landscape
	Pingvellir National Park
India	Rock Shelters of Bhimbetka
Indonesia	Cultural Landscape of Bali Province: the Subak System as a Manifestation of the Tri Hita Karana Philosophy
Iran (Islamic Republic of)	Bam and its Cultural Landscape
	The Persian Garden
	Cultural Landscape of Maymand
Israel	Incense Route - Desert Cities in the Negev
Italy	Costiera Amalfitana
	Portovenere, Cinque Terre, and the Islands (Palmaria, Tino and Tinetto)
	Cilento and Vallo di Diano National Park with the Archeological Sites of Paestum and Velia, and the Certosa di Padula
	Sacri Monti of Piedmont and Lombardy
	Val d'Orcia
	Medici Villas and Gardens in Tuscany
	Vineyard Landscape of Piedmont: Langhe-Roero and Monferrato
Japan	Sacred Sites and Pilgrimage Routes in the Kii Mountain Range
	Iwami Ginzan Silver Mine and its Cultural Landscape
Kazakhstan	Petroglyphs within the Archaeological Landscape of Tamgaly
Kenya	Sacred Mijikenda Kaya Forests
Kyrgyzstan	Sulaiman-Too Sacred Mountai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Vat Phou and Associated Ancient Settlements within the Champasak Cultural Landscape

[표 12] 계속

Lebanon	Ouadi Qadisha (the Holy Valley) and the Forest of the Cedars of God (Horsh Arz el-Rab)
Lithuania	Curonian Spit Kernavė Archaeological Site (Cultural Reserve of Kernavė)
Madagascar	Royal Hill of Ambohimanga
Mauritius	Le Morne Cultural Landscape
Mexico	Agave Landscape and Ancient Industrial Facilities of Tequila Prehistoric Caves of Yagul and Mitla in the Central Valley of Oaxaca
Mongolia	Orkhon Valley Cultural Landscape
New Zealand	Tongariro National Park
Nigeria	Sukur Cultural Landscape Osun-Osogbo Sacred Grove
Norway	Vegaøyan -- The Vega Archipelago
Palestine	Palestine: Land of Olives and Vines -- Cultural Landscape of Southern Jerusalem, Battir
Papua New Guinea	Kuk Early Agricultural Site
Philippines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Poland	Kalwaria Zebrzydowska: the Mannerist Architectural and Park Landscape Complex and Pilgrimage Park Muskauer Park / Park Mużakowski
Portugal	Cultural Landscape of Sintra Alto Douro Wine Region Landscape of the Pico Island Vineyard Culture
Russian Federation	Curonian Spit
Senegal	Saloum Delta Bassari Country: Bassari, Fula and Bedik Cultural Landscapes
Singapore	Singapore Botanic Gardens
South Africa	Mapungubwe Cultural Landscape Richtersveld Cultural and Botanical Landscape
Spain	Pyrénées -- Mont Perdu Aranjuez Cultural Landscape Cultural Landscape of the Serra de Tramuntana
Sweden	Agricultural Landscape of Southern Öland
Switzerland	Lavaux, Vineyard Terraces

[표 12] 계속

Syrian Arab Republic	Ancient Villages of Northern Syria
Togo	Koutammakou, the Land of the Batammariba
Turkey	Diyarbakır Fortress and Hevsel Gardens Cultural Landscape
Ukraine	Ancient City of Tauric Chersonese and its Chora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t Kilda Blaenavon Industrial Landscape Royal Botanic Gardens, Kew Cornwall and West Devon Mining Landscape
United States of America	Papahānaumokuākea
Uruguay	Fray Bentos Industrial Landscape
Vanuatu	Chief Roi Mata's Domain
Viet Nam	Trang An Landscape Complex
Zimbabwe	Matobo Hills

출처: <http://whc.unesco.org/en/list/> (유네스코 홈페이지 참고 저자 작성)



2. 세계유산

1) 개념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 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UNESCO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¹³⁾

그리고 UNESCO는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뛰어난 유산을 선정·등재함과 동시에 세계유산 등재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을 통해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표준화된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의 규정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지닌 부동산 유산으로써 그 특성에 의해 자연·문화·복합 유산으로 분류한다.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으로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서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와 남미대륙의 바로크 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류의 유산이다.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¹⁴⁾

13) http://heritage.unesco.or.kr/wh/wh_intro/

14) <http://www.unesco.or.kr/heritage/wh/>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2) 유형

세계유산협약은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로 구성되어진 총회와 그 총회에서 선출한 21개의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와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자문하기 위한 3개의 자문기구로 구성되어 있다.¹⁵⁾

이러한 세계유산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하며 문화유산은 다시 기념물과 건조물 군, 유적지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으로 두 유산의 특징을 하나 이상씩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 표 13은 세계유산의 유형을 정의한 것이다.

[표 13] 세계유산의 유형

구 분		정 의	
세 계 유산	문화 유산	기념물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건조물 군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허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자연 유산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복합 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출처: http://heritage.unesco.or.kr/wh/wh_intro/

2016년 08월 기준 세계유산은 192개의 세계유산협약 가입국과 더불어 전 세계

15) <http://www.unesco.or.kr/heritage/wh/convention.asp>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165개국의 814점의 문화유산, 203점의 자연유산, 35점의 복합유산으로 총 1,052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위협에 처해있는 세계유산에는 총 48점(2015.07 기준)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목록은 문화유산으로 합천해인사 장경판전(1995년)과 서울의 종묘(1995),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가 있으며, 자연유산으로는 유일하게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총 12점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표 14] 한국 유네스코 등재 현황

구분	유산명(名)	지정 년도	계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및 불국사	1995	12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1997	
	수원 화성		
	경주 역사지구	2000	
	고창·하순·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40기	2009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0	
	남한산성	2014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출처: http://www.unesco.or.kr/about/sub_05.asp

다음 표 15는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으로써 세계기록유산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세계지질공원의 대한 목록으로써 잠정목록은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원하는 회원국들이 직접 작성한 자국들의 유산목록으로 회원국은 잠정 목록 대상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문화유산으로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포함시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석 가운데에 잠정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최소한 신청 1년 전에 대략적인 잠정목록을 세계유산 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잠정목록에 대한 제출양식은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목록에는 유산 명칭, 지리적 위치, 대략적인 설명 및 보편적 가치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회원국의 잠정목록에 미 포함된 유산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없으며, 모든 잠정목록은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표 15] 한국 유네스코 등재 현황(기록유산 등)

구분	유산(名)	계	구분	유산(名)	계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례본(1997)	13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종묘제례악(2001)	18
	조선왕조실록(1997)			판소리(2003)	
	송정원일기(2001)			강릉단오제(2005)	
	직지심체요절(2001)			강강술래(2009)	
	조선왕조 의궤(2007)			남사당(2009)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영산재(2009)	
	동의보감(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일성록(2011)			처용무(2009)	
	5·18민주화운동기록물(2011)			가곡(2010)	
	난중일기(2013)			대목장(2010)	
	새마을운동기록물(2013)			매사냥술(2010)	
	한국의 유교책판(2015)			택견(2011)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			줄타기(2011)	
				한산 모시짜기(2011)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설악산(1982)	5	세계지질공원	아리랑(2012)	1
	제주도(2002)			김장문화(2013)	
	신안다도해(2009)			농악(2014)	
	광릉숲(2010)			줄다리기(2015)	
	고창(2013)				

출처: http://www.unesco.or.kr/about/sub_05.asp

191개 협약 당사국 중 171개국이 1,589개의 잠정목록(2014년 6월 기준)을 제출하였으며 다음 표 16은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대한 정리표이다.

[표 16]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2013년 12월 16일 현재)

구분	유산명	소재지	등록일
문화유산	강진 도요지	전남 강진군	1994.09.01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충남 공주시, 부여군	2010.01.11
	중부내륙산성군	충북 보은군, 청주시, 괴산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2010.01.11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2010.01.11
	익산 역사유적지구	전북 익산시	2010.01.11
	염전	전북 신안군, 영광군	2010.01.11
	대곡천 암각화군	울산시	2010.01.11
	낙안읍성	전남순천시	2011.03.11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2011.03.11
	서원	경북영주시, 경주시, 안동시, 경남 함양군, 전북 전읍시, 전남 장성군, 대구 광역시, 달성군, 충남 논산시	2011.12.09
	서울 한양 도성	서울시	2012.11.23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김해시, 함안군	2013.12.11
	고령 지사동 대가야고분군	고령군	2013.12.12
	한국의 전통산사	순천시, 해남군, 보은군, 공주시, 양산시, 영주시, 안동시	2013.12.12
자연유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인제군, 속초시 등	1994.09.01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전남 해남군, 보성군, 화순군, 여수군, 경남 고성군	2002.01.25
	서남해안 갯벌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전남 순천시, 보성군, 무안군, 신안군 등	2010.01.11
	우포늪	경남 창녕군	2011.01.11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는 기존 무령왕릉(1994.9.1. 잠정목록 등재) 확장

중부내륙산성군은 기존 삼년산성(1994.9.1. 잠정목록 등재) 확장

출처: http://www.unesco.or.kr/heritage/wh/list_provisional.asp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3) 등재체계 및 주요기구

세계유산위원회는 여러 나라들이 제출한 세계유산 신청서를 검토하고, 전문기구의 도움을 받아 매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유산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산들의 보호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거나 해당 국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러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 전문기구 3곳이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정되어 있다.¹⁶⁾

그러한 자문기구는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자연유산 분야의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문화재 보존 및 복원분야의 국제문화재보존복원센터 (ICCROM) 등이 있으며, 아래 표 17은 세계유산협약의 주요 내용과 운영기구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표 17] 세계유산협약의 주요내용 및 운영기구

구 분		세계유산협약	
주요 내용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정의		
	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의 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 및 총회		
	세계유산기금 설치 및 사용기준		
	일반인들의 세계유산 보호 인식 증진 교육 및 정보 제공 권장		
운영 기구	자문 기구	문화유산 분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자연유산 분야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문화재보존 ·복원 분야	국제문화재보존 복원센터 (ICC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행정 업무		세계유산 센터

출처: <http://www.unesco.or.kr/heritage/wh/adbody.asp>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참고 저자 재작성)

16) <http://www.unesco.or.kr/heritage/wh/adbody.asp>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자연유산 분야의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문화재 보존 및 복원분야의 국제문화재 보존 복원센터 (ICCROM)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구 분	세계유산협약	
세계자연 보전연맹 (IUCN)	공식 명칭 설립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1948년
	본부 소재지	스위스 글랑
	주요 기능	세계자연보전연맹은 국제비정부기구로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유산들을 조사하고 평가한 후 세계유산 위원회에 등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자연 유산 관련한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폭넓은 협력체계를 활용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ICOMOS)	공식 명칭 설립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1965년
	본부 소재지	프랑스 파리
	주요 기능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국제비정부기구로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유산들을 조사하고 평가한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자연 유산 관련한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폭넓은 협력체계를 활용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 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
국제문화재 보존복원 센터 (ICCROM)	공식 명칭 설립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1956년
	본부 소재지	이탈리아 로마
	주요 기능	국제문화재보존복원연구센터는 정부간 기구이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뿐 만 아니라 문화 유산 전반에 대한 관리, 보존 정책, 복원 기술 등을 연구한다. 해마다 문화유산 복원에 대한 정기 연수를 개최해 앞선 복원 기술을 각국에 소개하고, 경험을 교류한다. 개별 유산에 대한 복원 방안 및 구체적인 복원기술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

출처: <http://www.unesco.or.kr/heritage/wh/adbody.asp>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참고 저자 재작성)

세계유산 등재기준 중 (i)~(vi)는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기준으로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가치 평가를 수행하며, 등재기준(vii)~(x)는 세계자연유산 기준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그 평가를 수행하며, 복합유산은 ICOMOS 및 IUCN 두 기관 모두 평가하게 된다(UNESCO, 2011). 세계유산협약의 운영기구의 주요 기능과 조직도는 표 19 및 그림 5와 같다.

[표 19] 기구별 주요기능

기구명	주요기능	비고
총회	최고의사결정기구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출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지정 세계유산 등재 기준 결정 세계유산기금 사용 결정	세계유산협약 사업 주도
세계유산센터	사무국	유네스코 사무총장 소관
IUCN	세계유산위원회자문기구 - 자연유산 신청 현지조사, 자연유산 분야 제반 자문	1948년 설립, 스위스 글랑 소재 1998년 IUCN 한국위원회 창립
ICCROM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자문	1959년 설립, 로마 소재 1968년 한국 가입(정부간 기구)
ICOMOS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 문화유산 신청 현지조사, 문화유산 분야 제반 자문	1965년 설립, 프랑스 파리 소재 1999년 ICOMOS 한국위원회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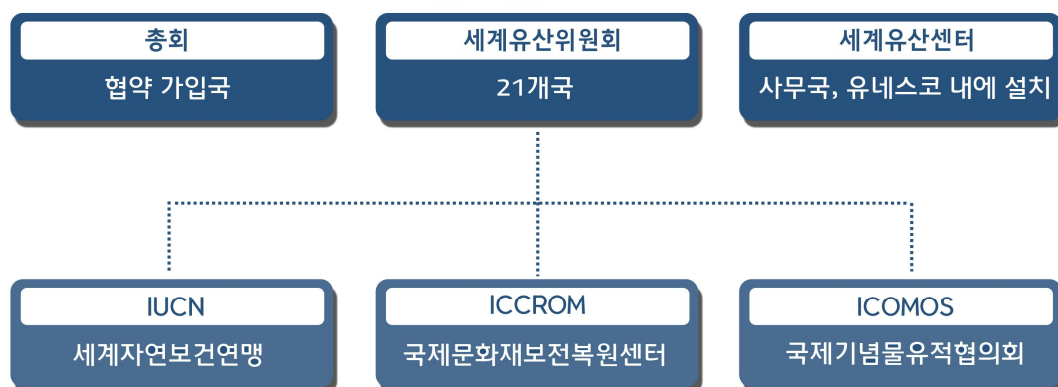


그림 5. 세계유산협약 운영기구 조직도

4) 등재기준 및 절차

세계유산의 등재기준을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

구 분	기 준		대표 사례
문 화 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v)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 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 돔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 (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자 연 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 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화산 섬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판다 보호구역
공통	완전성 (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 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zone) 설정 등		

출처: http://www.unesco.or.kr/heritage/wh/reg_criterion.asp(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인용 저자 재작성

즉,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세계유산으로 그 가치를 입증 받고 등재를 위해서는 한 국가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그러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10가지의 가치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준에 있어 (i)에서 (vi)까지는 문화유산, (vii)에서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되는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 이외에 문화유산은 재질 및 기법 등에 있어 그 유산이 진정성 (authenticity)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문화·자연유산 모두 그러한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제반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적인 국가의 관리 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절차는 그림 6 및 표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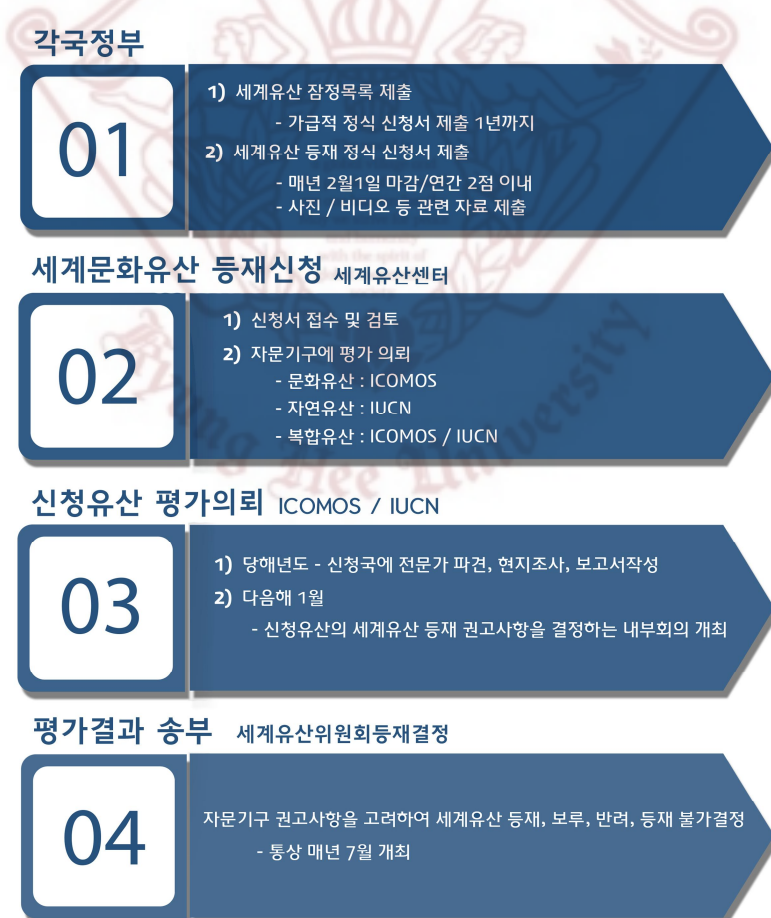


그림 6. 세계유산 주요 등재절차

[표 21] 세계유산 등재 절차

절 차		내 용														
① ↓ ② ↓ ③ ↓ ④	잠정목록 등재	- 잠정목록에 미등재 되어있는 유산은 세계유산 신청 불가 - 특별한 심사 절차 없음. - 잠정목록은 당사국이 앞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유산의 예비 목록성격 보유. 수시로 갱신 가능.														
	본 신청서 제출	- 예비신청서 접수 : 매년 9월 30일 -최종 신청서 제출 전 미비사항 검토, 보완 기회 제공 - 본 신청서 접수 : 매년 2월 1일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2월 1일을 넘겨 접수되는 신청서는 차기 연도로 이월됨. -2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계유산센터가 자문기구에 현지실사 의뢰														
	자문기구의 현지실사 및 평가	- 문화유산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 자연유산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복합유산 : ICOMOS, IUCN 공동 조사 - 현지조사 실시 : 통상 당해 연도 하반기에 자문기구의 전문가가 신청국을 방문, 유산의 보존 현황 및 가치 현지 조사 - 평가의견 제출 : 자문 기구는 현지조사결과 및 서류 검토 등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권고의견 제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 회의개최시기 :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 -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및 신규 세계유산 최종 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결정사항</th><th>내용</th><th>비교</th></tr> </thead> <tbody> <tr> <td>등재</td><td>세계유산 등재</td><td>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스라엘-아랍 간 유산 등)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td></tr> <tr> <td>보류</td><td>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 해 2월 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 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td><td>자료 보완 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 능성 높음.</td></tr> <tr> <td>반려</td><td>등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td><td>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td></tr> <tr> <td>등재불가</td><td>등재 불가</td><td>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td></tr> </tbody> </table>	결정사항	내용	비교	등재	세계유산 등재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스라엘-아랍 간 유산 등)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보류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 해 2월 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 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자료 보완 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 능성 높음.	반려	등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등재불가	등재 불가
결정사항	내용	비교														
등재	세계유산 등재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스라엘-아랍 간 유산 등)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보류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 해 2월 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 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자료 보완 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 능성 높음.														
반려	등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등재불가	등재 불가	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														

출처: http://www.unesco.or.kr/heritage/wh/reg_process.asp0 이용 저자 재작성

각국은 직접 등재 유산에 대해 가치가 있는 자원이나 문화재를 먼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리고 난후 정식 등재 신청을 하면 된다. 등재 신청은 세계유산 센터에서 진행되며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친 후 정식으로 평가가 의뢰된다. 등재가 가능한 유산이라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결정한 후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유산위원회는 통상 매년 7월에 개최한다. ICUN 심사절차는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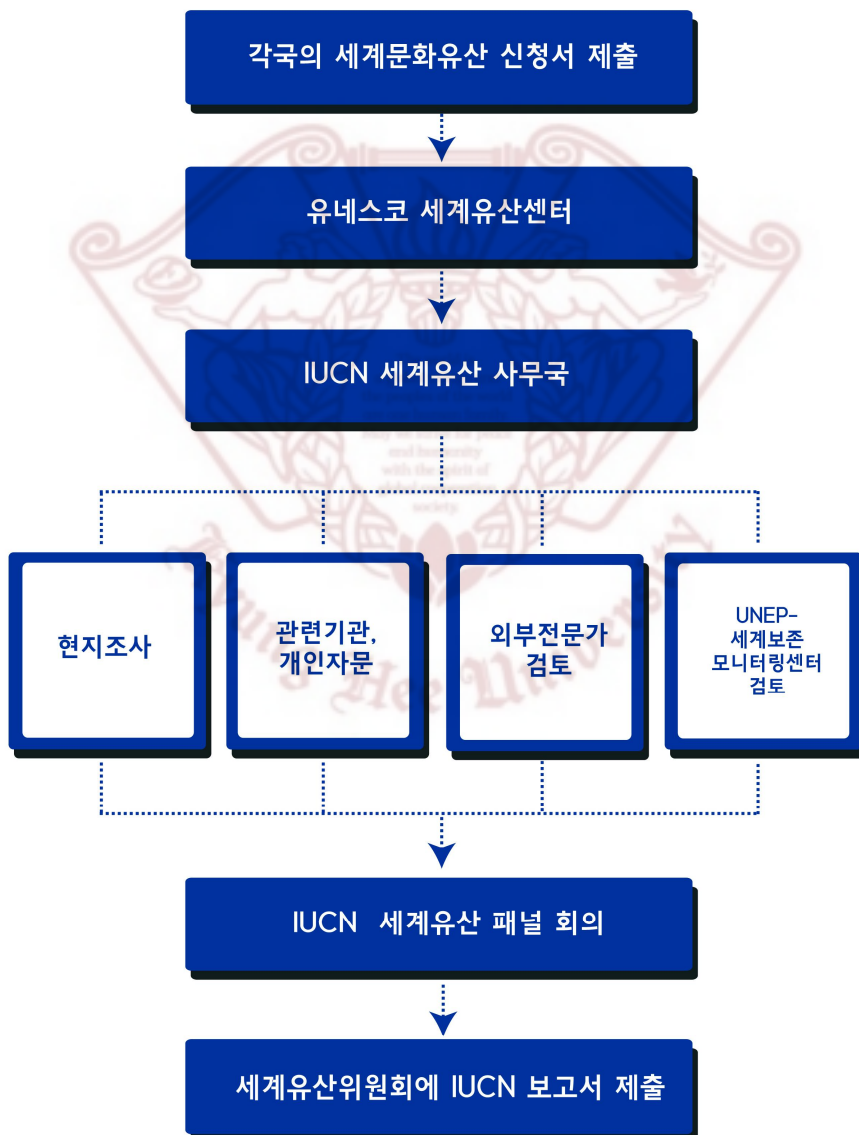


그림 7. ICUN 심사절차

ICOMOS 심사결과는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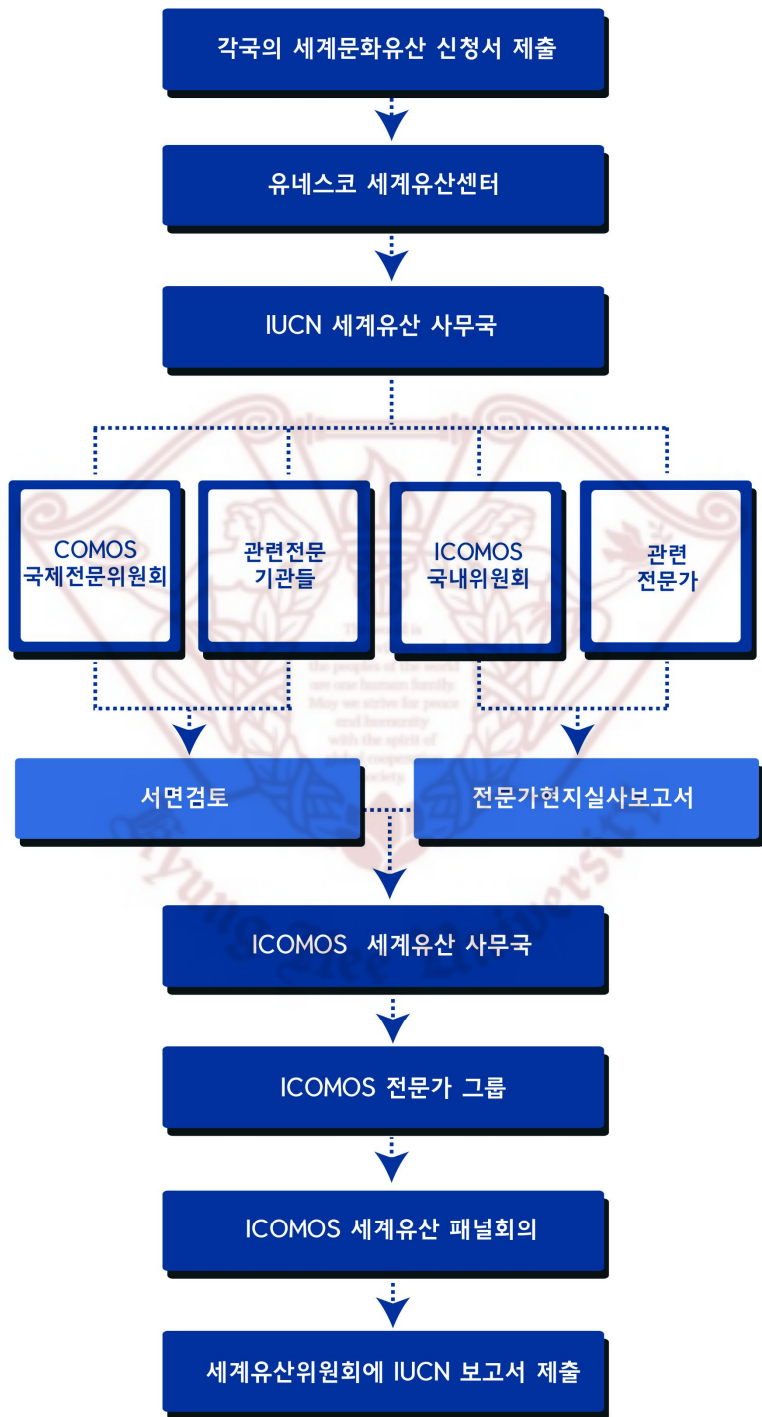


그림 8. ICOMOS 심사결과

국제자연보호연합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이 자연유산등재를 위한 심사절차를 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IUCN은 특정 대자연물이나 일정지역의 자연경관을 관리·보호하기 위해 각 국정부 및 기관단체에 의하여 1948년에 설립된 국제조직이다. 즉, 세계의 자연보호와 자원 보호를 위해 설립된 세계의 최대 규모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구이다.

그리고 그림 7과 그림 8은 ICUN와 ICOMOS의 심사결과 과정을 도식화 한 것으로 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해 평가하는 기구로써 비슷한 과정을 거쳐 세계 유산을 지정하고 등재하는 역할을 하며, 현지조사와 서면검토, 패널 회의 등 장기간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그림 8은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문화유산 심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제주 돌문화경관에 대한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에 관한 우선순위와 경관적 특성, 그리고 자원의 우선순위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발담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도출하고 효율적인 경관 보전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써 그 대상은 제주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향토자원인 돌 관련 경관 자원과 그 자원의 대표성을 가지는 발담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제주의 향토자원 중 자연자원을 제외한 인간과 인류의 흔적을 간직한 문화적 자원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였다. 돌 자원 선정에 있어 제주 고문헌과 제주도에서 소개한 관광자원, 각종 메스컴과 연구 논문을 통해 1차적으로 돌 자원을 추출하였으며, 그러한 다양한 자원들 가운데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자원의 조사가 가능하고 형태적 식별이 뚜렷한 자원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26개 자원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대상 자원의 대하여 자원의 용도에 맞게 주거, 농·축산 산업, 어업, 종교·신앙, 군사방어의 기능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표 22는 연구 대상인 제주 돌 자원을 유형별로 정리 한 것이다.

[표 22] 연구대상 돌문화자원의 분류

구분	연구대상 돌경관 자원				
	주거(8)	농·축산업(3)	어업(5)	종교·신앙(7)	군사·방어(3)
자원의 종류	정주석 축담 울담 통싯담 올렛담 용천대 봉천수 듬돌	발담 우영담 갯성	불턱 인공포구 도대불 원담 소금빌레	산담 고인돌 방사담 본향당 돌하르방 미륵불 동자석	연대 진·현성 환해장성

각 돌담의 개념에 있어 주거관련 담 중 축담은 초가집의 외벽으로 단순한 돌담이 아니라 초가가 강한 바람에 견디도록 한 돌담이고 울담은 집의 울타리 돌담을 말하며 방풍역할과 집의 경계선의 역할, 외부의 가축이 집 내부로 못 들어오도록 막는 역할 등을 하는 돌담이다.¹⁷⁾ 올렛담은 큰길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의 돌담이며 우영담은 택지 옆에 붙어있는 텃밭의 돌담, 통싯담은 돼지우리를 둘러놓은 돌담이다. 즉 돌담이 쌓인 장소나 위치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¹⁸⁾

제주 돌문화경관 자원은 제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활용·보존되고 있다.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6가지 유형 26개의 돌문화자원의 대표적 이미지는 아래 표23과 같으며 각 자원 당 2장의 대표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표 23] 연구 대상 돌문화자원

주거 (8)	정주석		
	축담		
	울담		

17) 이성우 외1, 「제주도 해안마을 울담의 높이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v.47 no.3, p.391, 2012.

18) 네이버 지식백과, 「제주의 울타리 돌담: [濟州의 울타리 돌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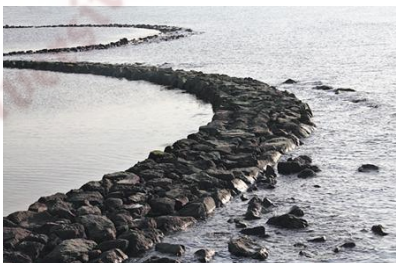
[표 23] 계속

주거 (8)	통식담		
	올랫담		
	용천대		
	봉천수		
	듬돌		

[표 23] 계속

농·축 산업 (3)	밭담		
	우영담		
	갯성 (갯담)		

[표 23] 계속

어업 (5)	불턱		
	인공 포구		
	도대불 (등명대)		
	원담 (갯담)		
	소금 빌레		

[표 23] 계속

종교· 신앙 (7)	산담		
	고인돌		
	방사탑 (돌탑)		
	본향당 (산당)		
	돌하 르방		

계속

종교· 신앙 (7)	미륵불	 
	동자석	 

[표 23] 계속

군사·방어 (3)	연대		
	진·현성 (육지)		
	환해 장성 (해안)		
계	26개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구성

1)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 1장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현상 등에 기초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제 2장에서는 문화경관, 세계유산 등에 관한 각 요소들의 개념과 유형, 등재체계 및 주요기구, 등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범위, 그리고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한다.

먼저 발담의 문화경관적 가치평가와 제주 돌문화자원의 선호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기준 도출이 필요하다. 이에 발담 및 제주 돌문화자원과의 관련성이 깊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을 추출하여 평가기준으로 선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심미적 특성인 돌문화자원의 선호도와 시각적 경관 이미지를 평가하고,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에 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돌문화자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돌문화자원인 제주 발담의 문화경관적 가치와 발담의 보전 방안에 대하여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제주 돌문화경관의 특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주돌문화경관의 심미적 특성과 우선순위, 법제화를 고찰하였다. 즉, 연구 대상인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한 현황 및 유형, 인식, 선호 정도 및 이미지 분석, 돌문화자원의 중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에서 제주 대표자원으로 도출된 제주 발담문화경관 관리를 위한 법제화 고찰 등을 분석·평가한다.

제 5장에서는 중요 우선순위 평가에서 대표 자원으로 도출된 제주 발담을 중심으로 문화경관적 가치를 평가하고 문화경관 보전 방안에 관해 기술한다.

마지막 제 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진행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앞으로의 제주 돌문화경관의 보전 및 발담의 경관 관리 등에 관한 제언, 그리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관해 기술한다.

2) 연구 진행 과정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크게 연구의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기본으로 돌문화자원의 특성 분석과 대표 자원인 발담의 문화경관적 가치에 관해 평가하고 제주 경관보전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래 그림 9는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 대한 개념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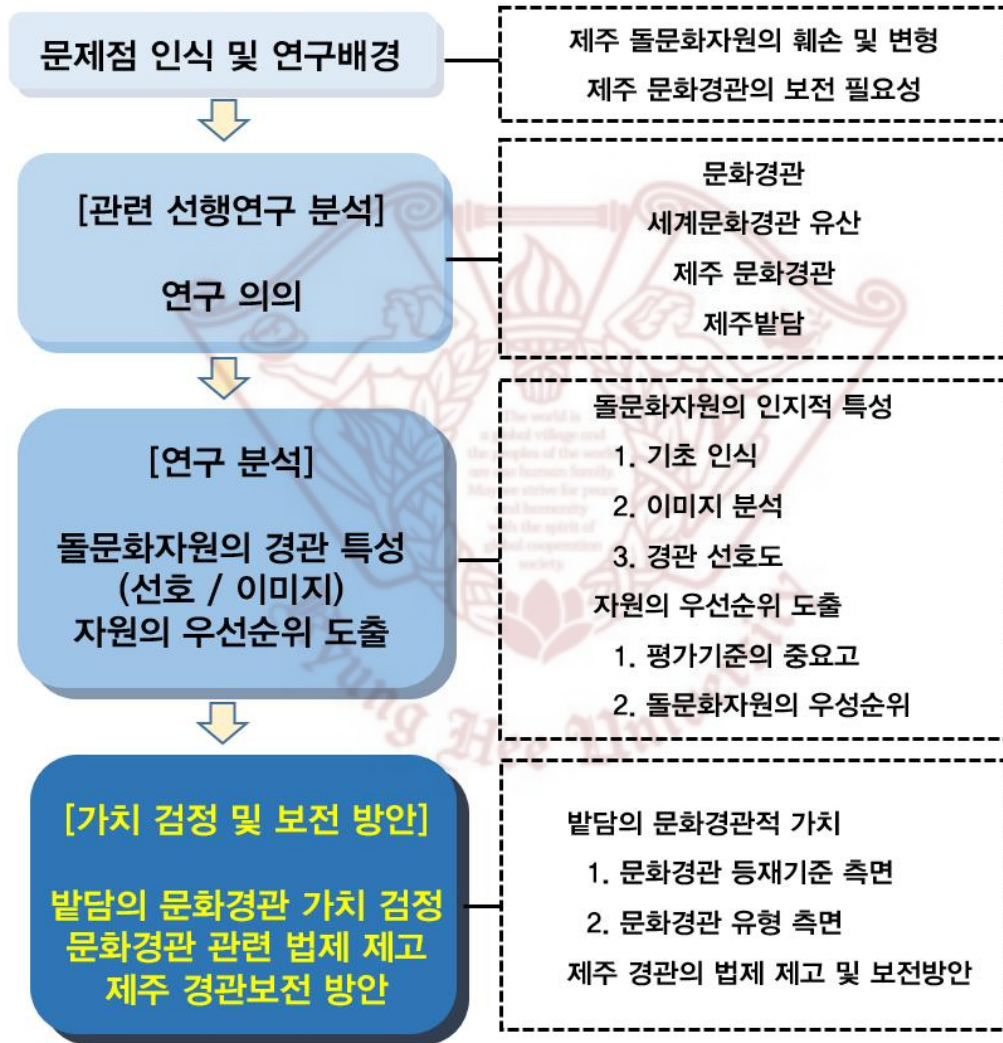


그림 9. 연구흐름에 대한 개념도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관한 고문헌과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통해 제주지역과 돌문화자원의 특성, 세계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유산 관련 정책과 그리고 운영기관 등에 관한 문헌조사와 더불어 2016년 04월 08~10일, 29~30일, 5월 6~8일, 27~28일, 6월 10~12일, 24~25일, 7월 08~10일, 29~31일, 8월 13~15일, 27~29일, 9월 04~05일, 20~22일의 총 12차례에 걸쳐 각 자원의 소재 및 현황에 대하여 사진촬영과 특성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주 발담과 돌문화자원의 선호 및 이미지 특성, 돌문화자원의 우선순위 도출 등을 위한 경관자원에 대한 평가기준 추출과 돌문화자원의 심미적 특성 평가, 제주 돌문화경관의 대표적 자원 도출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 등을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도출된 제주 발담에 대해 문화경관에 측면에서 그 가치를 검토하고 제주의 경관 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진 촬영은 되도록 날씨가 맑은 날 10시~16시 사이에 자원의 이미지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각도에서 Nikon D750 DSLR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제주도는 현재 많은 관광객들로 방문객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인 중 특히 중국 관광객이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면에 제주의 환경적 측면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무질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관자원의 세계적 가치에 관한 연구로서 “세계적 가치”라는 연구 궁극적 목적상 “보편적 가치” 측면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설문조사에 있어 국내·외의 제주 방문객의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의 경우 그 표본을 제주를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중국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 특히 문화경관유산을 현재 유네스코에 활발히 등재·관리하고 있어 표본의 선정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24] 조사 설계 및 통계적 분석

연구대상	분석	분석 방법
제주돌문화경관 자원 26개	I. 제주 돌자원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AHP
	II. 돌문화자원의 시각적 선호도	SPSS
	III. 이미지평가	
	IV. 기초적 인식	
	V. 응답자 속성	
		기술통계 기술통계 기술통계 빈도분석

1) 돌문화자원 관련 평가기준 추출

제주 돌문화경관의 특성 및 제주 발달의 가치 평가를 위한 분석 도구 중 하나로써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중 제주 돌문화경관(발담)과 관련 깊은 등재기준을 추출하여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평가기준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자와 조경학 및 관련 박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 6명에게 문화유산 관련 등재기준 개념과 절차를 먼저 이해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등재기준 (iii), (v)를 추출하였다.

2) 돌문화자원의 인지적 특성 평가

제주 돌문화자원 특성을 검토하고자 돌문화자원에 대하여 기초적 인식조사와 더불어 각 자원의 총체적 선호도와 각 평가 기준별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돌문화자원의 이미지 특성 평가를 위하여 16개의 경관 형용사¹⁹⁾를 중심으로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한 이미지 평가를 실시하였다.

선호도 및 이미지 평가는 제주 돌문화자원을 대표하는 26종류의 자원에 대해 각 자원 당 2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은 IBM SPSS Statistics ver.2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로 전체적인 응답경향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전체 항목의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제주돌문화경관을 형성하는 돌문화자원에 대한 이미지와 시각적인 선호도, 그리고 응답자 속성과 제주돌문화자원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조사에 관한 통계분석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제주 돌문화경관의 특성을 보여주는 형용사 항목 간 소수의 공통 요인으로 군집화하여 경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신뢰도 검정을 통하여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통해 제주 경관에 대한 한국과 중국인의 선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①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돌문화자원의 시각적 선호도 평가를 위한 문항으로써 총체적 선호도에 관한 26문항과 평가기준 별 선호도에 관해 각 7점 리커트 척도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9) 조화로운, 매력적인, 넓은, 아늑한, 쾌적한, 푸르른, 친근한, 자연적인, 시원한, 자연스러운, 정돈된, 편안함, 다정한, 안락한, 아름다운, 안정감있는

돌문화자원의 이미지특성 평가를 위해 각 자원별로 해당 자원을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명목척도 1문항, 그리고 그 자원의 이미지평가를 위한 형용사 느낌 정도에 관한 7점 어의구별 (Semantic differential scale) 16문항, 즉 26개의 돌자원 별 각 17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돌문화자원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AHP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자원의 평가기준(제주 돌문화자원과 관련성이 있는 UNESCO 문화유산 등재기준 4개)에 대한 9점 척도의 쌍대비교 6문항, 제주 돌자원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기준 별 각 26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작성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명목척도 5문항과 서열척도 7문항으로 구성된 돌문화 경관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에 관한 질문 12문항, 마지막으로 명목척도로 구성된 응답자 속성에 관한 질문 6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② 설문 방법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 연구자가 현장조사 시 촬영한 26종류의 다양한 제주 돌문화자원을 종류별로 가장 대표성을 띄는 2장을 예비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빔프로젝트(210*180)를 이용하여 JPEG 파일로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충분한 시간 동안 각 자원에 대해 설명한 후에 설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원의 종류가 많아 설문 문항이 방대해짐에 따라 피험자의 집중도 저하 방지와 정확한 설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설문 시간을 20분씩 4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그 사이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③ 피험자 선정

본 연구의 피험자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 선정 이유는 우선 설문의 소요시간(약 1시간 50분)과 설문방식(빔 프로젝트에 의한 부연설명 후 설문 작성)을 고려하여 설문의 지루함으로 인한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고 비교적 이해가 빠르고 설문에 용이한 집단이라 사료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최근 중국인들의 제주도 관광이 급격히 증가²⁰⁾하였으며 제주를 찾는 최대 외국인이며, 중국인의 제주 토지 매입 등 활발한 경제 활동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 측면을 만족시키기 위해 외국인 표본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자국에서의 문화경관유산 등재를 활발히 진행 중인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중국인을 외국인의 대표 피험자로 선택하였다.

피험자에 있어 한국의 경우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이며, 중국의 경우 광저우의 광동공업대학 건축도시계획학원(College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Guang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广东工业大学)생과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 방문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④ 돌문화경관 이미지 평가를 위한 대표형용사 선정 과정

제주 돌문화자원의 문화경관을 연구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 리스트[표 25]를 중심으로 농촌경관과 관련한 문헌고찰을 통해 제주 돌문화자원의 경관 관련 형용사를 종합적으로 추출하였고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경관 형용사를 추가로 추출하였다.

중복 의미의 형용사와 본 연구 대상지와 전혀 무관한 형용사를 제외시켰으며 이러한 형용사 중 가장 많은 반복성을 보인 형용사를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농촌경관형용사를 2차적으로 추출하여 이 목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농촌경관형용사 목록을 최종 작성하였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형용사 어휘의 항목은 응답자의 최대한 혼란을 줄이고자 영문은 제외하였고, 7점 어의구별 (Semantic differential scale)에 의하여 각각의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하여 그 이미지를 평가토록 하였다. 그리고 16개의 형용사 중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보이는 형용사는 서로 떨어지게 배치하여 설문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 출처 : 제주도 관광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단위 : 천 명, %)

연도	총 계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2005	5,020	4,642	92.5	379	7.5
2013	10,851	8,517	78.5	2,334	21.5
2015	13,664	11,040	80.8	2,624	19.2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2-8861), 한국관광공사(☎033-738-3000)(단위 : 명, %)

	계	일본	미국	중국	홍콩	대만	기타
2014	3,328,316	96,519	19,812	2,859,092	28,405	32,189	292,299
전국 2014	13,908,927	2,280,434	770,305	6,126,865	558,380	643,683	3,529,260
제주도 점유율	23.9	4.2	2.6	46.7	5.1	5.0	8.3

[표 25] 농촌 경관형용사 목록 도출을 위한 분석 연구 리스트

연구자	내 용				
반영운 21) 외3 (2012)	분석 선행연구	이배연(2005), 이영경(2004), 주신하(2003), 서주환(2002) 서주환(1998), 김충식(1998), 주신하(1998), 심준영(1995) Ray Green(1996), 유진옥(1995), Feimer(1979)			
	형용사 도출	쾌적한, 맑은, 평온한, 여유로운, 평화로운, 조용한, 푸르른, 신 선한, 쉼 수 있는, 보기좋은, 편안한, 한가로운, 자연스러운, 아 늑한, 포근한, 아름다운, 좋은, 친근한, 다정한, 활기있는, 풍취 있는, 밝은, 정돈된, 안락한, 넓은, 단아한, 자연적인, 청량한, 매 력적인, 열린, 다양한, 안정감있는, 조화로운, 정감있는, 고요한, 특유한, 특색있는, 어울리는, 적막한, 평범한, 단조로운, 시원한			
		공간 유형	산림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수공간	맑은, 시원한	
			역사문화지역	특색있는, 어울리는	
			시가화지역	보기좋은, 조화로운	
			주거지	조화로운, 정감있는	
			경작지	자연스러운, 정돈된	
류지선 22) (2012)	분석 선행연구	농촌경관_자유연상기법			
	형용사 도출	공간 유형	자연경관	시원한, 개방적인	
			상업·생산경관	재미있는, 세련된	
			주거경관	정돈된, 통일된	
			역사문화경관	자연적인, 정감있는	
승지현 23) (2010)	분석 선행연구	Feimer(1979)2.일반적인 경관평가에 사용되는 형용사 목록 기존 농촌경관 평가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형용사 '농촌어메니티 100선'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어진 평가체계			
	형용사 도출	시원한, 넓은, 상쾌한, 한적한, 독특한, 안락한, 아늑한, 편안 한, 푸르른, 친근한, 다정한, 깔끔한, 매력적인, 조화로운, 균형 적인, 인상적인, 따뜻한, 자연적인			
유남훈 24) 외4 (2009)	분석 선행연구	농림부·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2007)			
	형용사 도출	공간 유형	산림	보기좋은, 평안한	
			수공간	산뜻한, 상쾌한, 쾌적한	
			역사문화	조화로운, 특색있는, 매력적인	
			시가화	아늑한, 자연스러운	
			주거지	조화로운, 깔끔한	
경작지	개방된, 푸르른, 아늑한				
김유미 외4 ²⁵⁾	분석 선행연구	농촌경관과 관련된 문헌고찰. 농어촌연구원(2007)			
	형용사 도출	공간 유형	산림	평안한, 풍취있는, 넓은	
수공간	정취있는, 쾌적한, 풍부한, 상쾌한				

			역사 문화	안정감있는, 매력적인, 특색있는, 열린
			시가화	안정감있는, 자연스러운
			주거지	풍취있는, 단아한, 정돈된, 보기좋은
			경작지	아름다운, 푸르른, 아늑한
농림부. 한국농어 촌공사 농어촌 연구원 26) (2007)	분석 선행연구	Michael Roth, Lorenzo Gracia, Julio Hernandez, Francisco Ayuga(2006), 이영경(2004), 주신하(2003), 서주환(2002), 서주환(1998), 김충식(1998), 주신하(1998), 심 준 영 (1997), Ray Green(1996), 윤진옥(1995), Feimer(1979)		
	형용사 도출	아름다운, 안락한, 맑은, 활기있는, 평화로운, 보기좋은, 한가로 운, 열린, 특유한, 평온한, 좋은, 여유스러운, 풍취있는, 특색있 는, 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용한, 밝은, 어울리는, 아늑한, 조 화로운, 적막한, 쾌적한, 평범한, 포근한, 정감있는, 고요한, 다양 한, 단조로운, 신선한, 친근한, 넓은, 정돈된, 시원한, 단아한, 다 정한, 푸르른, 자연적인, 안정감있는, 매력적인, 편안한, 청량한 이영경(2004), 주신하(2003), 서주환(2002), 서주환(1998), 김충식 (1998), 주신하(1998), 심준영(1995), 윤진옥(1995), Feimer(1979)		
이배연 27) (2005)	분석 선행연구	정감있는, 다정한, 친근한, 안락한, 자연스 러운, 편안한, 조화로운, 매력적인, 따듯 한, 균형적인, 아늑한, 차분한, 안정감있는		
	형용사 도출	요인 분석	친근성	정감있는, 다정한, 친근한, 안락한, 자연스 러운, 편안한, 조화로운, 매력적인, 따듯 한, 균형적인, 아늑한, 차분한, 안정감있는
			개방성	시원한, 넓은, 개방된, 한적한
			정연성	정돈된, 규칙적인, 깔끔한, 정연한
			다양성	복잡한, 독특한, 다양한, 신비감 있는
주신하 28) 외1 (2003)	분석 선행연구	국외: Feimer(1979), 미국토지관리국, 영국 환경평가학회 및 조경학회 공동 작성 경관현장조사 목록 국내: 조경학회에 게재된 36편의 논문		
	형용사 도출	국외		complex, rough, simple, smooth, uniform, active, angular, beautiful, boring, colorful, comfortable, contrasting, dense, flat, flowing, gentle, hard, high, large, narrow, open, peaceful, pleasant, rolling, small, soft, steep, straight, tall, wide
				복잡한, 아름다운, 밝은, 자연적인, 조화로운, 친근한, 안정적인, 평범한, 개방적인, 깨끗한, 단순한, 정적인, 단조로운, 동적인, 좋아하는, 따뜻한, 신비로운, 인공적 인, 쾌적한, 낮은, 넓은, 느껴지는, 어두운, 추한, 폐쇄 적인, 풍부한, 답답한, 독특한, 보이는, 색채감 있는, 연속적인, 인상적인, 차다운, 화려한, 변화있는, 부드러 운, 불쾌한, 빈약한, 조용한, 좁은, 특이한, 흥미로운
		요인		종합평가성, 복잡성, 정연성, 신비성, 친근성, 공간규모 성, 심미성, 역량성, 가독성, 응집성, 자연성, 통일성

본 연구의 이미지 특성 평가를 위한 형용사 도출 과정을 정리한 개념도는 아래 그림 10과 같으며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16개의 제주 돌문화자원의 이미지 평가 관련 형용사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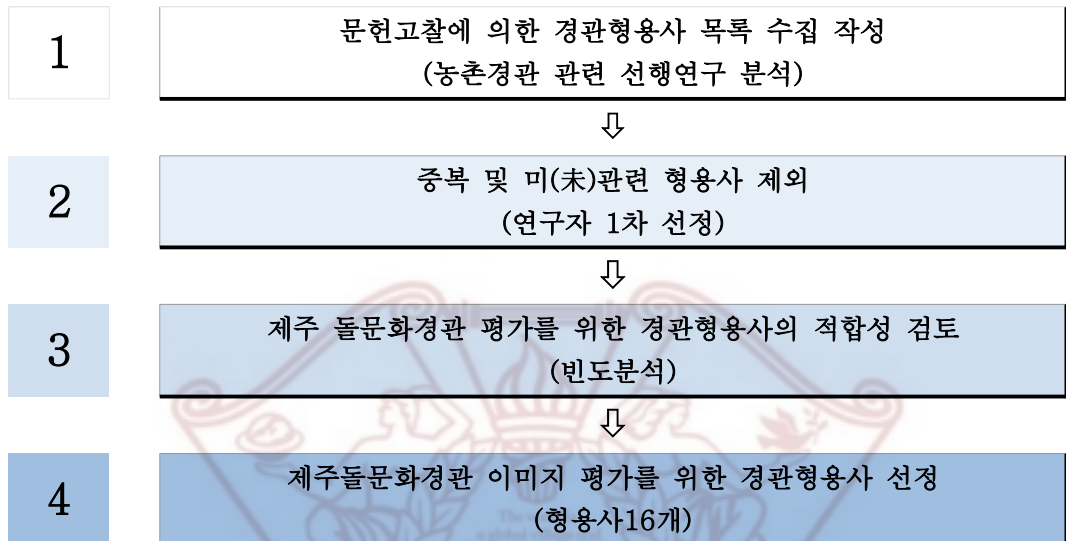


그림 10. 이미지 형용사 도출 과정

- 21) 반영운 외3, 「경관영역 및 공간유형별 대표 경관형용사 선정」,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2. 15(2) pp95-101.
- 22) 류지선, 「도시와 농촌의 경관평가를 위한 어휘 추출 및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3) 송지현, 「농업생산경관의 시각적 평가모형 개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24) 유남훈 외4, 「요인분석을 통한 주민참여형 농촌경관 대표형용사 선정」,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 pp.153-155.
- 25) 김유미 외4, 「농촌경관평가를 위한 주민참여형 경관형용사 선정」,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pp.645-653.
- 26)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촌경관평가지표, 농촌경관맵 및 경관보전협약의 현장 적용성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원, 2007
- 27) 이배연, 「농촌경관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8) 주신하 외1, 「도시경관분석을 위한 경관형용사 목록 작성」, 한국조경학회지, 2003. 31(1) pp.1-10.

본 연구의 경관형용사 16개에 대한 형용사별로 반대의 형용사를 이용하여 설문에서 사용하게 될 어의구별척도를 작성하였으며, 반대어 형용사는 그 의미가 왜곡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하였으며, 실제 설문에 사용한 이미지 평가의 어의구별척에 대한 형용사는 표 26과 같다.

[표 26] 이미지 평가를 위한 형용사 어의구별척도

No.	형용사 이미지	< 시각적 이미지 평가 >		형용사 이미지
		← □□	0 □□ →	
(1)	조화로운	-----		부조화적인
(2)	매력적인	-----		매력 없는
(3)	넓은	-----		좁은
(4)	아늑한	-----		황량한
(5)	쾌적한	-----		불쾌한
(6)	푸르른	-----		푸르르지않은
(7)	친근한	-----		낯선
(8)	자연적인	-----		인공적인
(9)	시원한	-----		답답한
(10)	자연스러운	-----		부자연스러운
(11)	정돈된	-----		어수선했
(12)	편안한	-----		불편한
(13)	다정한	-----		삭막한
(14)	안락한	-----		불안한
(15)	아름다운	-----		추한
(16)	안정감있는	-----		안정감없는

3) 돌문화자원의 우선순위 평가

본 연구의 평가 기준인 UNESCO 세계유산 등재기준에서 세계문화유산과 관련한 탁월한 보편적가치의 6개(i ~ vi) 등재기준 중 제주 돌문화자원(발담)과의 관련성을 가진 등재기준(iii)²⁹⁾과(v)³⁰⁾, 진정성, 그리고 공통적 적용기준인 완전성을 중심으로 분석적 계층화 과정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였다.

각 평가기준의 쌍대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각 기준별로 절대비교를 통해 26개의 제주돌문화자원³¹⁾에 대하여 각 기준별 자원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평가체계의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최종 목표를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로 설정하였고, 대안으로 주거, 농촌산업, 어업, 종교·신앙, 군사방어 관련 자원을 제시하였으며, 그 대안에 대한 평가기준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가치(iii), 탁월한 보편적가치(v), 진정성, 완전성 4가지로 선정하였다.

AHP는 전문가집단 조사로서 설문지의 표본은 조경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전공 등의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내 전문가 15명과 중국 전문가 12명 총 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 발담의 문화경관적 가치

돌문화경관의 특성과 우선순위 평가에 의해 도출된 제주의 대표 돌문화자원인 발담의 세계적 경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제주 발담의 현황, 조성목적과 기능, 물리적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화경관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가치의 세부 기준(iii), (v), 진정성과 완전성에 따라 그 가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문화경관유산적 가치인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유네스코가 규정한 문화경관의 유형 3가지 중 발담의 등재 가능 기준(iii), (v)와 관련성이 깊은 경관 유형인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Organically evolving landscape)의 지속경관(Continuous)과 분명히 규정된 경관(Designed landscape)을 중심으로 돌감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29)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30)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31) 정주석, 축담, 울담, 통릿담, 올렛담, 용천대, 봉천수, 듬돌, 발담, 우영담, 잣성(잣담), 불턱, 인공포구, 도대불(등명대), 원담(갯담), 소금빌레, 산담, 고인돌, 방사담, 본향당(산당), 돌하르방, 미륵불, 동자석, 연대, 진·현성(육지), 환해장성(해안)

5) 문화경관 관리를 위한 법제 제고

제주 돌문화경관의 보전과 발달의 관리를 위해 경관 관련 법제를 고찰하였다. 법제의 고찰에는 문화경관 관련 법체계의 현황을 종합정리 한 후 국제기구의 법체계와 국내 법체계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제주의 돌문화경관과 발달 보전을 위한 법적 체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기구의 법체계로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과 유럽회의의 [유럽경관협약]을 고찰하였으며, 국내 법체계는 [경관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분석하여 제주 돌문화경관 보전을 위한 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돌문화자원의 현황

제주 돌문화자원은 제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분포현황에 대해서는 각종 문헌과 매스컴, 그리고 제주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연구자가 직접 정리하였다. 본 분포 현황을 중심으로 가장 자원의 이미지가 뚜렷하고 현재에도 이용이 원활하며 곳을 대표 이미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자원의 주소지별 이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으며, 제주 돌문화자원의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소재지는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제주 돌문화자원의 분포 현황

자원 구분		현황(주소)
주 거	정주석	전역 분포
	축담	전역 분포
	울담	전역 분포
	통짓담	전역 분포
	올렛담	전역 분포
	용천대	제주시 도두동 / 올레17코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중엄리 새물’ 서귀포시 하예동 580 (논짓물 해수욕장카페 앞) 서귀포시 서홍동 ‘숨반천’ 서귀포시 동홍동 ‘산짓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산114번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284-4번지 제주시 조천읍 신촌북3길 4-5(신촌리 2263번지)의 서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513-2번지. 1493-1
	봉천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꽃바구리물, 흘왓, 군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측화산 또는 산세미오름’ 제주시 조천읍 와흘4길 10 ‘와흘마을’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여뀌못’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98번지. 청수꽃자왓 입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23-2번지 옆 천미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7번지

농 축 산 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1리 353-3번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높은오름과 동거문이 사이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용흥리) 1911-1, 1878-3, 1879-5번지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 1811-1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215번지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536-1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700-1번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길리 442-1번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원물오름 남쪽 안덕면 충혼묘지 서쪽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2937번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상동 마을 가운데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중동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309번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2138번지
	듬돌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휴애리자연생활공원 제주시 일도2동 신산공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밭담	전역 분포
	우영담	전역 분포
어 업	жат성	한라산 중턱 해발200m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불턱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51-3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627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대낭굴 불턱'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리 일주도로 '우물안개구리'식당 옆길 → 포구, 신평리해녀 탈의장 200m 지점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고지불턱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평대리 515-2번지 바닷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서쪽 해안도로 형원수산 북쪽 환해장성 옆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68-4번지. 신동마을 바닷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2리 바닷가 주어코지 해녀탈의장 가는 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3리 산이수동 → 상모해녀의 집 → 바닷가 방향 서쪽 약 300m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리 일주도로 '우물안개구리'식당 옆길 → 포구, 신평리해녀 탈의장 200m 지점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서쪽 해안도로 형원수산 북쪽 환해장성 옆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한개창 포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3리 바닷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 바닷가 제주시 삼양1 동 서귀포시 하효동 151번지 일대 바닷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사이에 있는 포구 제주시 화북1동 1469번지의 북쪽 바닷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156-4번지의 동쪽 바닷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4110-2번지의 동쪽. 귀덕2리 바닷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굴동 바닷가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서쪽 바닷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북쪽 바닷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 1 리 바닷가 제주시 평대리 바닷가 염난이코지 옆 포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해안도로변 속칭 '비릿질망애물' 북쪽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 ‘망장포 포구’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바닷가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북쪽 바닷가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하추자도 남쪽 해안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하류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마을 서쪽 바닷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3리 62의 1,6번지 바닷가 서귀포시 보목동 1351번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71-4번지 앞. 천미천 서쪽 바닷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78-14번지(해맞이해안로 2276) 동쪽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611번지 앞 바닷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565-10번지 앞 바닷가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리 17-2번지. 일주도로변 신평교차로에서 동쪽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200m 지점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352-7번지. 신천리 마을 전체에서 보면 남동쪽 바닷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956-3번지 앞 바닷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녕해수욕장 입구 서쪽 포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포구 동남쪽. 해안도로 남쪽
--	--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30-1번지 서쪽 바다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바닷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바닷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큰물동네 갯가. 수원1길23호 길 건너 바닷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바닷가 제주시 외도2동 1956-41번지 제주시 도두2동 도두봉에서 동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900m 지점 바닷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2리 30-2번지
도대불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제주시 한경면 고산1리 차구내 포구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영일동 포구 서귀포시 대포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605번지 두모포구 동북쪽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진질개 포구 오른쪽 서귀포시 송산동 보목마을 배개 포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포구 남쪽 치성 위
원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굴동 토끼섬 남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2-1번지의 길 건너 북쪽 바닷가 제주시 외도 2 동 조부연대의 서쪽 바닷가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소원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바닷가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바닷가 서귀포시 강정동 썩은섬에서 환해장성의 사이 바다 조간대 제주시 화북1동 4275-5번지 앞 바닷가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라신동 진작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88-12번지 서쪽 바닷가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장라동 앞 바닷가 진질코지 서쪽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망밭동네 바닷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322-1번지(싱계물공원)의 동쪽 길 옆 바닷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368번지의 북동쪽 바닷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37-4번지의 동남쪽. 돌코지성창 동쪽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61-1번지의 북쪽 중동 바닷가
소금빌레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대정서초등학교 앞쪽

종교신앙		제주시 용담3동 서해안로671 서쪽 공유수면 ‘말머리소금빌레’ 서귀포시 상예동 예래천 하류 서쪽 갯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포구 서남쪽 바닷가, 포구 동북쪽 바닷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돌코지원 남쪽
	산담	서귀포시 표선면 2385-1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수산초등학교 서북쪽 200여m 지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228번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서귀포시 상예동 3539번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698번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제주장례식장 남쪽 둘째 밭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519번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1번지 서귀포시 신희동 19-4번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83번지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272번지 제주시 오등동 1743 제주시 영평동 2596 제주시 해안동 35-43번지 제주시 회천동 1622번지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향사에서 남쪽으로 길을 따라 150m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1568-1번지. 남읍리사무소 부근 큰길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959번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103-1번지 고령밭(고량전) 서귀포시 서홍동 808-1번지 제주시 애월리 1093번지
	고인돌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동천진동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230번지의 서남쪽 경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안덕계곡 절벽 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27-1번지 과수원 안 북동쪽 서귀포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51번지 경작지 안 북동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74번지와 652번지 사이 경계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703의2번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돌문화공원 內

	제주시 일도2동 996(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입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35번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1618~1619번지 경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1619번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7번지 제주시 외도1동 29번지 제주시 도남동 616번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703-2번지 제주시 용담2동 제주국제공항 내 주차장 남쪽 소공원 제주시 도련2동 2252번지 제주시 한림읍 용포리 157번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 산 143번지 자배봉(망오름) 북동쪽 정상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874번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44번지와 1677번지 경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1리 해안 서림정수장 입구 남동쪽 공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신천마장'내 해안과 바로 인접된 평탄지 제주시 외도1동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68-1번지(동일하모로149번길21-8호)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1598번지 밭 가운데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95-1번지 서귀포시 색달동 1741-1번지 외 1필지 제주시 오라동 2191 제주시 용담2동 2624-1 제주시 삼양2동 2252번지(삼양초등학교 남쪽)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동천진동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서남쪽
방사탑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사라마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1-11번지, 125-3번지, 731-1번지 서귀포시 대포동 768-2번지. 설동산 일대. 대포교회 위쪽 제주시 한림읍 금악(今岳)리 1673번지와 1674번지 경계 돌담 제주시 회천동 1346번지 북쪽 끝 길가 제주시 이호2동 1호~5호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397-1번지의 동쪽 울타리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중동네 북쪽 150여m 지점 3거리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마을 중앙에서 바닷가 제주시 한림읍 용포리

	제주시 한경면 한원리 마을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마을 서쪽 용흥4길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해안도로변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영일동
본향당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274-1 제주시 삼양1동 1781-2번지. 삼양1동 포구의 동쪽 경작지 안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산2-3번지의 맨 남쪽 선흘1리 2661번지와 의 경계 제주시 오라2동 601-11 제주시 봉개동 1847 제주시 도남동 603번지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용흥리) 2208-3번지(용흥4길9)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215번지 남쪽 동산 위 제주시 용강동 720번지 동쪽 내 가운데 제주시 도평동 1323-2 제주시 이호동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842-7 제주시 도련1동 1528-2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중동 남쪽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영도빌라 북쪽 10m 지점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능향원 안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돌문화공원(제주시 아라동 목석원에서 이전)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박물관 입구 제주시 삼도동 관덕정 앞과 뒤 제주시 일도2동 996-1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마당 제주시 이도2동 1176-1. 시청로 28. 제주시청 내 제주시 용담2동 2002번지 제주국제공항 구내→삼도2동 목관아 구내 제주시 연동 KBS방송총국 정문
미륵불	제주시 장군내길 60-20 (제주시 도평동 1038-1번지) 제주시 만덕로 13-1 (건입동) 제주시 회천동 새미마을 화천사 뒤편
동자석	서귀포시 서홍동 125번지

군 사 방 어	연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4-5 (귀덕리) ‘귀덕 연대’ 서귀포시 대포동 해안 북쪽 구릉 ‘대포 연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605번지 ‘두모 연대’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80-1번지 ‘남두 연대’ 서귀포시 하예동 1729번지 ‘당포 연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649번지 ‘배령 연대’ 제주시 화북2동 1537번지 ‘별도 연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33-2번지 ‘산방 연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대수로27번길 53-1, 선 공유수면 (일과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332-6번지 ‘소마로 연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84번지 ‘왜포(고포) 연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2번지 ‘오소포 연대’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3977번지 ‘우지 연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51-2번지 ‘종달 연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980번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83-1번지 ‘좌가 연대’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267번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152-1번지 ‘함덕 연대’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261 (고성리) ‘협자 연대’
	진·현성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580번지 외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211, 2161, 2167, 2168번지 등 명월진성 남문의 동쪽과 서쪽 일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957-1번지 ‘정의현성’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410,1400-1번지와 1402,1400-2,1142번지의 경계. 고성동서로17번지 동쪽 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 안성, 인성리 일원
	환해장성	제주시 화북1동 1533-4번지 외 11필지 선 ‘별도환해장성’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93-3번지 외 1필지 선 ‘북촌환해장성’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2번지 외 ‘행원환해장성’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장성로 732, 외 6필지 선 (온평리) 제주시 화북1동 4373번지 외 4필지 선 ‘곤을동 환해장성’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687-5번지 외 2필지 선 ‘동북환해장성’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49-5선 ‘신산환해장성’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957-1번지 외 8필지 선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690번지 외 4필지 선 ‘한동환해장성’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2-13번지 일대 및 467-1번지 일대 해맞이해안로 130번지 일대 바닷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76-1번지 일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0-5번지, 106번지 일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2번지(세화리 포구 서쪽 방파제 남서쪽)
--	---



2. 돌문화자원의 인지적 특성 평가

일반적으로 경관 평가에 있어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카드분류법과 형용사 목록법, 리커트척도, 순위조사, 어의구별척도법, 쌍체비교법, SBE법 등이 있으며³²⁾ 본 연구에서는 제주 돌문화경관을 평가하기 위해 1차적으로 형용사목록법에 의해 형용사를 추출하고 이러한 추출 형용사의 쌍을 이용하여 어의구별척도법(SD법)에 의해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1) 기초 인식 조사

① 응답자 속성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약 80%가 여성이며 대부분 시가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국의 경우는 남성이 약 80%로 한국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한국		중국	
		빈도(N=88)	비율(%)	빈도(N=105)	비율(%)
성별	남성	18	20.5	82	78.1
	여성	70	79.5	23	21.9
거주지	시가지	66	75.0	101	96.2
	산업지역	9	10.2	4	3.8
	농·산촌	10	11.4	-	-
	어촌지역	3	3.4	-	-
합계		88	100	105	100
조사 시기		2016. 06			

② 기초의식 조사

기초 의식조사는 크게 방문 목적과 횟수, 방문요인, 제주 향토자원의 선택, 제주 돌자원의 시각적 특징, 돌경관에 대한 평소의 생각으로 구분하여 한국과 중국의 응답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29는 제주 돌문화경과자원에 대한 기초적 인식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32) 이지은, 「야간경관을 고려한 상업가로 계획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42.

[표 29] 기본 인식에 관한 특성

구분		한국		중국	
		빈도(N=88)	비율(%)	빈도(N=105)	비율(%)
방문 목적	여행	87	98.9	92	87.6
	업무	1	1.1	-	-
	쇼핑	-	-	11	10.5
	경유	-	-	2	1.9
방문 횟수	2년1이하	71	80.7	93	88.6
	1년1~2회	17	19.3	12	11.4
방문 요인	자연경관경치	70	79.5	23	21.9
	역사문화자원	3	3.4	8	7.6
	위락휴양시설	2	2.3	66	62.9
	소요시간	8	9.1	8	7.6
	독특성고유성	5	5.7	-	-
제주향토 자원	돌	51	58.0	73	69.5
	오름	9	10.2	4	3.8
	해안	22	25.0	18	17.1
무엇인가	한라산	6	6.8	-	-
	조가	-	-	10	9.5
제주 돌의 시각적 특징	연속된돌의전체성	3	3.4	7	6.7
	돌의자연성	61	69.3	85	81.0
	돌의인공성	10	11.4	-	-
	돌의형태색채	12	13.6	13	12.4
	돌규모밀도감	2	2.3	-	-
돌경관에 관한생각의 유무	자주생각	2	2.3	-	-
	1~2번	60	68.2	14	13.3
	생각해본적없음	17	19.3	91	86.7
	처음들어봄	9	10.2	-	-
합계		88	100	105	100
조사 시기		2016. 06			

먼저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 중국 모두 대부분의 응답자는 여행을 선택하였으며 방문횟수에 관한 질문에도 두 응답자 집단 모두 ‘2년에 1번 이하’를 선택하였다. 방문 요인은 한국의 경우 대부분 자연경관의 경치 때문에 제주를 방문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의 경우 위락휴양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자연경관으로 인해 방문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자연경관도 방문 요인에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위락휴양시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제주의 향토자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의 경우 돌을 과반 정도가 선택하고 다음으로 해안을 선택하였으며, 중국은 70% 정도가 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제주 돌의 시각적 특징에 대해 양국 모두 돌의 자연성을 가장 특징적이라 응답하였으며, 돌의 형태와 색채도 10% 정도가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소 돌경관에 관한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의 경우 1~2번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정도 이었으며, 중국의 경우는 86%가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 돌문화자원에 관한 기초인식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응답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 비슷한 응답을 하였으며 ‘제주 돌문화경관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와 ‘방문요인’에 대한 질문에만 서로 다른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하면 한중 응답자 모두 제주를 여행 목적으로 2년에 1회 이하로 방문하고 있으며, 제주의 향토자원을 돌이라고 생각하고 그 돌의 자연성이 가장 두드러진 시각적 특징이라고 응답하였다. 서로 다른 응답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각각 방문요인을 자연경관 경치와 위락휴양시설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돌경관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1~2번 생각한적 있다’와 ‘한 번도 생각한적 없다’고 말해 대조적인 결과를 얻었다.

③ 돌문화자원을 직접 본 경험 유무 분석

한국과 중국의 응답자 모두 제주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지어 모집단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자원을 실제로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경우 26개의 자원 중 14개의 자원은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12개의 자원은 본적이 없다고 말한 비율이 더 높았다.

중국의 경우는 26개 자원 중 4개 자원만을 직접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대부분 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중국 응답자가 직접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자원은 흔히 볼 수 있는 정주석과 발담, 돌하르방과 동자석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 동자석을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인데 반해 중국 응답자는 77%로 동자석은 중국 응답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용천대의 중국 응답자의 100%가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양국 모두 돌하르방과 정주석, 발담은 본적이 높은 비율로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래 표 29는 자원을 직접 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 대한 내용이다.

[표 30] 경관자원을 직접 본 경험 유무

자원 구분		한국			중국	
			빈도(N=88)	비율(%)	빈도(N=105)	비율(%)
주거	정주석	있 다	80	90.9	81	77.1
		없 다	8	9.1	24	22.9
	축담	있 다	75	85.2	14	13.3
		없 다	13	14.8	91	86.7
	울담	있 다	73	83.0	22	21.0
		없 다	15	17.0	79	75.2
	통싯담	있 다	33	37.5	18	17.1
		없 다	55	62.5	87	82.9
	올렛담	있 다	46	52.3	26	24.8
		없 다	42	47.7	79	75.2
	용천대	있 다	59	67.0	-	-
		없 다	25	28.4	105	100.0
농축 산업	발담	있 다	21	23.9	8	7.6
		없 다	67	76.1	97	92.4
	우영담	있 다	21	23.9	4	3.8
		없 다	67	76.1	101	96.2
	밭담	있 다	67	76.1	93	88.6
		없 다	21	23.9	12	11.4
	우영담	있 다	71	80.7	16	15.2
		없 다	17	19.3	89	84.8
	жат성	있 다	70	79.5	16	15.2
		없 다	18	20.5	89	84.8
어업	불턱	있 다	66	75.0	4	3.8
		없 다	22	25.0	101	96.2
	인공 포구	있 다	76	86.4	19	18.1
		없 다	12	13.6	86	81.9
	도대불	있 다	12	13.6	9	8.6
		없 다	76	86.4	96	91.4
	원담	있 다	10	11.4	9	8.6
		없 다	75	85.2	96	91.4
종교 신앙	소금 빌레	있 다	18	20.5	10	9.5
		없 다	70	79.5	95	90.5
	산담	있 다	56	63.6	12	11.4
		없 다	32	36.4	93	88.6
	고인돌	있 다	82	93.2	12	11.4
		없 다	6	6.8	93	88.6
방사탑	있 다	64	72.7	8	7.6	
	없 다	24	27.3	97	92.4	
	본향당	있 다	12	13.6	12	11.4
		없 다	76	86.4	93	88.6
돌	있 다	82	92.1	81	77.1	
	없 다					

	하르방	없 다	7	7.9	24	22.9
	미륵불	있 다	30	33.7	16	15.2
		없 다	55	61.8	89	84.8
	동자석	있 다	24	27.3	81	77.1
		없 다	58	65.9	24	22.9
	군사 방어	연대	있 다	15	17.0	16
없 다			70	79.5	89	84.8
진·현 성		있 다	15	17.0	12	11.4
		없 다	70	79.5	93	88.6
환해 장성		있 다	17	19.3	8	7.6
		없 다	71	80.7	97	92.4
계		88	100	105	100	



2) 이미지 분석

본 연구의 제주 돌문화자원 이미지 평가를 위한 어의구별척(semantic differential scale)은 인간, 장소, 환경, 상황 등에 대해 의미의 질이나 그 강도를 조사·분석하는데 쓰이는 방법으로 대상 경관을 사진을 통하여 보여주고 양극으로 표현되어있는 형용사의 쌍을 목록으로 제시하여 응답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피험자를 대상으로 제주 돌문화경관에 대한 이미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형용사 어의구별척도로 평가하였다. 설문조사는 강의실에서 빔프로젝트로 영사된 제주 돌문화자원의 슬라이드를 보고 자원에 관해 이해를 돕는 충분한 설명 후에 응답을 하도록 하여 설문의 신빙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형용사 어휘의 항목은 7점 어의구별 (Semantic differential scale)에 의하여 각각의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하여 그 이미지를 평가토록 하였으며 16개의 형용사 중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보이는 형용사는 서로 떨어지게 배치하여 설문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어의 구별척을 사용한 형용사는 “조화화로운, 매력적인, 넓은, 아늑한, 쾌적한, 푸르른, 친근한, 자연적인, 시원한, 자연스러운, 정돈된, 편안한, 다정한, 안락한, 아름다운, 안정감있는”으로 모두 16개이며, 각 자원별 대표 사진을 2장 선정하여 이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경관 자원은 ‘주거, 농·축산업, 어업, 종교·신앙, 군사·방어 관련’ 자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아래 표 31은 대상자원의 이미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31] 이미지 평가 사례 사진

	자원 이미지			
주거 (8)				
				
				
				
농·축 산업 (3)				
				
어업 (5)				
				
				

[표 31] 계속

종교·신앙 (7)	 	 	 	 
	 	 	 	
군사·방어 (3)	 	 	 	

① 돌문화자원의 이미지 요인분석

가. 요인분석

제주 돌문화자원의 이미지 평가를 위한 최종 선정된 형용사 항목 간의 상호 관계를 공통요인을 통하여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기 위한 것으로 형용사의 공통성을 가진 인자로 군집하여 용이한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 32] 제주돌문화경관의 이미지의 형용사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형용사 이미지	요인1	요인2	요인3	h ²
(1)	다정한	.800	.234	.072	.700
(2)	안정감있는	.772	-.035	.306	.691
(3)	안락한	.728	.384	.046	.679
(4)	정돈된	.693	.157	.343	.622
(5)	편안한	.677	.403	.216	.667
(6)	아름다운	.614	.295	.360	.593
(7)	자연스러운	.181	.825	.237	.770
(8)	자연적인	.115	.670	.399	.621
(9)	조화로운	.209	.655	.352	.596
(10)	아늑한	.433	.629	-.129	.600
(11)	푸르른	.279	.542	.488	.610
(12)	매력적인	.310	.518	.463	.579
(13)	넓은	.123	.046	.822	.693
(14)	시원한	.184	.341	.734	.688
(15)	쾌적한	.285	.345	.644	.615
(16)	친근한	.340	.386	.453	.470
고유값<E.V>		7.563	1.530	1.102	
설명 변량 <C.V(<V>)>		47.27%	9.56%	6.89%	
누적 변량 <T.V(<V>)>		47.267%	56.830%	63.715%	
요인명		안락성	자연성	쾌적성	

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2) 회전방식: 베리맥스

3) 요인추출 근거: 아이겐값(1.0)

요인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직각 회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고유 값(Eigen Value) 1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군집화 하였으며 그 결과 3개의 요인으로 군집화 하였다. 요인분석 매트릭스는 표 32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제주의 돌문화경관 이미지를 설명하는 변인은 ‘요인 1~ 3’까지 3개의 군으로 분석되었으며 보통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 다시 말해 분산 1 이상을 말하는 요인을 추출하는 카이저 규칙(kaiser rule) 적용 결과 3개의 요인해가 추출되었고 63.72%의 설명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1개의 요인(잠재변수)을 추출할 때 최소 3개 이상의 변수(측정변수)를 포함해야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일반적적인 요인분석의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아래의 표31은 아이겐 값 1.0을 기준으로 산출된 요인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아이겐 값이 1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 돌문화경관과 관련하여 모두 3개의 요인이 추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1은 <다정한, 안정감있는, 안락한, 정돈된, 편안한, 아름다움>의 형용사로 구성되어졌으며 공통변량 값은 7.563으로 47.2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 요인을 “안락성”으로 명하였다.

요인2는 <자연스러움, 자연적인, 조화로운, 아늑한, 푸르른, 매력적인>의 형용사로 구성되어졌으며 공통변량 값은 1.530으로 9.5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 요인을 “자연성”으로 명하였다.

요인3은 <넓은, 시원한, 쾌적한, 친근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졌으며 공통변량 값은 1.102로 6.89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 요인을 “자연성”으로 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 1의 “안락성”이 제주돌문화경관의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결과로서 보여준다.

요인추출 결과 및 요인 해석은 아래 표와 같다. 요인 추출에 있어 표준형성 적절성(Kaiser-Meyer-Olkin: KMO)측도는 .903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 확률은 .000으로 안정된 요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 KMO와 Bartlett의 검정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 측도 (Kaiser-Meyer-Olkin: KMO)		.90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1015.755
	자유도	120
	유의확률	.000

② 형용사에 대한 신뢰도 평가

먼저 각 형용사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의 신뢰도 값은 형용사 문항 전체를 단일척도로 비교했을 경우의 신뢰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0.6 또는 0.7 이상일 경우 신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선정된 16개의 형용사 어휘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형용사들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각 항목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이 0.924로 나왔기에 본 평가의 신뢰도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이미지 기초 통계량 분석

7단계 어의구별척을 사용한 16개의 형용사 목록을 제주 돌문화자원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인 산술평균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산술평균을 통해 제주 돌문화자원의 전체와 각 자원별 이미지의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아래 표 34는 전체 이미지의 기초통계량을 종합한 것이다.

[표 34] 제주 돌문화자원의 이미지 형용사 전체 표현에 대한 기초통계량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9725	1.3809	2.2879	.62373	2.6000	1.0941
매력적인-매력 없는	2.9554	1.3398	2.6520	.92706	2.7904	1.1439
넓은-좁은	3.7601	1.4693	2.7916	.83185	3.2332	1.2622
아늑한-황량한	3.3361	1.2100	3.0912	.91570	3.2029	1.0669
쾌적한-불쾌한	3.5455	1.2116	2.7557	.79483	3.1158	1.0805
푸르른-푸르르지않은	3.2404	1.3554	3.1183	.77492	3.1740	1.0806
친근한-낯선	3.2583	1.5790	2.8949	.89476	3.0606	1.2668
자연적인-인공적인	2.7290	1.4058	3.0538	1.0257	2.9057	1.2244
시원한-답답한	3.4087	1.3868	2.9692	.81066	3.1696	1.1323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2.8663	1.4528	2.3260	.74036	2.5723	1.1544
정돈된-어수선한	3.0337	1.3520	2.7788	.95643	2.8950	1.1605
편안한-불편한	3.1473	1.2909	2.6571	.81194	2.8806	1.0853
다정한-삭막한	3.3243	1.3466	2.8385	.83391	3.0600	1.1240
안락한-불안한	3.3195	1.2302	2.5626	.71875	2.9077	1.0550
아름다운-추한	3.2155	1.3335	2.7890	.86934	2.9835	1.1255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1066	1.2239	2.6821	.85779	2.8756	1.0620

제주 돌문화경관에 대한 전체 자원의 이미지 평가를 수행한 결과 기초통계량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국인의 경우 돌문화자원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넓은’, ‘쾌적한’, ‘시원한’ 등의 이미지는 낮은 점수를 타 나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인의 경우 ‘조화로운’, ‘자연스러운’, ‘안락한’의 이미지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아늑한’, ‘푸르른’, ‘자연적인’ 이미지는 낮게 나타났다. 한중간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인은 ‘자연적인’ 이미지를 높게 평가한 반면 중국인은 낮게 평가하였으며 ‘자연스러운’ 이미지는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중 종합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돌문화자원 전체에 대해 ‘조화로운’, ‘매력적인’,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넓은’, ‘아늑한’, ‘시원한’의 이미지가 낮은 평가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돌문화경관이느낌상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넓고 시원한 느낌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돌문화경관이 색채나 자연성 측면에서 조화로운 이미지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며 이는 제주 전체의 느낌과도 일부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다음은 돌문화자원 26개에 대한 각 이미지의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것이다. 각 자원별로 내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전체의 평균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국내인은 자원의 이미지에 대해 대부분 ‘자연스러운’ 또는 ‘자연적인’ 등의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봉천수를 ‘푸르른’으로 발답을 ‘아름다운’으로 평가하였으며, 도대불에 대해서는 ‘매력적인’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고인돌과 방사탑, 돌하르방 등은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경관 자원으로 ‘친근한’으로 평가하였다.

중국인의 경우 발답을 ‘조화로운, 넓은’ 이미지로 평가하였으며 산담을 ‘조화로운, 자연적인’으로, 방사탑을 ‘매력적인’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산담에 대해서는 ‘조화로운, 자연적인’으로 평가하였다.

한중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발답을 ‘아름다운’으로 평가하였으며, 인공포구를 ‘조화로운’으로, 방사탑을 ‘매력적인’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돌하르방을 ‘친근한’으로 평가하였고, 용천대를 ‘자연스러운’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인은 발답을 아름답다고 평가한 반면, 중국인은 조화롭고 넓게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 표 35에서부터 표 60까지는 각 26개 자원별 이미지 기초 통계량을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35] 정주석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8750	1.01497	2.1238	.43179	2.4663	.84172
(2)	매력적인-매력 없는	2.2841	.90907	2.3810	.76436	2.3368	.83263
(3)	넓은-좁은	5.4318	.79936	3.0000	.50000	4.1088	1.3782
(4)	아늑한-황량한	2.9773	.54619	3.0000	.63549	2.9896	.59503
(5)	쾌적한-불쾌한	2.3750	.59331	2.2476	.60098	2.3057	.59932
(6)	푸르름-푸르르지않은	3.6705	.70664	3.6762	.79051	3.6736	.75151
(7)	친근한-낯선	3.0341	1.29054	2.2000	.68500	2.5803	1.0873
(8)	자연적인-인공적인	1.9318	.79936	2.2095	.75569	2.0829	.78619
(9)	시원한-답답한	2.2273	.94355	3.0952	.49076	2.6995	.84954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1.3750	.90099	2.3429	.80657	1.9016	.97663
(11)	정돈된-어수선한	2.2955	.84635	2.3143	.82409	2.3057	.83218
(12)	편안한-불편한	2.5909	.94244	2.0952	.50997	2.3212	.77756
(13)	다정한-삭막한	2.6364	.87338	2.9333	.76292	2.7979	.82639
(14)	안락한-불안한	2.5795	1.00254	2.2095	.58335	2.3782	.82091
(15)	아름다운-추한	3.0795	1.17661	2.4190	.76938	2.7202	1.0279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4545	1.27675	2.8381	.60644	3.1192	1.0161

[표 36] 축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3182	.76632	2.8286	.46939	2.5959	.67112
(2)	매력적인-매력 없는	3.7614	.93458	3.5333	.93095	3.6373	.93711
(3)	넓은-좁은	3.8523	.86489	3.0762	.49410	3.4301	.78828
(4)	아늑한-황량한	3.0114	.78043	2.8286	.37869	2.9119	.60166
(5)	쾌적한-불쾌한	3.1477	.78110	3.6190	.76436	3.4041	.80518
(6)	푸르름-푸르르지않은	3.4091	.76769	3.7619	.64337	3.6010	.72270
(7)	친근한-낯선	3.3068	.63169	3.4190	1.0449	3.3679	.88058
(8)	자연적인-인공적인	1.6932	1.2068	3.5048	.82186	2.6788	1.3580
(9)	시원한-답답한	2.6136	1.0978	3.6000	.75447	3.1503	1.0474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1.8750	1.2485	3.3333	1.0889	2.6684	1.3707
(11)	정돈된-어수선한	2.8182	.67031	3.4571	.93056	3.1658	.88003
(12)	편안한-불편한	3.0795	.81961	3.4190	1.0074	3.2642	.93965
(13)	다정한-삭막한	3.5568	1.0598	2.8857	.44537	3.1917	.85363
(14)	안락한-불안한	3.4886	1.0282	2.8286	.46939	3.1295	.84089
(15)	아름다운-추한	4.1023	.88460	3.6286	.69693	3.8446	.82075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2.5227	.90943	2.7905	.40892	2.6684	.69514

[표 37] 올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2273	.69028	2.0286	.52728	2.1192	.61347
(2)	매력적인-매력 없는	2.6250	.91366	2.2000	.65633	2.3938	.81033
(3)	넓은-좁은	3.7614	.85761	2.1524	.45533	2.8860	1.0445
(4)	아늑한-황량한	2.4659	.93402	2.8762	.72979	2.6891	.85192
(5)	쾌적한-불쾌한	3.1591	1.0921	2.7524	.51480	2.9378	.85163
(6)	푸르름-푸르르지않은	3.0682	.96841	3.8095	.62165	3.4715	.87825
(7)	친근한-낯선	2.7386	.91594	2.1238	.54939	2.4041	.79869
(8)	자연적인-인공적인	2.3864	1.3168	3.4190	.92799	2.9482	1.2321
(9)	시원한-답답한	3.2045	1.1857	2.9048	.49076	3.0415	.88879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1.7500	1.2617	2.7810	.58804	2.3109	1.0833
(11)	정돈된-어수선한	2.1477	.80999	2.0286	.65717	2.0829	.73127
(12)	편안한-불편한	2.3182	1.0990	2.1619	.63736	2.2332	.87948
(13)	다정한-삭막한	2.2841	.99364	3.0190	.49963	2.6839	.84693
(14)	안락한-불안한	2.6477	1.1248	2.6667	.56614	2.6580	.86431
(15)	아름다운-추한	2.8750	1.1528	2.2476	.60098	2.5337	.94657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3636	1.1956	3.3429	1.0361	3.3523	1.1087

[표 38] 통신탄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3.5795	1.1113	2.1143	.44537	2.7824	1.0965
(2)	매력적인-매력 없는	4.4886	1.0720	3.1429	.67123	3.7565	1.1029
(3)	넓은-좁은	4.0909	1.2189	3.1238	.67504	3.5648	1.0739
(4)	아늑한-황량한	3.3864	1.0442	3.7048	.78353	3.5596	.92298
(5)	쾌적한-불쾌한	4.6477	1.1748	3.7619	.72753	4.1658	1.0525
(6)	푸르름-푸르르지않은	4.7614	1.1037	3.0381	.60326	3.8238	1.2205
(7)	친근한-낯선	4.8636	1.8142	2.2476	.60098	3.4404	1.8421
(8)	자연적인-인공적인	2.8295	.86065	2.2286	.63937	2.5026	.80444
(9)	시원한-답답한	5.2841	1.2312	2.9714	.62722	4.0259	1.4945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2.9773	.78751	2.8571	.61125	2.9119	.69785
(11)	정돈된-어수선한	4.4659	1.1541	3.6095	.86040	4.0000	1.0897
(12)	편안한-불편한	5.1364	1.4478	3.1714	.46939	4.0674	1.4254
(13)	다정한-삭막한	3.8182	1.3691	2.9143	.39502	3.3264	1.0666
(14)	안락한-불안한	3.8750	1.4841	2.9238	.56662	3.3575	1.1818
(15)	아름다운-추한	4.0795	1.5626	2.3810	.71227	3.1554	1.4493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6705	.89342	3.5143	.76100	3.5855	.82550

[표 39] 올렛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1.8864	1.1589	1.9048	.40487	1.8964	.83519
(2)	매력적인-매력 없는	1.9205	1.1766	2.7333	.73729	2.3627	1.0423
(3)	넓은-좁은	4.4318	1.6801	2.1429	.61125	3.1865	1.6697
(4)	아늑한-황량한	3.0341	.85027	2.1905	.55635	2.5751	.82019
(5)	쾌적한-불쾌한	3.3864	1.1589	2.7810	.70685	3.0570	.98524
(6)	푸르름-푸르르지않은	2.5114	1.0393	3.7048	.73280	3.1606	1.0656
(7)	친근한-낯선	2.5795	1.0691	2.7810	.65016	2.6891	.87007
(8)	자연적인-인공적인	2.1023	.99470	3.4286	.94926	2.8238	1.1726
(9)	시원한-답답한	3.6705	1.5663	2.7429	.66548	3.1658	1.2514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2.2045	1.1260	2.1524	.53315	2.1762	.85394
(11)	정돈된-어수선한	2.6818	.87816	1.9810	.41558	2.3005	.75198
(12)	편안한-불편한	2.6591	.77142	2.5905	.64592	2.6218	.70485
(13)	다정한-삭막한	2.8523	1.0778	2.9238	.56662	2.8912	.83764
(14)	안락한-불안한	2.4318	1.1526	2.7429	.60492	2.6010	.90795
(15)	아름다운-추한	2.8750	1.1726	2.1048	.51746	2.4560	.95709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2727	1.2751	2.0857	.28128	2.6269	1.0634

[표 40] 용천대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9659	1.1981	2.7810	.58804	2.8653	.91997
(2)	매력적인-매력 없는	2.6591	1.3720	3.5619	.85399	3.1503	1.2046
(3)	넓은-좁은	4.5568	1.6737	3.5619	.92947	4.0155	1.4085
(4)	아늑한-황량한	2.9205	1.3580	3.6571	.67694	3.3212	1.1041
(5)	쾌적한-불쾌한	3.1250	1.0373	2.8857	.52467	2.9948	.80685
(6)	푸르름-푸르르지않은	2.6477	1.2957	3.8857	.64023	3.3212	1.1683
(7)	친근한-낯선	4.1364	1.4946	2.9619	.43686	3.4974	1.2081
(8)	자연적인-인공적인	2.9205	1.2244	3.5429	.88826	3.2591	1.0969
(9)	시원한-답답한	3.3409	1.1927	3.5048	.88929	3.4301	1.0390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2.4886	1.3130	2.0381	.33752	2.2435	.94526
(11)	정돈된-어수선한	3.1364	.97299	2.8476	.45533	2.9793	.74971
(12)	편안한-불편한	3.1364	.93688	3.5048	.79812	3.3368	.88125
(13)	다정한-삭막한	3.8295	1.0744	2.8476	.45533	3.2953	.93588
(14)	안락한-불안한	3.2045	.98447	2.7714	.42193	2.9689	.76313
(15)	아름다운-추한	2.7045	1.2968	3.6190	.73877	3.2021	1.1252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3636	1.1364	2.1524	.53315	2.7047	1.0512

[표 41] 봉천수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3.2159	1.3767	2.0381	.33752	2.5751	1.1253
(2)	매력적인-매력 없는	3.7045	1.6481	2.1143	.42323	2.8394	1.3994
(3)	넓은-좁은	3.5568	1.3292	3.5429	.97101	3.5492	1.1451
(4)	아늑한-황량한	3.7955	1.1562	3.6190	.73877	3.6995	.95353
(5)	쾌적한-불쾌한	3.6250	1.2439	2.2286	.57608	2.8653	1.1692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2.4773	1.2773	2.1143	.75082	2.2798	1.0380
(7)	친근한-낯선	2.6136	1.3765	3.5048	.79812	3.0984	1.1839
(8)	자연적인-인공적인	2.7614	1.1345	3.4667	.93095	3.1451	1.0847
(9)	시원한-답답한	2.7614	1.2223	2.8857	.64023	2.8290	.95021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3.2500	1.3834	2.1143	.42323	2.6321	1.1339
(11)	정돈된-어수선한	3.5227	.93437	3.5048	.88929	3.5130	.90777
(12)	편안한-불편한	3.0000	1.0171	2.7714	.57608	2.8756	.81335
(13)	다정한-사막한	3.6250	1.2713	2.8095	.48229	3.1813	1.0120
(14)	안락한-불안한	3.1023	1.1845	2.0762	.38469	2.5440	.98920
(15)	아름다운-추한	3.7045	1.6481	2.7714	.63937	3.1969	1.2920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5227	1.1936	3.5429	.93056	3.5337	1.0558

[표 42] 들통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4.3182	1.2086	2.7714	.63937	3.4767	1.2165
(2)	매력적인-매력 없는	3.7273	1.2841	3.8857	.57703	3.8135	.96632
(3)	넓은-좁은	4.9432	1.4412	3.0000	.48038	3.8860	1.4169
(4)	아늑한-황량한	3.5455	1.2767	3.7714	.63937	3.6684	.98631
(5)	쾌적한-불쾌한	3.9659	.99941	3.5810	.92799	3.7565	.97776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3.9659	1.0980	3.1143	.93350	3.5026	1.0950
(7)	친근한-낯선	4.4659	1.8751	2.8857	.57703	3.6062	1.5479
(8)	자연적인-인공적인	3.4886	1.1938	1.9619	.19234	2.6580	1.1167
(9)	시원한-답답한	3.7273	.69028	2.9619	.43686	3.3109	.68217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3.6250	1.1578	2.1524	.60098	2.8238	1.1592
(11)	정돈된-어수선한	4.5227	1.2773	3.7333	.65437	4.0933	1.0614
(12)	편안한-불편한	4.2841	1.2312	2.9619	.51746	3.5648	1.1260
(13)	다정한-사막한	4.3182	1.3178	2.9238	.61543	3.5596	1.2152
(14)	안락한-불안한	4.0682	.94438	3.0000	.48038	3.4870	.90202
(15)	아름다운-추한	4.1364	.77581	3.7333	.71072	3.9171	.76606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4.1023	1.0287	2.1905	.62165	3.0622	1.2650

[표 43] 발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1591	1.6037	2.0000	.39223	2.0725	1.12032
(2)	매력적인-매력 없는	1.7841	1.2172	2.1905	.68071	2.0052	.98159
(3)	넓은-좁은	1.9205	1.4639	2.0000	.27735	1.9637	1.00713
(4)	아늑한-황량한	2.6477	.95940	2.2667	.65437	2.4404	.82779
(5)	쾌적한-불쾌한	2.5455	1.0711	2.1905	.73505	2.3523	.91868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1.6477	1.0287	2.8095	.62165	2.2798	1.01266
(7)	친근한-낯선	1.8864	1.4014	2.1524	.71765	2.0311	1.08928
(8)	자연적인-인공적인	1.7159	1.4138	2.0381	.51746	1.8912	1.03761
(9)	시원한-답답한	2.4091	1.2742	2.4190	.84103	2.4145	1.05781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1.7500	1.3582	2.0762	.47425	1.9275	.99212
(11)	정돈된-어수선한	1.5682	1.1526	2.1905	.62165	1.9067	.95285
(12)	편안한-불편한	2.2614	.94071	2.1143	.57703	2.1813	.76599
(13)	다정한-사막한	1.5682	1.2014	3.6571	.78236	2.7047	1.44006
(14)	안락한-불안한	2.2386	.99417	2.1524	.60098	2.1917	.80334
(15)	아름다운-추한	1.5000	1.2034	2.1143	.42323	1.8342	.92052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1.5682	1.1625	2.2286	.57608	1.9275	.94919

[표 44] 우연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3068	.80741	2.1524	.36111	2.2228	.60990
(2)	매력적인-매력 없는	3.0227	.74243	2.1143	.42323	2.5285	.74335
(3)	넓은-좁은	4.4205	1.0798	3.5429	.79697	3.9430	1.03172
(4)	아늑한-황량한	2.9773	.54619	2.0762	.54939	2.4870	.70791
(5)	쾌적한-불쾌한	4.4545	1.1337	1.9619	.33752	3.0984	1.48101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3.6364	.77581	2.7714	.42193	3.1658	.74545
(7)	친근한-낯선	2.4318	1.0591	2.7333	.52379	2.5959	.82436
(8)	자연적인-인공적인	3.6023	.87808	3.4667	.93095	3.5285	.90742
(9)	시원한-답답한	5.1023	1.5089	2.8095	.39456	3.8549	1.55781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2.8977	.62587	2.0000	.27735	2.4093	.64817
(11)	정돈된-어수선한	2.2500	.71519	2.0762	.47425	2.1554	.60094
(12)	편안한-불편한	3.0909	.73713	2.0000	.27735	2.4974	.76461
(13)	다정한-사막한	3.0341	.65124	2.9619	.64932	2.9948	.64950
(14)	안락한-불안한	3.7386	.90331	2.2667	.71072	2.9378	1.08794
(15)	아름다운-추한	3.7045	.89903	2.0762	.26658	2.8187	1.03242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0455	.69330	2.3048	.66685	2.6425	.77167

[표 45] 잣성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1.6705	1.1717	2.1524	.53315	1.9326	.91323
(2)	매력적인-매력 없는	2.3977	.96537	2.2286	.57608	2.3057	.78050
(3)	넓은-좁은	2.4091	.94244	2.0000	.48038	2.1865	.75445
(4)	아늑한-황량한	3.8295	.76145	2.2667	.59269	2.9793	1.0305
(5)	쾌적한-불쾌한	3.7614	.83038	2.1524	.45533	2.8860	1.0345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2.5000	1.0613	2.1143	.42323	2.2902	.80283
(7)	친근한-낯선	2.3636	.80490	2.8095	.55635	2.6062	.71470
(8)	자연적인-인공적인	1.5795	1.1317	2.1524	.45533	1.8912	.88009
(9)	시원한-답답한	2.3636	.89932	2.1143	.50601	2.2280	.72158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1.7159	1.2498	2.1905	.73505	1.9741	1.0279
(11)	정돈된-어수선한	4.4886	1.0720	2.2286	.78761	3.2591	1.4596
(12)	편안한-불편한	3.7500	.79148	2.2381	.67259	2.9275	1.0482
(13)	다정한-삭막한	4.5455	1.0603	3.0667	.54184	3.7409	1.1017
(14)	안락한-불안한	3.7614	.81642	2.2762	.62781	2.9534	1.0322
(15)	아름다운-추한	3.7045	.81873	2.3619	.82186	2.9741	1.0578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7500	.90019	2.1429	.46881	2.8756	1.0631

[표 46] 불턱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4545	.99318	2.8095	.48229	2.6477	.77742
(2)	매력적인-매력 없는	3.2045	.84635	3.5048	.86740	3.3679	.86867
(3)	넓은-좁은	4.8750	1.3114	3.7048	.67829	4.2383	1.1704
(4)	아늑한-황량한	3.2045	.80457	3.6571	.55172	3.4508	.71364
(5)	쾌적한-불쾌한	3.9432	1.3161	3.8000	.48833	3.8653	.95878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3.5909	.96652	3.2095	.71650	3.3834	.85886
(7)	친근한-낯선	4.2500	1.1371	3.7143	.74310	3.9585	.97806
(8)	자연적인-인공적인	3.1364	.86012	3.5810	.81784	3.3782	.86418
(9)	시원한-답답한	4.3182	1.1501	2.9810	.55437	3.5907	1.1008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3.3068	.83539	2.3524	.70685	2.7876	.90223
(11)	정돈된-어수선한	3.6591	.84263	3.4857	.93144	3.5648	.89396
(12)	편안한-불편한	3.1705	.83352	3.7238	.59639	3.4715	.76408
(13)	다정한-삭막한	3.6591	.95756	2.1524	.70412	2.8394	1.1180
(14)	안락한-불안한	3.2045	.88615	3.0286	.59577	3.1088	.74552
(15)	아름다운-추한	3.2045	.92425	3.6286	.69693	3.4352	.83367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5227	1.1343	3.4952	.91066	3.5078	1.0161

[표 47] 인공포구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1.9545	1.2494	2.2667	.54184	2.1244	.94377
(2)	매력적인-매력 없는	2.2727	.90627	2.1905	.58990	2.2280	.74989
(3)	넓은-좁은	2.7614	1.0720	2.8190	.64720	2.7927	.86515
(4)	아늑한-황량한	3.1250	1.3114	3.0952	.56371	3.1088	.97552
(5)	쾌적한-불쾌한	2.9659	1.2452	2.2000	.65633	2.5492	1.04029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2.7955	1.0630	3.7333	.82353	3.3057	1.04822
(7)	친근한-낯선	2.6136	1.2170	2.8952	.53572	2.7668	.92000
(8)	자연적인-인공적인	2.4432	1.3549	3.6476	.79640	3.0984	1.23981
(9)	시원한-답답한	2.5568	1.1331	2.9714	.44844	2.7824	.85653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2.0568	1.4649	2.2286	.52362	2.1503	1.06224
(11)	정돈된-어수선한	2.9318	.90713	2.0762	.49410	2.4663	.82925
(12)	편안한-불편한	2.5455	1.2767	2.2857	.76854	2.4041	1.03701
(13)	다정한-삭막한	3.2727	1.1419	2.3333	.71611	2.7617	1.04342
(14)	안락한-불안한	3.4773	1.2221	3.0190	.58804	3.2280	.95734
(15)	아름다운-추한	2.3409	1.1535	3.6286	.79973	3.0415	1.16741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2.7614	.97077	3.4857	.86729	3.1554	.98249

[표 48] 도대불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3.1705	.94955	2.0381	.36490	2.5544	.89466
(2)	매력적인-매력 없는	2.6136	1.3513	2.5619	.66396	2.5855	1.0328
(3)	넓은-좁은	3.3750	1.1276	2.9619	.63434	3.1503	.91470
(4)	아늑한-황량한	4.2500	1.2247	3.5905	.87371	3.8912	1.0961
(5)	쾌적한-불쾌한	3.1705	.91251	2.7714	.52362	2.9534	.75201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3.5909	1.0015	3.0190	.60417	3.2798	.85663
(7)	친근한-낯선	4.1136	1.2992	3.2762	1.0142	3.6580	1.2235
(8)	자연적인-인공적인	3.1705	.98520	3.2286	1.0493	3.2021	1.0183
(9)	시원한-답답한	3.2045	1.0301	3.3714	.93291	3.2953	.97939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4.1477	1.3090	2.6857	.71137	3.3523	1.2583
(11)	정돈된-어수선한	3.0000	.83045	3.3143	1.0769	3.1710	.98255
(12)	편안한-불편한	3.7955	.76051	2.6381	.57385	3.1658	.88003
(13)	다정한-삭막한	4.1023	.84472	2.2476	.67626	3.0933	1.1953
(14)	안락한-불안한	3.6705	1.0363	2.0095	.29402	2.7668	1.1051
(15)	아름다운-추한	3.7500	1.0311	2.7619	.50997	3.2124	.93064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2386	1.1345	3.3619	.94180	3.3057	1.0332

[표 49] 원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6818	1.1797	2.0857	.41866	2.3575	.90235
(2)	매력적인-매력 없는	2.6136	.96409	2.2286	.60855	2.4041	.81162
(3)	넓은-좁은	2.8750	1.3026	1.9524	.37675	2.3731	1.0286
(4)	아늑한-황량한	2.9091	1.2283	2.2286	.60855	2.5389	.99989
(5)	쾌적한-불쾌한	3.1591	.84263	2.9524	.64123	3.0466	.74505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2.5795	1.0363	3.1048	.84266	2.8653	.96958
(7)	친근한-낯선	2.8182	1.3437	3.6000	.77955	3.2435	1.1400
(8)	자연적인-인공적인	2.2273	1.5516	2.8286	.65717	2.5544	1.1895
(9)	시원한-답답한	3.2045	.99607	2.8762	.54939	3.0259	.79997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2.7500	1.2247	2.2286	.52362	2.4663	.94657
(11)	정돈된-어수선한	2.9318	1.3200	2.7714	.42193	2.8446	.94466
(12)	편안한-불편한	2.8523	1.3606	2.8762	.45352	2.8653	.97494
(13)	다정한-삭막한	3.2727	1.0474	3.5143	.77353	3.4041	.91423
(14)	안락한-불안한	2.8182	1.2368	2.2476	.67626	2.5078	1.0109
(15)	아름다운-추한	2.5909	.97834	2.9619	.47886	2.7927	.76957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1023	.84472	3.6000	.64450	3.3731	.78109

[표 50] 소금빌레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4.1364	1.2611	2.0476	.48795	3.0000	1.3919
(2)	매력적인-매력 없는	3.1477	1.0990	3.5429	.89902	3.3627	1.0119
(3)	넓은-좁은	3.4318	1.1426	3.3905	1.0515	3.4093	1.0913
(4)	아늑한-황량한	4.0000	1.1141	3.6381	.78598	3.8031	.96425
(5)	쾌적한-불쾌한	4.1932	1.3884	2.9143	.60629	3.4974	1.2167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3.5000	1.0827	3.0571	.64790	3.2591	.89863
(7)	친근한-낯선	4.6932	1.5264	2.3333	.89514	3.4093	1.6966
(8)	자연적인-인공적인	2.2841	.84349	2.2381	.75350	2.2591	.79401
(9)	시원한-답답한	3.3750	1.1478	2.7810	.60417	3.0518	.93953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2.8750	.84163	2.1429	.64194	2.4767	.82331
(11)	정돈된-어수선한	3.5568	1.0705	2.6857	.56012	3.0829	.93729
(12)	편안한-불편한	3.2841	.87031	2.9143	.68098	3.0829	.79279
(13)	다정한-삭막한	3.6932	.74830	2.3810	.84786	2.9793	1.0356
(14)	안락한-불안한	3.5568	.93290	2.3714	.84645	2.9119	1.0643
(15)	아름다운-추한	3.0341	1.1885	2.9238	.67504	2.9741	.94337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5682	.98021	2.2286	.57608	2.8394	1.0308

[표 51] 산담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3.1705	.79106	2.1905	.55635	2.6373	.83107
(2)	매력적인-매력 없는	3.1364	.77581	2.4190	.79398	2.7461	.86168
(3)	넓은-좁은	3.8636	.73001	3.0762	.61543	3.4352	.77540
(4)	아늑한-황량한	3.0455	1.2767	2.4190	.88558	2.7047	1.1230
(5)	쾌적한-불쾌한	3.6250	.84843	2.4571	.88826	2.9896	1.0457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2.6705	1.2477	2.9238	.47425	2.8083	.91829
(7)	친근한-낯선	4.1136	1.3255	3.8476	.71765	3.9689	1.0453
(8)	자연적인-인공적인	2.0568	1.3675	2.1905	.62165	2.1295	1.0301
(9)	시원한-답답한	3.1023	.95940	3.8857	.64023	3.5285	.89003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3.0341	1.1591	2.2286	.63937	2.5959	.99603
(11)	정돈된-어수선한	2.2614	1.5123	2.2286	.57608	2.2435	1.1029
(12)	편안한-불편한	2.8523	1.2274	2.4571	.93056	2.6373	1.0911
(13)	다정한-삭막한	3.4773	1.1035	2.3429	.78236	2.8601	1.0974
(14)	안락한-불안한	2.9545	1.3553	2.3810	.92384	2.6425	1.1733
(15)	아름다운-추한	3.1705	.91251	2.4190	.84103	2.7617	.94933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2.3295	1.4037	2.3048	.82186	2.3161	1.1220

[표 52] 고인들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4.4318	1.6174	2.1524	.60098	3.1917	1.6360
(2)	매력적인-매력 없는	3.6250	1.1872	3.6571	.95905	3.6425	1.0663
(3)	넓은-좁은	3.4432	1.1023	2.8476	.66189	3.1192	.93614
(4)	아늑한-황량한	4.3182	1.1501	3.6952	.82186	3.9793	1.0305
(5)	쾌적한-불쾌한	3.7614	.89692	3.0762	.47425	3.3886	.77680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4.1477	1.3090	3.1905	.55635	3.6269	1.0828
(7)	친근한-낯선	2.4773	1.1343	3.0762	.61543	2.8031	.93686
(8)	자연적인-인공적인	3.0000	.90972	1.9619	.33752	2.4352	.83989
(9)	시원한-답답한	3.4886	1.2223	2.7714	.63937	3.0984	1.0132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4.1136	1.2724	2.0381	.51746	2.9845	1.3974
(11)	정돈된-어수선한	3.4091	1.0015	3.4286	.88641	3.4197	.93821
(12)	편안한-불편한	3.8977	.80287	2.8857	.57703	3.3472	.85312
(13)	다정한-삭막한	2.8864	1.1589	3.7333	.65437	3.3472	1.0097
(14)	안락한-불안한	3.8636	.89932	3.0381	.43686	3.4145	.79987
(15)	아름다운-추한	3.9773	1.6115	2.9619	.43686	3.4249	1.2398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1364	1.0740	2.8857	.69772	3.0000	.89559

[표 53] 방사탑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3.5568	.96916	2.1143	.50601	2.7720	1.0407
(2)	매력적인-매력 없는	3.1023	.95940	1.9238	.26658	2.4611	.89547
(3)	넓은-좁은	3.5795	.85395	2.2667	.71072	2.8653	1.0167
(4)	아늑한-황량한	4.3182	1.0564	3.0762	.38469	3.6425	.98513
(5)	쾌적한-불쾌한	3.8977	.88460	2.9238	.47425	3.3679	.84435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2.8523	1.3090	3.1524	.36111	3.0155	.93250
(7)	친근한-낯선	2.7159	1.2860	2.9238	.47425	2.8290	.93919
(8)	자연적인-인공적인	2.7500	1.1371	3.5048	.88929	3.1606	1.0753
(9)	시원한-답답한	3.2386	1.0056	2.2667	.71072	2.7098	.98359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3.3750	1.1578	2.1905	.62165	2.7306	1.0801
(11)	정돈된-어수선한	3.1364	1.1057	2.1143	.57703	2.5803	.99741
(12)	편안한-불편한	2.8182	1.2368	2.1905	.48229	2.4767	.95782
(13)	다정한-사막한	3.8977	.99470	2.3810	.73877	3.0725	1.1478
(14)	안락한-불안한	4.0000	.90972	2.9619	.58710	3.4352	.91127
(15)	아름다운-추한	3.1364	1.0078	2.0000	.39223	2.5181	.93035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2.9318	1.0482	2.6571	.73155	2.7824	.89809

[표 54] 본향당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4.5281	1.0123	2.0762	.26658	3.1969	1.4188
(2)	매력적인-매력 없는	4.4157	1.2685	2.1143	.57703	3.1710	1.4988
(3)	넓은-좁은	5.0337	1.3853	2.9619	.51746	3.9067	1.4475
(4)	아늑한-황량한	3.3258	1.6150	3.5429	.79697	3.4404	1.2449
(5)	쾌적한-불쾌한	4.1798	.98352	2.8857	.57703	3.4767	1.0209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3.6966	1.2284	3.0000	.55470	3.3212	.98975
(7)	친근한-낯선	4.7416	1.2296	3.5048	.84494	4.0674	1.2078
(8)	자연적인-인공적인	4.0787	1.0998	3.6190	.96457	3.8394	1.0458
(9)	시원한-답답한	4.7303	1.2947	3.5810	.74396	4.1244	1.1614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3.8427	1.4134	2.2286	.75009	2.9793	1.3615
(11)	정돈된-어수선한	3.8876	1.0492	2.7333	.65437	3.2591	1.0334
(12)	편안한-불편한	3.9213	1.3418	2.7333	.65437	3.2798	1.1878
(13)	다정한-사막한	3.9663	1.6952	2.2286	.50492	3.0363	1.4803
(14)	안락한-불안한	3.7303	1.5208	2.2286	.57608	2.9275	1.3365
(15)	아름다운-추한	4.1685	1.1893	2.8857	.50601	3.4767	1.0948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4494	1.0226	2.0000	.27735	2.6632	1.0234

[표 55] 돌하르방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5843	1.1947	2.1905	.55635	2.3782	.92249
(2)	매력적인-매력 없는	2.2022	1.0464	2.1905	.62165	2.2021	.83890
(3)	넓은-좁은	4.0449	.97596	2.9619	.43686	3.4508	.90652
(4)	아늑한-황량한	3.6629	1.0438	3.4286	1.0082	3.5337	1.0308
(5)	쾌적한-불쾌한	3.0899	.92491	2.0381	.33752	2.5233	.85435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3.6854	1.3194	2.8095	.55635	3.2176	1.0725
(7)	친근한-낯선	1.5281	.91812	2.1143	.31968	1.8497	.72400
(8)	자연적인-인공적인	2.1236	1.4910	3.5810	.84103	2.9223	1.3841
(9)	시원한-답답한	3.1573	1.1569	2.7714	.50492	2.9534	.88559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2.1573	1.5875	2.0000	.55470	2.0777	1.1498
(11)	정돈된-어수선한	2.6854	1.4349	2.8095	.48229	2.7617	1.0283
(12)	편안한-불편한	2.4494	1.4848	2.1524	.60098	2.2953	1.1043
(13)	다정한-사막한	1.8989	1.6517	2.1524	.53315	2.0415	1.1895
(14)	안락한-불안한	3.4944	1.3827	2.0381	.43686	2.6995	1.2259
(15)	아름다운-추한	2.4719	1.5232	2.1905	.62165	2.3264	1.1329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0000	1.4924	2.8095	.68071	2.9067	1.1234

[표 56] 미륵불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3.7079	1.0247	2.8476	.45533	3.2383	.88104
(2)	매력적인-매력 없는	3.6629	1.4919	3.3810	1.0036	3.5130	1.2587
(3)	넓은-좁은	4.2921	1.3246	2.9619	.43686	3.5699	1.1621
(4)	아늑한-황량한	2.9213	1.3917	3.6190	.78912	3.2902	1.1541
(5)	쾌적한-불쾌한	4.5393	1.3985	2.7714	.50492	3.5751	1.3446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4.5955	1.4038	3.1143	.64023	3.7979	1.2932
(7)	친근한-낯선	4.3371	1.4376	3.4286	1.0082	3.8446	1.3057
(8)	자연적인-인공적인	3.3146	1.7748	3.4667	.93095	3.3886	1.3804
(9)	시원한-답답한	3.9775	.95319	3.5048	.84494	3.7202	.92672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3.8427	1.1569	2.1143	.64023	2.9067	1.2589
(11)	정돈된-어수선한	3.7614	1.2502	3.4286	1.0082	3.5803	1.1342
(12)	편안한-불편한	3.1910	1.3303	3.3905	1.1136	3.3109	1.2105
(13)	다정한-사막한	2.9886	1.4660	2.1524	.66189	2.5337	1.1771
(14)	안락한-불안한	3.3068	1.2351	1.9238	.26658	2.5544	1.0984
(15)	아름다운-추한	3.7955	1.0301	3.6190	.83644	3.6995	.93142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2.5114	1.0393	2.0762	.38469	2.2746	.78543

[표 57] 동자석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7159	1.0498	2.0381	.33752	2.3472	.82203
(2)	매력적인-매력 없는	2.5455	1.1337	2.0381	.33752	2.2694	.84159
(3)	넓은-좁은	4.3523	1.0617	3.0000	.48038	3.6166	1.0449
(4)	아늑한-황량한	2.8523	1.1990	3.5429	.88826	3.2280	1.0944
(5)	쾌적한-불쾌한	3.8636	1.0078	2.7333	.52379	3.2487	.96302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2.5341	1.7808	2.8476	.45533	2.7047	1.2545
(7)	친근한-낯선	2.6818	1.2644	1.9619	.33752	2.2902	.95675
(8)	자연적인-인공적인	3.4432	1.0705	3.5048	.88929	3.4767	.97400
(9)	시원한-답답한	3.6250	1.1276	3.5810	.74396	3.6010	.93619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2.8523	1.2824	2.1143	.50601	2.4508	1.0098
(11)	정돈된-어수선한	2.6818	1.0564	3.5810	.92799	3.1710	1.0833
(12)	편안한-불편한	2.7159	1.2312	2.7714	.63937	2.7461	.95350
(13)	다정한-삭막한	3.0341	1.1591	2.1905	.48229	2.5751	.95514
(14)	안락한-불안한	2.8182	1.4897	2.0762	.54939	2.4145	1.1430
(15)	아름다운-추한	3.1023	.95940	2.9238	.47425	3.0052	.73949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3.3750	1.0966	2.8095	.39456	3.0674	.84201

[표 58] 연대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3.1705	1.0196	2.0762	.38469	2.5751	.92184
(2)	매력적인-매력 없는	3.1364	1.2519	2.2286	.63937	2.6425	1.0663
(3)	넓은-좁은	3.0682	1.0482	2.1905	.73505	2.5907	.99127
(4)	아늑한-황량한	3.3068	.70070	2.9238	.47425	3.0984	.61716
(5)	쾌적한-불쾌한	2.9205	1.3150	3.0381	.64932	2.9845	1.0076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2.9205	1.2885	3.0762	.61543	3.0052	.98159
(7)	친근한-낯선	2.9545	1.3034	2.9619	.51746	2.9585	.95652
(8)	자연적인-인공적인	3.2727	1.1113	3.5048	.97195	3.3990	1.0415
(9)	시원한-답답한	3.5455	1.0046	2.1143	.31968	2.7668	1.0116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3.3750	.92615	2.2286	.69693	2.7513	.98969
(11)	정돈된-어수선한	2.3977	1.6155	2.0381	.51746	2.2021	1.1661
(12)	편안한-불편한	3.0568	1.3161	2.0381	.51746	2.5026	1.0903
(13)	다정한-삭막한	3.4773	.81618	3.8476	.53315	3.6788	.70001
(14)	안락한-불안한	3.6136	1.0978	3.0000	.62017	3.2798	.92108
(15)	아름다운-추한	2.7500	1.3064	2.1905	.48229	2.4456	.98868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2.7159	1.2312	2.0381	.33752	2.3472	.92910

[표 59] 진현성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9545	1.3805	2.1524	.60098	2.5181	1.1044
(2)	매력적인-매력 없는	2.7500	1.0747	2.0381	.51746	2.3627	.89154
(3)	넓은-좁은	2.9318	1.1724	2.1905	.55635	2.5285	.96310
(4)	아늑한-황량한	3.0909	1.3782	2.0381	.51746	2.5181	1.1323
(5)	쾌적한-불쾌한	3.6364	1.0952	2.0381	.33752	2.7668	1.1145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3.6250	1.4167	2.9619	.58710	3.2642	1.0981
(7)	친근한-낯선	2.9773	1.4058	2.1524	.45533	2.5285	1.0851
(8)	자연적인-인공적인	4.3523	1.3221	3.5810	.79398	3.9326	1.1322
(9)	시원한-답답한	3.7500	1.2433	2.1905	.68071	2.9016	1.2481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4.0795	1.5026	2.1524	.66189	3.0311	1.4786
(11)	정돈된-어수선한	2.6932	1.3759	1.9619	.33752	2.2953	1.0261
(12)	편안한-불편한	2.7386	1.4423	2.1143	.31968	2.3990	1.0465
(13)	다정한-사막한	2.8750	1.4685	3.5048	.79812	3.2176	1.1921
(14)	안락한-불안한	3.2955	1.0188	2.8476	.36111	3.0518	.76880
(15)	아름다운-추한	2.9205	1.2150	2.3429	.67694	2.6062	1.0001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2.5000	1.4223	2.0762	.38469	2.2694	1.0205

[표 60] 환해장성의 이미지 기초통계량

No.	형용사 어휘	내국인		중국인		Total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조화로운-부조화적인	2.5227	1.3388	3.5048	.88929	3.0570	1.2170
(2)	매력적인-매력 없는	2.0000	1.4542	2.8476	.60098	2.4611	1.1546
(3)	넓은-좁은	2.4659	1.2949	2.1524	.60098	2.2953	.98996
(4)	아늑한-황량한	3.8523	1.1400	3.6190	.68474	3.7254	.92547
(5)	쾌적한-불쾌한	3.0341	1.0875	2.8857	.57703	2.9534	.84957
(6)	푸르른-푸르르지않은	3.1250	1.0262	3.0762	.67504	3.0984	.85125
(7)	친근한-낯선	3.2727	1.1419	3.6571	.78236	3.4819	.97944
(8)	자연적인-인공적인	2.2727	1.7467	3.5429	.88826	2.9637	1.4873
(9)	시원한-답답한	2.5909	1.3359	3.5429	.79697	3.1088	1.1741
(10)	자연스러운-부자연스러운	2.7500	1.4562	3.5048	.84494	3.1606	1.2205
(11)	정돈된-어수선한	1.9659	1.4339	3.6190	.78912	2.8653	1.3966
(12)	편안한-불편한	3.1818	1.3090	2.8857	.50601	3.0207	.96802
(13)	다정한-사막한	3.8182	1.2275	3.6952	.53930	3.7513	.91873
(14)	안락한-불안한	3.3409	1.2307	3.5429	.79697	3.4508	1.0200
(15)	아름다운-추한	2.6932	1.1876	3.6190	.83644	3.1969	1.1098
(16)	안정감있는-안정감없는	2.9659	.96429	2.7714	.57608	2.8601	.78137

종합적으로 보면 용천대를 ‘자연스러운’으로, 봉천수를 ‘푸르른’으로, 발담을 ‘아름다운’으로 평가하였으며 불턱을 ‘조화로운’으로, 산담을 ‘자연적인’, 방사탑을 ‘매력적인’으로, 돌하르방을 ‘친근한’으로 평가되었다. 돌하르방은 제주의 상징으로 대부분 친근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발담의 경우 그 곡선과 색채, 그리고 넓은 들판과의 조화로 인해 아름다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방사탑의 경우 해안에 대부분 위치해 있으며, 자연경관과 더불어 매력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 61은 각 경관자원별 이미지를 평가한 것을 종합 정리 한 것이다.

[표 61] 각 경관자원별 이미지 평가 종합

자원		내국인	중국인	Total
주거	정주석	자연스러운	편안한	자연스러운
	축담	자연적인	안정감 있는	자연스러운 안정감 있는
	울담	자연스러운	조화로운, 정돈된	정돈된
	통깃담	자연적인	조화로운	자연적인
	올렛담	조화로운	조화로운	조화로운
	용천대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봉천수	푸르른	조화로운	푸르른
농축 산업	듬돌	자연적인	자연적인	자연적인
	발담	아름다운	조화로운, 넓은	아름다운
	우영담	정돈된	쾌적한	정돈된
어업	갯성	자연적인	넓은	자연적인
	불턱	조화로운	다정한	조화로운
	인공포구	조화로운	정돈된	조화로운
	도대불	매력적인	안락한	조화로운
	원담	자연적인	넓은	조화로운
종교 신앙	소금빌레	자연적인	조화로운	자연적인
	산담	자연적인	조화로운, 자연적인	자연적인
	고인돌	친근한	자연적인	자연적인
	방사탑	친근한	매력적인	매력적인
	본향당	아늑한	안정감 있는	안정감 있는
	돌하르방	친근한	자연스러운	친근한
	미륵불	안정감있는	안락한	안정감 있는
군사 방어	동자석	푸르른	친근한	매력적인
	연대	정돈된	정돈된, 편안한 안정감 있는	정돈된
	진·현성 환해장성	안정감 있는 정돈된	정돈된 넓은	안정감 있는 넓은

3) 경관선호도 분석

① 총체적 선호도

제주도의 다양한 문화경관자원을 대상으로 돌문화자원에 대한 선호도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돌문화자원 26종류의 이미지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호도」는 각 자원의 이미지에서 응답자가 느끼는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에 대한 그 정도’로 정의하였다. 설문은 7점 리커트 척도(7-Point Likert Scale)인 “매우 낮음~매우 높음”으로 설정하여 조사 대상인 제주 돌문화자원의 시각적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2] 총체적 선호도 측면의 분석

자원 구분		내국인		중국인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주거	정주석	5.5909	1.17088	3.6571	.63289	4.5389	1.33065
	축담	5.1364	1.54757	2.5048	.77365	3.7047	1.77095
	울담	5.1818	.61673	2.9810	.53675	3.9845	1.23944
	통깃담	3.3977	1.02318	2.1238	.33094	2.7047	.96869
	올렛담	5.1364	1.04146	3.2571	.79697	4.1140	1.31000
	용천대	6.1477	.67022	2.8000	1.17178	4.3264	1.93439
	봉천수	2.6136	.71810	2.5905	.96770	2.6010	.86084
	듬돌	2.1477	.65284	2.4952	.92116	2.3368	.82635
농·축 산업	밭담	6.7500	.50855	3.9619	.36490	5.2332	1.45864
	우영담	3.8864	.90251	3.2857	.54973	3.5596	.78913
	갯성	5.4773	.67768	3.8667	.46132	4.6010	.98499
어업	불턱	5.1023	1.29579	2.4095	.70295	3.6373	1.68420
	인공포구	6.3523	.84472	3.8476	.60098	4.9896	1.44334
	도대불	5.6932	.95120	3.2095	.56662	4.3420	1.45672
	원담	5.9091	1.17088	3.6952	.68112	4.7047	1.44728
	소금빌레	4.5000	1.18419	2.3333	.68874	3.3212	1.43629
종교 신앙	산담	5.0455	.98154	3.6762	.54588	4.3005	1.03222
	고인돌	3.0795	.88696	2.5048	.83348	2.7668	.90285
	방사탑	5.7614	.92220	3.8952	.64932	4.7461	1.21741
	본향당	2.2955	.81873	3.9333	.48569	3.1865	1.04902
	돌하르방	6.1364	1.03036	4.0476	.35030	5.0000	1.27883
	미륵불	2.5795	.82659	2.5905	1.00666	2.5855	.92657
	동자석	4.0682	.73961	2.5048	.83348	3.2176	1.11070
군사 방어	연대	4.8864	.82255	3.1810	.61677	3.9585	1.11259
	진·현성	4.9545	.52323	3.8476	.53315	4.3523	.76390
	환해장성	5.4318	1.15266	3.2095	.40892	4.2228	1.38711

우선 전체 선호도에 있어 내국인은 발담>인공포구>용천대>돌하르방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국인의 경우 돌하르방>발담>본향당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발담과 돌하르방은 두 집단 모두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국내의 경우 본향당은 아주 낮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중국의 경우는 선호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양국이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이 본향당의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것은 아마 신앙적 의미 또한 크다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다.

② 평가 기준별 선호도

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

[표 63]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에서의 선호도 분석

자원 구분		내국인		중국인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주거	정주석	5.7273	.73855	3.8000	.48833	4.6788	1.14128
	축담	3.8750	.98041	3.2190	.51852	3.5181	.82974
	울담	4.5000	1.10381	3.0762	.49410	3.7254	1.09079
	통싯담	5.0341	1.03334	2.2762	.59639	3.5337	1.60408
	울랫담	5.5909	.83922	3.9333	.57624	4.6891	1.08816
	용천대	6.2273	1.00261	3.3810	.64123	4.6788	1.64267
	봉천수	4.3750	1.13778	2.5905	.96770	3.4041	1.37401
농·축 산업	듬돌	2.7159	.98201	2.4286	.71867	2.5596	.85867
	발담	6.0795	1.30623	3.6571	.63289	4.7617	1.56631
	우영담	4.3636	.94907	2.3714	.69693	3.2798	1.28876
	잣성	4.9545	1.03845	3.7429	.60492	4.2953	1.02613
어업	불턱	5.3182	.96544	3.1810	.55089	4.1554	1.31366
	인공포구	5.7159	.84349	3.8857	.31968	4.7202	1.10135
	도대불	5.2841	.99364	3.3810	.57814	4.2487	1.23757
	원담	5.0227	1.06109	3.8762	.78072	4.3990	1.08080
	소금빌레	5.2045	1.16618	2.4190	.79398	3.6891	1.70072
종교 신앙	산담	5.7045	1.25175	3.8857	.31968	4.7150	1.26105
	고인돌	4.5682	1.22047	2.5333	.84429	3.4611	1.44691
	방사탑	5.7727	1.22922	3.9238	.26658	4.7668	1.25521
	본향당	4.2727	1.46002	3.9238	.47425	4.0829	1.05740
	돌하르방	6.1818	.70377	4.0762	.38469	5.0363	1.18749
	미륵불	3.7727	.97941	3.3810	.62605	3.5596	.82779
	동자석	5.0795	.71473	2.6476	1.0740	3.7565	1.52677
군사 방어	연대	5.1136	1.20756	3.8476	.45533	4.4249	1.08292
	진·현성	4.0682	1.00339	3.7714	.57608	3.9067	.81112
	환해장성	6.0227	.93437	3.2286	.63937	4.5026	1.60119

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v) 측면

내국인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v) 측면(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에서 선호경관자원을 발담>환해장성>용천대 순으로 평가하였으며, 중국인은 봉천수·본향당>축담>울담>인공포구 순으로 경관적으로 선호함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지 않는 자원으로는 내국인의 경우 미륵불>본향당>듬돌 순으로 평가하였고, 중국인의 경우 소금빌레>산담>고인돌·미륵불·동자석 순으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발담>인공포구>환해장성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4] 탁월한 보편적 가치 (v) 측면에서의 선호도 분석

자원 구분		내국인		중국인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주거	정주식	5.4205	.85395	3.8095	.48229	4.5440	1.05049
	축담	4.7500	.93772	3.9238	.54939	4.3005	.85565
	울담	4.8864	.79411	3.8476	.45533	4.3212	.81676
	통릿담	4.7386	.80935	3.6571	.61751	4.1503	.89163
	올렛담	4.9318	.82762	3.1524	.60098	3.9637	1.13822
	용천대	6.3523	.99470	2.5333	.84429	4.2746	2.11449
	봉천수	3.2045	1.43966	4.0381	.19234	3.6580	1.06417
	듬돌	2.8977	1.33080	2.5714	.88641	2.7202	1.12011
농·축 산업	발담	6.7273	.47288	3.8857	.50601	5.1813	1.50113
	우영담	4.8295	.96158	3.7714	.57608	4.2539	.93697
	갯성	4.6364	.68114	3.8095	.55635	4.1865	.74051
어업	불턱	5.3182	1.41864	2.4952	.88929	3.7824	1.82412
	인공포구	6.0682	.42333	3.8476	.60098	4.8601	1.22734
	도대불	6.2273	.88053	3.1524	.45533	4.5544	1.67966
	원담	5.3636	.93688	3.1524	.36111	4.1606	1.29908
	소금빌레	4.8182	1.14013	2.3048	.66685	3.4508	1.55084
종교 신앙	산담	5.8977	.58800	2.4190	.74396	4.0052	1.86385
	고인돌	3.8750	1.03738	2.4571	.79697	3.1036	1.15454
	방사탑	4.5114	.89692	3.1905	.48229	3.7927	.96207
	본향당	2.7727	1.25696	4.0381	.33752	3.4611	1.08484
	돌하르방	4.5909	.78252	3.1905	.48229	3.8290	.94472
	미륵불	2.2614	.78043	2.4571	.84385	2.3679	.81930
	동자석	4.0455	.74137	2.4571	.84385	3.1813	1.12420
군사 방어	연대	4.5341	1.24982	2.5333	.84429	3.4456	1.44640
	진·현성	4.1477	.65284	3.2286	.57608	3.6477	.76390
	환해장성	6.4886	.85761	3.1143	.50601	4.6528	1.81966

다. 진정성 측면

내국인은 진정성 측면(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에서 선호경관자원을 환해장성>밭담>용천대 순으로 평가하였으며, 중국인은 도대불, 방사탑>본향당, 돌하르방>올렛담, 밭담, 인공포구 순으로 경관적으로 선호함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지 않는 자원으로는 내국인의 경우 듄돌>미륵불>본향당 순으로 평가하였고, 중국인의 경우 불턱>고인돌>소금빌레 순으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밭담>돌하르방>도대불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5] 진정성 측면에서의 선호도 분석

자원 구분		내국인		중국인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주거	정주석	5.0455	.52323	3.7333	.52379	4.3316	.83783
	축담	4.6477	1.02878	3.8476	.45533	4.2124	.86690
	올렛담	5.0227	.72678	3.8857	.57703	4.4041	.86143
	통갯담	5.3523	.95940	3.6952	.66685	4.4508	1.15871
	올렛담	5.5114	.64317	3.9619	.43686	4.6684	.94311
	용천대	6.1023	1.33080	2.6095	.96571	4.2021	2.08556
	봉천수	4.5000	1.26854	3.3429	.61751	3.8705	1.12676
	듄돌	3.4545	1.07114	3.2667	.52379	3.3523	.82298
농·축 산업	밭담	6.2386	1.07205	3.9619	.43686	5.0000	1.38444
	우영담	4.6023	.80999	3.1524	.53315	3.8135	.98764
	갯성	4.8409	.52273	3.8476	.45533	4.3005	.69436
어업	불턱	5.3182	.86497	2.4571	.84385	3.7617	1.66307
	인공포구	5.6364	1.01915	3.9619	.43686	4.7254	1.12834
	도대불	5.8523	.82406	4.0381	.33752	4.8653	1.09091
	원담	5.6136	.61461	3.2286	.50492	4.3161	1.31442
	소금빌레	4.6364	1.03036	2.5333	.88868	3.4922	1.41833
종교 신앙	산담	5.9091	1.01298	3.8476	.36111	4.7876	1.26304
	고인돌	4.3295	1.04740	2.4952	.84494	3.3316	1.31255
	방사탑	5.6818	.59780	4.0381	.19234	4.7876	.92503
	본향당	4.0795	.68181	4.0000	.27735	4.0363	.50387
	돌하르방	6.0341	.68563	4.0000	.39223	4.9275	1.15241
	미륵불	3.9432	.91423	3.2286	.57608	3.5544	.82815
군사 방어	동자석	4.7614	.66080	3.1905	.55635	3.9067	.99037
	연대	4.1818	.75117	3.0381	.58710	3.5596	.87668
	진·현성	4.2273	.67342	3.8476	.45533	4.0207	.59476
	환해장성	6.5000	.77311	3.1905	.48229	4.6995	1.76861

라. 완전성 측면

내국인은 완전성 측면(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에서 선호경관자원을 돌하르방>밭담>환해장성 순으로 평가하였으며, 중국인은 용천대·미륵불>봉천수>본향당 순으로 경관적으로 선호함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지 않는 자원으로는 내국인의 경우 미륵불>고인돌>듬돌 순으로 평가하였고, 중국인의 경우 통싯담>축담>듬돌·소금빌레>고인돌 순으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돌하르방>밭담>용천대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6] 완전성 측면에서의 선호도 분석

자원 구분		내국인		중국인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주거	정주석	5.0568	.80741	3.7333	.52379	4.3368	.93850
	축담	4.3295	.85395	2.4190	.74396	3.2902	1.24112
	올담	4.8750	.78510	3.6952	.66685	4.2332	.93125
	통싯담	3.4432	1.17305	2.1905	.48229	2.7617	1.06809
	올렛담	4.1591	.88261	3.9238	.38469	4.0311	.66854
	용천대	5.4318	.73961	4.0381	.19234	4.6736	.86733
	봉천수	4.3977	1.01188	4.0000	.27735	4.1813	.73829
	듬돌	3.3977	.91651	2.4190	.74396	2.8653	.95878
농·축 산업	밭담	6.3636	.94907	3.8857	.50601	5.0155	1.44149
	우영담	3.6477	.89750	3.8095	.55635	3.7358	.73429
	갯성	4.2614	.51404	3.8476	.45533	4.0363	.52414
어업	불턱	4.7614	1.09328	2.5333	.93095	3.5492	1.49962
	인공포구	5.6250	.61237	3.0762	.47425	4.2383	1.38262
	도대불	5.5000	.99424	3.9238	.38469	4.6425	1.07124
	원담	5.3750	.95065	3.1905	.55635	4.1865	1.32933
	소금빌레	4.8068	.93290	2.4190	.88558	3.5078	1.49694
종교 신앙	산담	5.4545	.75672	3.8095	.68071	4.5596	1.08868
	고인돌	3.1818	1.21811	2.4571	.84385	2.7876	1.09042
	방사탑	5.3636	.97299	3.9238	.47425	4.5803	1.03331
	본향당	4.2386	.69471	3.9619	.43686	4.0881	.58409
	돌하르방	6.5795	.88046	3.8857	.57703	5.1140	1.53007
	미륵불	2.4318	1.01478	4.0381	.33752	3.3057	1.08244
	동자석	4.8295	.93737	3.2667	.59269	3.9793	1.09430
군사 방어	연대	3.9886	.82343	3.2286	.57608	3.5751	.79438
	진·현성	3.4432	.65842	3.7714	.69693	3.6218	.69742
	환해장성	5.7273	.79838	3.1143	.64023	4.3057	1.48773

③ 한·중 시각적 선호도 차이 검증

연구 대상인 26종류의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한 표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즉, 한국과 중국인 간의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각각 표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인의 발담에 대한 평균 선호도는 6.75로 측정되었고 중국인의 평균 선호도는 3.96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집단의 각각의 선호도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수준이 .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의 발담에 대한 총 선호도와 중국인의 총선호도는 서로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발담에 이어 돌하르방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면 한국인의 돌하르방에 대한 평균 선호도는 6.14로 측정되었고 중국인의 평균 선호도는 4.05로 조사되었다. 이 두 집단의 각각의 선호도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수준이 .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의 돌하르방에 대한 총 선호도와 중국인의 총선호도는 서로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한·중인이 가장 선호하는 돌문화자원인 발담과 돌하르방의 대한 한·중인의 선호도는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67은 발담과 돌하르방에 대한 한·중인의 차이에 따른 발담과 돌하르방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에 대한 결과이다.

[표 67] 한중인의 차이에 따른 발담과 돌하르방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한국 (n=88)	중국 (n=105)	한국 (n=88)	중국 (n=105)		
발담총선호도	6.75	3.96	.51	.36	44.22	.000
돌하르방총선호도	6.14	4.05	1.03	.35	19.48	.000

*p<.05, **p<.01, ***p<.001

4) 소결

한·중인을 대상으로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한 경관선호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자원에 대해 내국인은 발담을 선택하였고 중국인은 돌하르방으로 평가하여 종합적으로는 발담이 가장 높은 경관 선호도를 보였으며, 반면 선호도가 가장 낮은 자원으로 내국인은 들돌을 선택하였고 중국인은 통싯담을 선택하였으며 종합적으로는 들돌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에서 내국인의 경우 용천대를 가장 선호하였고 중국인의 경우는 돌하르방을 선택하여 종합적으로 돌하르방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v) 측면에서 내국인의 경우 발담을 가장 선호하였고 중국인의 경우는 봉천수, 본향당을 선택하여 종합적으로 발담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정성 측면에서 내국인의 경우 환해장성을 가장 선호하였고 중국인의 경우는 도대불, 방사탑을 선택하여 종합적으로 발담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완전성 측면에서 내국인의 경우 돌하르방을 가장 선호하였고 중국인의 경우는 용천대, 미륵불을 선택하여 종합적으로 돌하르방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가장 비선호하는 경관 자원으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에서는 들돌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 (v) 측면에서는 미륵불이, 진정성 측면에서는 고인돌로 조사되었으며 완전성 측면에서는 통싯담이 가장 선호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표 68] 총제적 선호도 측면의 경관자원

구분		선호 1	선호 2	선호 3
선호도가 높은 경관자원	한	발담	인공포구	용천대
	중	돌하르방	발담	본향당
	종합	발담	돌하르방	방사탑
선호도가 낮은 경관자원	한	들돌	본향당	미륵불
	중	통싯담	소금빌레	불턱
	종합	들돌	미륵불	봉천수

아래 표 69는 평가기준별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자원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69] 평가기준별 높은 선호도의 경관자원

구분		선호 1	선호 2	선호 3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한	용천대	돌하르방	발담
	중	돌하르방	올렛담	방사탑, 본향당
	종합	돌하르방	방사탑	발담
탁월한 보편적 가치 (v)	한	발담	환해장성	용천대
	중	봉천수, 본향당	축담	울담, 인공포구
	종합	발담	인공포구	환해장성
진정성	한	환해장성	발담	용천대
	중	도대불, 방사탑	본향당, 돌하르방	올렛담, 발담, 인공포구
	종합	발담	돌하르방	도대불
완전성	한	돌하르방	발담	환해장성
	중	용천대, 미륵불	봉천수	본향당
	종합	돌하르방	발담	용천대

아래 표 70은 평가기준별 선호도가 가장 낮은 자원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70] 평가기준별 측면의 낮은 선호도의 경관자원

구분		선호 1	선호 2	선호 3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한	듬돌	미륵불	축담
	중	통싯담	우영담	소금빌레
	종합	듬돌	우영담	봉천수
탁월한 보편적 가치 (v)	한	미륵불	본향당	듬돌
	중	소금빌레	산담	고인돌, 미륵불, 동자석
	종합	미륵불	듬돌	고인돌
진정성	한	듬돌	미륵불	본향당
	중	불턱	고인돌	소금빌레
	종합	고인돌	듬돌	소금빌레
완전성	한	미륵불	고인돌	듬돌
	중	통싯담	축담, 듄돌, 소금빌레	고인돌
	종합	통싯담	고인돌	듬돌

3. 대표자원 도출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

본 단계에서는 제주 돌문화자원의 가치 및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양적자료의 동시 분석이 가능한 계층적 분석 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이용하였다. 이는 의사결정에 있어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중요도를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계량화의 곤란 및 애매한 상황 하(下)에서의 의사 결정에 있어 유용한 의사결정지원기법의 하나이다.

이 기법은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기준과 하위 대안으로 계층구조를 설정 한 후, 평가 기준과 대안에 포함된 세부 항목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그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주도가 지닌 돌문화자원의 중요도를 검토하기 위해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에서 문화유산 기준 6개를 중심으로 제주 돌문화자원과 가장 관련성이 깊은 기준(iii_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과 (v_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그리고 진정성(Authenticity)과 공통적 적용기준인 완전성(Integrity)을 중심으로 쌍대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다음 평가된 상대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각 기준별 제주돌문화자원 26개의 중요도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등재기준(iii),(v)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자와 조경학 및 관련 박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 6명에게 문화유산 관련 등재기준 개념과 절차를 먼저 이해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등재기준 (iii), (v)를 추출하였다.

AHP는 전문가집단 조사로서 설문지의 표본은 조경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전공 등의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내 전문가 15명과 중국 전문가 12명 총 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세계적 입장에서 보편적 가치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모집단의 선정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로 설정하였으나 외국 전문가의 설문조사에 대한 한계로 인해 그 표본을 중국 전문가로 최종 설정하였다.

제주도는 현재 많은 관광객들로 방문객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관광객이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면에 환경적 측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모집단의 선정의 중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의 돌문화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자원 보전에 관해 바람직한 방향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는바, 이에 앞서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문화자원 관리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chy Process: AHP)의 계층구조 설정

본 단계에서는 질적·양적자료의 동시 분석이 가능한 계층적분석과정(AHP)을 이용하였다. 이는 의사결정에 있어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중요도를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계량화의 곤란 및 애매한 상황 하(下)에서의 의사 결정에 있어 유용한 의사결정지원기법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친다.

<1단계> 의사결정 문제의 구조(계층)화 (Hierarchy of Decision Problem)

본 단계에서는 문제의 각 요인을 최종적 목표, 평가의 기준, 대체안으로 구분하여 문제 정의 및 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계층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작업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 그 목적이 최상층에서 설정되고, 그 하위 단계에서 서로 비교 가능하며 의사결정의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며 마지막 최하 계층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의사결정 대안들로 구성된다.¹⁾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적 모형이 구성되며, 그 모형 안에는 문제의 핵심적 요소와 그들 간의 관계가 표현된다.

1단계	의사결정문제와 계층화 (Hierarchy of Decision Problem)
2단계	평가기준의 비교 (Pairwise Comparison of Decision Element)
3단계	가중 값의 추정 (Estimation of Relative Weights)
4단계	가중 값의 종합 (Aggregation of Relative Weights)

그림 11. AHP 분석 과정

본 연구에서는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를 조사하고자 그림11과 같이 계층화 구조를 설정하였다.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로서 돌문화자원을 평가하도록 계층을 구조화하였다.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서 중요도 평가 기준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에서 도출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라 한다)를 내포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에 어떠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일정 국가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평가를 위해 10개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6가지(i ~ vi)는 문화유산에 관한 기준이며 4가지(vii ~ x)는 자연유산에 관한 기준이다. 그리고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통적으로 완전성(Integrity)과 보호 및 관리 체계가 반드시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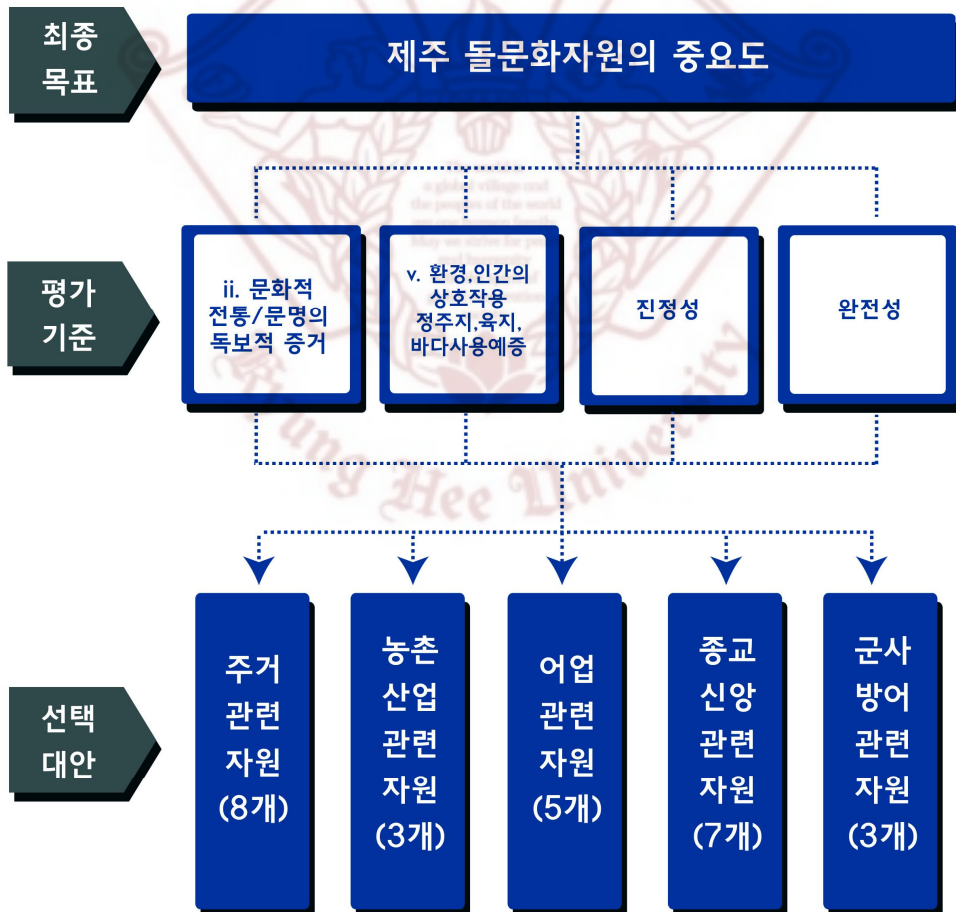


그림 12.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 평가에 대한 계층구조

이에 돌문화자원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시 필요한 등재기준인 기준(i)~(vi)중 제주 돌문화자원과 가장 관련성이 깊은 『(iii)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과 (v)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진정성과 공통적 요인인 완전성』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양한 돌자원들을 선택적 대안으로 선정하여 그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계층을 구성하였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서 탁월한 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여 진정성은 어떠한 유산이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완전성은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표 71] 제주 돌문화자원의 평가 기준 도출

돌문화자원의 중요도에 관한 평가 기준		
문화유산	1.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2.	탁월한 보편적 가치(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3.	진정성(Authenticity):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공통	4.	완전성(Integrity):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에서 관련 기준 도출)

<2단계> 평가기준의 쌍별비교 (Pairwise Comparison of Decision Element)

본 단계는 일반적으로 평가기준과 대체안의 중요도를 평가하며 쌍대비교법이 이용되는데 이는 비교항목이 복수 일 경우 임의의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양자의 상대적 비교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렇듯 쌍대비교 방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복수의 기준을 평가할 시에 동시에 모든 기준을 비교하지 않고 쌍으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즉 평가기준과 대안을 계층적 구조로 파악하여 최적 대

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9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 기준에 대한 쌍대비교법을 실시하였으며, 아래 표는 4가지의 평가기준 또는 대체안을 평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보통 자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쌍대비교법을 사용하여 비교할 경우 자원항목이 많을 시에는 쌍대조사표가 또한 많아져 응답결과가 일관성을 보장할 가능성이 낮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기준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v), 진정성, 완전성의 네 가지 항목은 쌍대비교를 실시하였고, 각각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선택대안들의 중요도는 5점 척도의 절대비교법을 사용하여 대안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표 72] 쌍대 비교표

비교항목	OUV(iii)	OUV(v)	진정성	완전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1	5	...	...
탁월한 보편적 가치(v)	1/5	1	...	...
진정성(Authenticity)	...	...	1	...
완전성(Integrity)	...	...	...	1

<3단계> 상대적 가중치(값)의 추정 (Estimation of Relative Weights)

이 단계에서는 Thomas L. Saaty의 가중치 계산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값)를 도출한다.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과 일관성지수(*CI*: Consistency Index)를 사용하여 쌍대비교에 통해 가중치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토 한다.³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Thomas L. Saaty(1995)³⁴⁾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일관성 비율(*CR*)이 0.1(10%)이하에 해당하는 설문 응답자들의 결과는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일관성비율이 0.1을 초과한 나머지는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일관성 비율이 낮은 6명을 제외한 27명의 조사결과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33) 일관성지수(*CI*)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측정된다. ($CI = \frac{\lambda_{\max} - N}{N - 1}$), 이러한 방법에 의해 쌍대비교 행렬이 완벽한 일관성을 보이는 경우 0이 되며 이러한 일관성은 낮을수록 큰 값을 가진다. 그리고 일관성비율($CR = \frac{CI}{R}$)로 측정된다. 이는 쌍대비교행렬의 *CI* 을 계산하여 무작위일관성지수(*R*)로 나눈 값이다.

34) Saaty, T. L., 「Desision Making for Leaders」, 1995 / 조근태·홍순욱·권철신 역, 「리더를 위한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2000.

[표 73] 응답자 현황

구분	전체 응답자	제외	실제 활용	계
한국	16	1	15	27
중국	17	5	12	

<4단계> 각 계층의 상대적 가중치(값)의 종합(Aggregation of Relative Weights)

마지막 인 본 단계는 3단계의 구한 각 평가기준의 가중치와 대체안의 가중치를 곱하는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값)를 종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얻고자 했던 복수의 평가대상이 되는 대안들에 대한 최종적인 종합순위를 도출하였다.



2) 평가기준의 중요도 분석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를 평가에 앞서, 먼저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에서 돌문화자원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도출한 등재 기준인 (iii)문화적 전통이나 독보적 증거, (v)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및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 진정성, 완전성에 대한 중요도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돌문화경관의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는 먼저 국내 전문가의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가 46%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완전성 25%, 진정성 22%, 보편적 가치(v)가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문가의 경우 보편적 가치(iii)가 43%, 완전성 31%, 진정성 17%, 보편적 가치(v)가 9%로 평가되었다.

한·중 전문가는 평가 기준의 중요도에 관해서 서로 같은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차이점은 한국 전문가는 완전성과 진정성을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반면, 중국 전문가는 진정성에 비해 완전성을 약 2배 정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완전성의 기준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4] 돌문화경관에 대한 평가기준의 중요도에 관한 쌍대비교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탁월한 보편적 가치(ⅴ)	진정성	완전성	가중치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1.00	5.14*	2.16*	2.03*	0.46*
		4.56**	2.40**	1.57*	0.43**
탁월한 보편적 가치(ⅴ)		1.00	0.33*	0.28*	0.08*
			0.53**	0.28**	0.09**
진정성			1.00	0.88*	0.22*
				0.49**	0.17**
완전성				1.00	0.25*
					0.31**
CR	0.01*				
	0.00**				

한국전문가*

중국전문가**

3) 평가기준별 돌문화자원의 우선순위 분석

① 국내 전문가 조사

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

먼저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의 측면에서는 국내 전문가의 경우 발담>돌하르방>산담>환해장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봉천수와 듄돌은 낮은 점수를 보여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75]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의 절대비교

제주 돌문화경관 관련 자원			자원의 중요 정도					가중치 (1)	우선 순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주거 (住居)	정주석		0	0	7	8	0	0.043	
	집 담	축담	1	14	0	0	0	0.023	
		울담	1	14	0	0	0	0.023	
		통잇담	8	6	1	0	0	0.017	
	올렛담		0	0	7	8	0	0.043	
	용천대		0	0	2	12	1	0.048	
	봉천수		13	1	1	0	0	0.014	
	듄돌		15	0	0	0	0	0.012	
농·축 산업	발담		0	0	0	0	15	0.061	1
	우영담		0	15	0	0	0	0.025	
	갯성(갯담)		0	6	2	7	0	0.036	
어업	불턱		0	0	6	9	0	0.044	
	해안 인공포구		0	0	7	8	0	0.043	
	도대불(등명대)		0	0	2	12	1	0.048	
	원담(갯담)		0	0	8	7	0	0.042	
	소금빌레		0	6	9	0	0	0.031	
종교 신앙	산담		0	0	0	6	9	0.056	3
	고인돌		0	0	15	0	0	0.037	
	방사담(돌담)		0	0	0	13	2	0.050	5
	본향당(산당)		1	7	6	1	0	0.029	
	석 상	돌하르방	0	0	0	3	12	0.059	2
		미륵불	0	1	14	0	0	0.036	
		동자석	0	0	2	13	0	0.047	
군사 방어	연대		0	0	2	11	2	0.049	
	성 담	진·현성(육지)	0	7	8	0	0	0.030	
		환해장성(해안)	0	0	3	1	11	0.054	4

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v) 측면

보편적 가치(v)의 측면에서는 국내전문가의 경우 발담>환해장성>인공포구>방사탑·불턱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봉천수, 듬돌, 고인돌, 미륵불 등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었다.

[표 76] 탁월한 보편적 가치(v) 측면의 절대비교

제주 돌문화경관 관련 자원			자원의 중요 정도					가중치 (1)	우선 순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주거 (住居)	정주석		0	15	0	0	0	0.029	
	집 담	축담	0	15	0	0	0	0.029	
		울담	0	15	0	0	0	0.029	
		둥싯담	0	15	0	0	0	0.029	
	올렛담		0	1	14	0	0	0.042	
	용천대		0	0	0	13	2	0.059	4
	봉천수		12	1	2	0	0	0.017	
	듬돌		15	0	0	0	0	0.014	
농·축 산업	발담		0	0	0	1	14	0.071	1
	우영담		1	14	0	0	0	0.027	
	갯성(갯담)		0	0	14	1	0	0.044	
어업	불턱		0	0	0	15	0	0.058	5
	해안 인공포구		0	0	0	6	9	0.066	3
	도대불(등명대)		0	0	12	3	0	0.046	
	원담(갯담)		0	0	12	3	0	0.046	
	소금빌레		0	0	15	0	0	0.043	
종교 신앙	산담		0	0	13	2	0	0.045	
	고인돌		15	0	0	0	0	0.014	
	방사탑(돌탑)		0	0	0	15	0	0.058	4
	본향당(산당)		15	0	0	0	0	0.014	
	석 상	돌하르방	15	0	0	0	0	0.014	
		미륵불	15	0	0	0	0	0.014	
		동자석	0	15	0	0	0	0.029	
	연대		0	0	6	9	0	0.051	6
군사 방어	성 담	진·현성(육지)	0	0	15	0	0	0.043	
		환해장성(해안)	0	0	1	2	12	0.068	2

다. 진정성 측면

진정성 측면에서는 국내 전문가의 경우 발담·산담>돌하르방>환해장성>용천대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반면 듬돌과 본향당 등은 아주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진정성 측면의 절대비교

제주 돌문화경관 관련 자원			자원의 중요 정도					가중치 (1)	우선 순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주거 (住居)	정주석		0	0	0	14	1	0.045	
	집 담	죽담	0	0	15	0	0	0.033	
		울담	0	0	15	0	0	0.033	
		통싯담	1	8	6	0	0	0.025	
	올렛담		0	0	0	15	0	0.044	
	용천대		0	0	0	7	8	0.050	3
	봉천수		0	7	8	0	0	0.027	
	듬돌		15	0	0	0	0	0.011	
농·축 산업	발담		0	0	0	1	14	0.054	1
	우영담		0	15	0	0	0	0.022	
	갯성(갯담)		0	0	1	14	0	0.043	
어업	불턱		0	0	0	14	1	0.045	
	해안 인공포구		0	0	6	8	1	0.040	
	도대불(등명대)		0	0	6	9	0	0.039	
	원담(갯담)		0	0	15	0	0	0.033	
	소금빌레		0	0	15	0	0	0.033	
종교 신앙	산담		0	0	0	2	13	0.054	1
	고인돌		0	0	1	14	0	0.043	
	방사담(돌담)		0	0	0	15	0	0.044	
	본향당(산당)		1	14	0	0	0	0.021	
	석 상	돌하르방	0	0	0	3	12	0.053	2
		미륵불	0	0	15	0	0	0.033	
		동자석	0	0	0	15	0	0.044	
군사 방어	연대		0	0	0	13	2	0.045	
	성 담	진·현성(육지)	0	0	15	0	0	0.033	
		환해장성(해안)	0	0	2	1	12	0.051	3

라. 완전성 측면

완전성 측면에서는 국내 전문가의 경우 발담>돌하르방>산담>환해장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듬돌, 고인돌, 통싯담은 낮게 평가되었다.

[표 78] 완전성 측면의 절대비교

제주 돌문화경관 관련 자원			자원의 중요 정도					가중치 (1)	우선 순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주거 (住居)	정주석		0	9	6	0	0	0.030	
	집 담	축담	0	15	0	0	0	0.026	
		울담	0	15	0	0	0	0.026	
		통싯담	15	0	0	0	0	0.013	
		울랫담	0	0	7	8	0	0.045	
	용천대		0	0	2	12	1	0.051	6
	봉천수		6	9	0	0	0	0.020	
	듬돌		15	0	0	0	0	0.013	
농·축 산업	발담		0	0	0	0	15	0.065	1
	우영담		0	15	0	0	0	0.026	
	갯성(갯담)		0	0	15	0	0	0.039	
어업	불턱		0	0	4	11	0	0.048	
	해안 인공포구		0	0	3	11	1	0.050	7
	도대불(등명대)		0	0	8	7	0	0.044	
	월담(갯담)		0	0	15	0	0	0.039	
	소금밀레		0	0	15	0	0	0.039	
종교 신앙	산담		0	0	0	8	7	0.057	3
	고인돌		0	15	0	0	0	0.026	
	방사담(돌담)		0	0	0	14	1	0.052	5
	본향당(산당)		0	15	0	0	0	0.026	
	석 상	돌하르방	0	0	0	3	12	0.062	2
		미륵불	15	0	0	0	0	0.013	
		동자석	0	0	1	14	0	0.051	6
군사 방어	연대		0	0	3	12	0	0.049	
	성 담	진·현성(육지)	0	0	15	0	0	0.039	
		환해장성(해안)	0	0	0	13	2	0.053	4

② 중국 전문가 조사

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

먼저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의 측면에서 중국 전문가는 발담>산담·돌하르방>용천대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봉천수와 덩돌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표 79]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의 절대비교

제주 돌문화경관 관련 자원			자원의 중요 정도					가중치 (1)	우선 순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주거 (住居)	정주석		0	0	4	8	0	0.049	
	집 담	축담	0	5	7	0	0	0.034	
		울담	0	5	7	0	0	0.034	
		통식담	0	5	7	0	0	0.034	
	올렛담		0	4	8	0	0	0.035	
	용천대		0	0	0	10	2	0.056	3
	봉천수		7	5	0	0	0	0.018	
	덩돌		9	0	3	0	0	0.018	
농·축 산업	발담		0	0	0	0	12	0.067	1
	우영담		0	0	11	1	0	0.041	
	갯성(갯담)		0	0	3	9	0	0.050	5
어업	물터		0	0	4	8	0	0.049	
	해안 인공포구		2	7	3	0	0	0.026	
	도대불(등명대)		0	0	12	0	0	0.024	
	원담(갯담)		2	10	0	0	0	0.024	
	소금빌레		0	0	12	0	0	0.040	
종교 신앙	산담		0	0	0	6	6	0.060	2
	고인돌		6	6	0	0	0	0.019	
	방사담(돌담)		0	0	0	12	0	0.054	4
	본향당(산당)		5	7	0	0	0	0.020	
	석 상	돌하르방	0	0	0	6	6	0.060	2
		미륵불	0	12	0	0	0	0.027	
		동자석	0	0	0	12	0	0.054	4
군사 방어	연대		0	0	12	0	0	0.040	
	성 담	진·현성(육지)	0	12	0	0	0	0.027	
		환해장성(해안)	0	6	0	4	2	0.039	

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v) 측면

보편적 가치(v)의 측면에서 중국 전문가는 발담>환해장성>인공포구>방사탑·갯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덩돌과 통싯담이 중요하지 않는 자원으로 평가 되었다.

[표 80] 탁월한 보편적 가치(v) 측면의 절대비교

제주 돌문화경관 관련 자원			자원의 중요 정도					가중치 (1)	우선 순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주거 (住居)	정주석		0	8	4	0	0	0.031	
	집 담	축담	2	10	0	0	0	0.025	
		울담	2	7	3	0	0	0.027	
		통싯담	4	5	3	0	0	0.024	
	올렛담		2	7	3	0	0	0.027	
	용천대		0	5	5	2	0	0.037	
	봉천수		2	2	8	0	0	0.032	
	덩돌		3	9	0	0	0	0.023	
농·축 산업	발담		0	0	0	0	12	0.069	1
	우영담		0	0	12	0	0	0.041	
	갯성(갯담)		0	0	0	12	0	0.055	4
어업	불턱		0	12	0	0	0	0.028	
	해안 인공포구		0	0	0	7	5	0.060	3
	도대불(등명대)		0	0	0	12	0	0.055	
	원담(갯담)		0	0	10	2	0	0.043	
	소금밀레		0	5	5	2	0	0.037	
종교 신앙	산담		0	0	6	6	0	0.048	
	고인돌		2	10	0	0	0	0.028	
	방사탑(돌탑)		0	0	0	12	0	0.055	4
	본향당(산당)		0	0	12	0	0	0.041	
	석 상	돌하르방	0	12	0	0	0	0.028	
		미륵불	2	10	0	0	0	0.025	
		동자석	0	0	11	1	0	0.042	
군사 방어	연대		0	8	4	0	0	0.031	
	성 담	진·현성(육지)	0	12	0	0	0	0.028	
		환해장성(해안)	0	0	0	6	6	0.061	2

다. 진정성 측면

진정성 측면에서도 역시 중국 전문가는 발담·돌하르방>산담>용천대의 순으로 중요 자원을 평가하였으며, 돌돌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표 81] 진정성 측면의 절대비교

제주 돌문화경관 관련 자원			자원의 중요 정도					가중치 (1)	우선 순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주거 (住居)	정주석		0	2	10	0	0	0.037	
	집 담	축담	0	8	4	0	0	0.031	
		울담	0	8	4	0	0	0.031	
		통잇담	2	6	4	0	0	0.027	
	올렛담		0	4	8	0	0	0.035	
	용천대		0	0	0	10	2	0.055	3
	봉천수		6	6	0	0	0	0.019	
	뜸돌		8	4	0	0	0	0.017	
농·축 산업	발담		0	0	0	0	12	0.067	1
	우영담		0	0	3	9	0	0.050	
	갯성(갯담)		0	0	10	2	0	0.042	
어업	불턱		0	6	6	0	0	0.033	
	해안 인공포구		2	10	0	0	0	0.024	
	도대불(등명대)		0	0	0	12	0	0.053	4
	원담(갯담)		0	6	6	0	0	0.033	
	소금빌레		0	12	0	0	0	0.027	
종교 신앙	산담		0	0	12	0	0	0.040	
	고인돌		0	12	0	0	0	0.027	
	방사탑(돌탑)		0	0	2	10	0	0.051	5
	본향당(산당)		0	12	0	0	0	0.027	
	석 상	돌하르방	0	0	0	0	12	0.067	1
		미륵불	0	12	0	0	0	0.027	
		동자석	0	0	0	10	2	0.055	3
군사 방어	연대		0	0	12	0	0	0.040	
	성 담	진·현성(육지)	0	6	6	0	0	0.033	
		환해장성(해안)	0	0	0	9	3	0.056	2

라. 완전성 측면

완전성 측면에서 중국 전문가는 발담·돌하르방>산담·용천대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돌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표 82] 완전성 측면의 절대비교

제주 돌문화경관 관련 자원			자원의 중요 정도					가중치 (1)	우선 순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주거 (住居)	정주석		0	2	5	5	0	0.040	
	집 담	축담	0	2	7	3	0	0.038	
		울담	0	2	7	3	0	0.038	
		통식담	0	12	0	0	0	0.025	
	울렛담		0	0	0	12	0	0.050	4
	용천대		0	0	0	10	2	0.052	3
	봉천수		6	2	4	0	0	0.020	
	돌돌		12	0	0	0	0	0.013	
농·축 산업	발담		0	0	0	0	12	0.063	1
	우영담		0	4	8	0	0	0.033	
	갯성(갯담)		0	0	0	12	0	0.050	4
어업	불턱		0	12	0	0	0	0.025	
	해안 인공포구		0	0	2	10	0	0.048	
	도대불(등명대)		0	0	5	7	0	0.045	
	원담(갯담)		0	4	8	0	0	0.033	
	소금빌레		0	2	10	0	0	0.035	
종교 신앙	산담		0	0	0	10	2	0.052	3
	고인돌		4	8	0	0	0	0.020	
	방사탑(돌탑)		0	8	2	2	0	0.030	
	본향당(산당)		4	8	0	0	0	0.020	
	석 상	돌하르방	0	0	0	0	12	0.063	1
		미륵불	0	12	0	0	0	0.025	
		동자석	0	0	0	12	0	0.050	4
군사 방어	연대		0	0	6	6	0	0.044	
	성 담	진·현성(육지)	0	4	8	0	0	0.033	
		환해장성(해안)	0	0	0	9	3	0.053	2

③ 소결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에서는 양국의 전문가가 발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돌하르방과 산담 역시 중요 경관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는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의 기준으로 한중 양국의 전문가는 발담을 제주 역사와 전통에 있어 분명한 문화·생활적 증거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근거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v) 측면에서는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의 기준으로 양국 전문가는 발담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돌하르방과 산담을 공통적으로 중요 경관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진정성 측면에서 진정성이란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원래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전문가의 경우 발담과 산담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전문가는 발담과 돌하르방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다른 기준과는 달리 진정성의 측면에서는 양국의 전문가가 모두 발담 이외에 산담과 돌하르방을 발담과 동등한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주 돌문화자원은 진정성 측면에서는 다른 기준에 비해 중요정도가 비슷한 수준의 자원이 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전성이란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전문가의 경우 발담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국 전문가는 발담과 돌하르방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완전성의 측면에서는 양국 전문가가 발담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발담이 제주 전역에 걸쳐 ‘흑룡만리’라고 불릴 정도의 면적 분포와 더불어 가치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완전성 측면에서 발담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를 AHP평가에 의해 도출해 본 결과 각 기준별 자원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 할 수 있다.

우선, 제주 돌문화자원으로 평가 기준별로 발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양국의 전문가는 인식하고 있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v)측면에서는 양국의 전문가 모두 발담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진정성 측면에서는 국내 전문가는 발담과 산담, 중국 전문가는 발담과 돌하르방을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완전성 측면에서 중국 전문가는 발담과 돌하르방을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국내 전문가는 발담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탁월한 보편적가치(v) 기준에서 발담의 대한 중요 가중치가 한·중 양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준(v)에서는 타 자원에 비해 발담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음을 말해 준다.

[표 83] 평가 기준별 중요자원

평가 기준		중요 등급					가중치 (1)	가장 중요한 자원
		1	2	3	4	5		
OUV(iii)	한국	0	0	0	0	15	0.061	발담
	중국	0	0	0	0	12	0.067	발담
OUV(v)	한국	0	0	0	1	14	0.071	발담
	중국	0	0	0	0	12	0.069	발담
진정성	한국	0	0	0	1	14	0.054	발담
		0	0	0	2	13	0.054	산담
	중국	0	0	0	0	12	0.067	발담
		0	0	0	0	12	0.067	돌하르방
완전성	한국	0	0	0	0	15	0.065	발담
	중국	0	0	0	0	12	0.063	발담
		0	0	0	0	12	0.063	돌하르방

4) 종합 분석

① 국내 전문가 조사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한 국내 전문가 조사의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돌문화경관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앞서 자원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하여 쌍대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평가기준 설정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준 중 제주 돌문화자원과 관련성이 깊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v), 진정성, 완전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국내 전문가는 전체 가중치 1을 기준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에 0.455, 완전성에 0.250, 진정성에 0.220, 탁월한 보편적가치(v)에 0.076의 순으로 인식하여 탁월한 보편적가치(iii)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전체 자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전체가중치 1을 기준으로 발담이 0.061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산담과 돌하르방이 0.055, 그리고 환해장성, 용천대·방사탑 순으로 우선순위가 평가되었다. 종교·신앙 관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자원의 분포가 많았으며, 어업관련 자원은 전체 중요도에서 중요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 자원은 듬돌로 나타났으며 그 외 통싯담, 봉천수 또한 낮게 평가 되었다.

[표 84] 제주 돌문화경관의 중요도관한 종합 평가

구분		기준(iii)	기준(v)	진정성	완전성	전체 가중치	우선 순위
		0.455446	0.076788	0.220238	0.25	1	
주거	정주식	0.042845	0.028798	0.045	0.030412	0.039	
	집담	축담	0.023394	0.028798	0.033	0.025859	0.027
		울담	0.023394	0.028798	0.033	0.025859	0.027
		통싯담	0.017392	0.028798	0.025	0.012929	0.019
	올렛담	0.042845	0.042045	0.044	0.045221	0.044	
	용천대	0.047863	0.059335	0.050	0.050517	0.050	4
	봉천수	0.013804	0.017458	0.027	0.019597	0.019	
	듬돌	0.012250	0.014399	0.011	0.012929	0.012	
농·축 산업	발담	0.061251	0.070932	0.054	0.064647	0.061	1
	우영담	0.024500	0.027497	0.022	0.025859	0.025	
	잣성	0.035738	0.044033	0.043	0.038788	0.039	

어업	불턱		0.043674	0.057596	0.045	0.047899	0.046	
	인공포구		0.042845	0.065847	0.040	0.049558	0.046	
	도대불		0.047863	0.045755	0.039	0.044361	0.045	
	원담		0.042031	0.045755	0.033	0.038788	0.040	
	소금빌레		0.031248	0.043197	0.033	0.038788	0.034	
종교 신앙	산담		0.056021	0.044886	0.054	0.057394	0.055	2
	고인돌		0.036750	0.014399	0.043	0.025859	0.034	
	방사탑		0.050480	0.057596	0.044	0.052493	0.050	4
	본향당		0.028814	0.014399	0.021	0.025859	0.025	
	석 상	돌하르방	0.058577	0.014399	0.053	0.061825	0.055	2
		미륵불	0.035770	0.014399	0.033	0.012929	0.028	
		동자석	0.047157	0.028798	0.044	0.050735	0.046	
군사 방어	연대		0.048581	0.051335	0.045	0.048826	0.048	
	성 담	진·현성	0.030415	0.043197	0.033	0.038788	0.034	
		환해장성	0.054486	0.067544	0.051	0.05328	0.054	3

② 중국 전문가 조사

중국 전문가의 경우, 전체 가중치 1을 기준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에 0.431, 완전성에 0.310, 진정성에 0.166, 탁월한 보편적 가치(v)에 0.089의 순으로 인식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내 전문가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 자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는 전체가중치 1을 기준으로 발단이 0.066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돌하르방이 0.059, 그리고 용천대·산담이 0.053, 동자석이 0.052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역시 종교·신앙적 관련 중요도가 높은 자원의 분포가 많은 반면, 어업관련 자원은 전체 중요도에서 중요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 자원은 듄돌로 나타났으며 그 외 봉천수, 고인돌, 본향당 등도 낮게 평가 되었다.

[표 85] 제주 돌문화경관의 중요도에 관한 종합 평가

구분		기준(iii)	기준(v)	진정성	완전성	전체 가중치	우선 순위
		0.431459	0.089590	0.166888	0.31	1	
주거	정주석	0.048836	0.031481	0.037	0.039808	0.043	
	집 담	축담	0.034047	0.024501	0.031	0.037945	0.034
		울담	0.034047	0.027115	0.031	0.037945	0.034
		통식담	0.034047	0.024157	0.027	0.025187	0.029
	울렛담	0.035217	0.027115	0.035	0.050374	0.039	
	용천대	0.055788	0.036551	0.055	0.052282	0.053	3
	봉천수	0.017937	0.032106	0.019	0.020387	0.020	
	듬돌	0.017685	0.023126	0.017	0.012593	0.016	
농·축 산업	밭담	0.067190	0.068755	0.067	0.062967	0.066	1
	우영담	0.041292	0.041253	0.050	0.033004	0.040	
	жат성	0.050021	0.055004	0.042	0.050374	0.049	
어업	불턱	0.048836	0.027502	0.033	0.025187	0.037	
	인공포구	0.026498	0.060363	0.024	0.048015	0.036	
	도대불	0.023943	0.055004	0.053	0.044683	0.038	
	원담	0.023943	0.043279	0.033	0.033004	0.030	
	소금빌레	0.040314	0.036551	0.027	0.035312	0.036	
종교 신앙	산담	0.060096	0.047634	0.040	0.052282	0.053	3
	고인돌	0.019004	0.027502	0.027	0.019991	0.021	
	방사탑	0.053752	0.055004	0.051	0.030248	0.046	
	본향당	0.020134	0.041253	0.027	0.019991	0.023	
	석 상	돌하르방	0.060096	0.027502	0.067	0.062967	0.059
		미륵불	0.026876	0.024501	0.027	0.025187	0.026
		동자석	0.053752	0.042253	0.055	0.050374	0.052
군사 방어	연대	0.040314	0.031481	0.040	0.043625	0.040	
	성 담	진·현성	0.026876	0.027502	0.033	0.033004	0.030
		환해장성	0.039448	0.061496	0.056	0.053264	0.049

5) 소결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한 한·중 전문의 중요도에 관한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돌문화경관의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는 양국 전문가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 (iii)>완전성>진정성>탁월한 보편적 가치(v)순으로 평가하였으며, 등재 기준별 자원의 중요도에 관해서는 모든 기준에서 발담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원의 중요 우선순위에 관한 종합 평가에서는 국내 전문가는 발담>산담·돌하르방>환해장성>용천대·방사탑 순으로 평가하였으며, 중국 전문가는 발담>돌하르방>용천대·산담>동자석 순으로 평가하였다.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자원으로는 한·중 전문가 모두 듄돌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현재 제주에 많이 남아 있지도 않으며 실제로 관광객이나 주민이 듄돌을 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86] 종합 평가 정리

구분		내용
평가 기준	한국 중국	탁월한 보편적가치(iii)>완전성>진정성>탁월한 보편적가치(v)
기준별 중요자원	한국 중국	발담
자원의 중요 우선순위	한국	발담> 산담·돌하르방 > 환해장성> 용천대·방사탑
	중국	발담> 돌하르방 > 용천대·산담 >동자석

최종 목표인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에 관한 결과의 종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는 한·중 양국 전문가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 (iii)의 내용인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평가기준별 자원의 중요도와 전체 종합 중요도에서도 중요 경관자원에 있어 발담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발담은 제주의 대표적 경관자원으로서 그 분포가 제주 전역에 걸쳐 있어 제주 어느 지역에서든 쉽게 발담을 볼 수 있으며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양국 전문가 모두 발담의 경관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사료된다. 제주 돌문화자원에 있어 양국의 전문가가 서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제주의 경관보호 측면에 있어 발담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발담의 관리 및 보호에 있어 특별한 강구책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4. 제주 문화경관 관리를 위한 법제 제고

제주 발담의 경관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제주 발담은 800여 년을 이어온 제주의 역사와 인간과의 관계를 그대로 관직하고 있으며, 제주를 넘어 세계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 발담의 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법제적 사항과 그 보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화경관 관련 법체계 현황

국제적으로 문화경관에 대한 법적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국제기구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러한 국제기구는 ‘문화경관’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보호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1992)’을 제정하였고, 이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화경관’을 세계유산의 일종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유럽에서는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의 유럽경관협약(2000)이 제정되어 ‘경관’이나 ‘문화적 경관’의 보호·관리를 위한 법제화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리고 이웃인 일본의 경우 2004년에 ‘경관법’의 제정과 함께 문화재보호법의 대폭 개정을 통해 경관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문화경관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재 중점보호주의로서 중요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³⁵⁾의 제정과 더불어 문화유산에 대한 점단위의 보호·관리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점적인 보호는 본연의 경관이 점차 퇴색되거나 변형되어 그 가치를 잃은 경우도 종종 있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이에 점단위의 문화재 보호체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까지 보호의 영역을 넓힌 면단위의 문화재보호 체계가 필요하게 되어 ‘전통건축물보존법’의 제정에 의해 면단위 문화재보호 정책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유산자원과 더불어 경관에 대한 제도화가 요구되었으며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문

35) 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 이를 활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 도모함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1962년 01월 10일 제정.

화적 경관’에 대한 언급이나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즉, 경관법에서는 문화경관에 대한 언급이 법령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내에서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내에서는 ‘역사문화환경지구’ 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 종합해보면 문화경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언급은 그 어떠한 법령에도 없으며 문화경관에 대한 유사 의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의 제주 문화경관에 대한 법제 제고 단계에서는 국제기구의 법체계 측면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과 유럽회의 유럽경관협약, 국내 법체계 측면에서의 경관법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분석을 통해 국내외의 문화경관 관련 법체계의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제주의 문화경관 관련 법적 체계에 대한 미비점을 도출하여 제주도의 발달 및 문화경관 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그 보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 표87은 ‘문화경관’ 관련 국내·외 관련 법령을 정리한 것이다. 국제기구의 세계유산협약(1992)과 유럽경관협약(2000)에서는 명확히 문화경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나 역사문화환경지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문화경관’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은 전무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87] 문화경관 관련 법체계 정리

구분	기구	법령	문화경관 관련 내용
국제 기구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협약(1992)	‘문화경관’ 명시
	유럽 회의 (Council of Europe)	유럽경관협약(2000)	
국외	일본(법령)	경관법 문화재보호법	
국내	법령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지구

2) 국제기구의 법체계 측면

국제기구에 있어 ‘문화경관’ 관련 법적 근거를 담은 법령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협약(1992)’과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의 유럽경관협약(2000)이 ‘경관’이나 ‘문화적 경관’의 보호·관리를 위한 법제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문화경관에 대한 내용으로 유네스코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규범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으로 1972년 유네스코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를 통해 채택되었다.

[표 88]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주요 내용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구분	개념
주요 내용	-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 및 국제적 보호 -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 국제 원조 조건
문화유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것이 "문화유산"으로 간주된다. - 기념물 : 건축물, 기념적 조각품 및 회화, 고고학적 성질을 가진 요소 또는 구조물, 비명, 동굴주거 및 조형물의 결합으로서 역사,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 건물의 집단 : 분리 또는 연결된 건물의 집단으로서 그의 건축술, 균질성 또는 풍경내의 위치로 인하여 역사,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 유적 : 인조물 또는 자연과 인공의 결합물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적, 미학적, 인종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출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이용 저자 작성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가지고 있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규범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시 문화유산의 범주에 ‘문화경관’을 포함하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으로부터 여러 원조와 더불어 관광 홍보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이러한 UNESCO 문화유산 분류에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기준이 누락되어 제정되었다. 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2년 UNESCO 제 1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관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이라 정의 하고, 이를 새로운 세계유산의 범주로 인정하였다.

본 협약에서 ‘문화경관’은 복합유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문화유산의 범주에 들어가 있어 문화경관으로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 아래 표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47조 ‘문화경관’에 대해 정의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표 89]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구분	개념
47조 원문	47. Cultural landscapes Cultural landscapes are cultural properties and represent the "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 designat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hey are illustrative of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y and settlement over ti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physical constraints and/or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eir natural environment and of successiv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orces, both external and internal.
47조 국문	47. 문화경관 문화 경관은 문화재이며,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제1조에 지정된 "인간과 자연의 공동 작품"을 나타낸다. 문화경관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물리적 제약 그리고/또는 기회와, 내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힘에 의하여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인간사회 및 정주지 진화의 예이다

출처: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이용 저자 작성

유네스코의 문화경관은 세계유산위원회(1992)에서 새로이 채택한 세계유산 범주의 하나의 목록이다. 그 내용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유산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에 대한 문화경관의 범주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의 제 47항(2013)에 명시되어 있다.

즉,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 ‘문화경관’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며 그 범주를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문화 경관은 문화재이며,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제1조에 지정된 "인간과 자연의 공동 작품"이라고 운영지침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② 유럽회의 유럽경관협약((2000)

1992년 유네스코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에 대한 새로운 세계유산의 범주로의 인정 후 유럽은 유럽경관협약(Convention europeenne du paysage)을 채택하였고 활발한 문화경관 보전활동을 하고 있다.³⁶⁾

유럽의 발전 촉진을 위한 유럽 각국 정부 간의 협력기구인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유럽위원회는 경관 분야에 관한 유럽의 협약인 유럽경관협약(Convention européenne du paysage)을 피렌체(2000. 10. 20)에서 채택하였으며 이 협약의 목표는 자연·문화적 관점에서 경관보호 및 관리와 검증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으로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령으로써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가 ‘경관’을 헌법이나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유럽의 경우 경관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과 관리에 있어 법체계 정립으로 보호·관리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럽경관협약]은 최초 지역협약으로써 전 세계의 경관 보호 관련 법적 체계에 대한 Model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역할에 있어서는 경관의 악화와 훼손을 막고 더불어 생태 보호를 위한 인간의 행동 또한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경관협약은 협약문의 제 1조에서 그 개념을 Article 1_a: "Landscape" means an area, as perceived by people, whose character is the

36) 한숙영, 「관광자원으로서의 세계유산 문화경관」, GRI 연구논총, 2015, 17(3) p.165.

result of the action and interaction of natural and/or human factors;(자연·인위적인 요소에 의한 작용, 그들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는 주민들이 인식한 영토의 부분을 가리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약의 지역적인 적용에 대한 범위는 자연·농촌·도시 공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넓은 범위에 해당한다.

[표 90] 유럽경관협약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정리
- 경관은 그 보호·운영 및 적절한 배치가 고용의 창출에 이바지하는 경제활동에 유리한 원천을 구성하는 공익에 중요하게 참여하며, 경제활동에 유익한 재원으로 경관의 보호와 운영은 일자리를 창조
- 협약 5조는 회원국들이 경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 함
- 인간의 환경권과 분리할 수 없는 경관권을 인정하도록 경관을 민주화하자는 것임
- 새로운 분야에서 상호지원과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일반적 협력을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3) 국내 법체계 측면

국내에서는 문화경관과 관련한 법체계는 전문한 상황이다. 단지 문화경관이 아닌 유사 개념의 규정에 따른 법령은 존재한다. 이에 국내의 문화경관이나 경관 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 대상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령을 요약·정리하였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내에서 경관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으로써 주요 내용은 아래 표 93과 같다.

그리고 제주의 돌문화경관 관련 법적 체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경관 관련한 법령으로 경관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분석하여 경관 관련 법체계를 정리 하였다.

[표 91] 국내 경관 관련 법률 현황

No	법명	주요 내용
1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지역 지정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있어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 지정에 있어 경관/미관/보존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에 있어 경관계획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절대보전/상대보전/관리보전지역 지정 -경관보전지구 지정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5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6	자연공원법	-자연공원의 지정 등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용도지구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행위허가 -지질공원의 인증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녹지의 세분: 경관녹지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농어촌 경관의 보전 -농어촌산업 육성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관법

각 지자체별 독자적인 경관 관련 조례에 대한 제도적 근거 미비와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를 위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와 형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경관법]³⁷⁾을 2007년 5월 17일에 제정하게 되었다.

유럽과 북미, 그리고 동양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선진국에서는 문화적 경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보호·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적인 제정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관 관련 법령이 계획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시작하였다.

[경관법]은 1장에서 이 법의 목적과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총칙을 설명하고 있고 2장에서는 경관계획, 3장에서는 경관사업, 4장에서는 경관협정, 5장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6장에서는 경관위원회, 7장에서는 보칙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장 34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관법에 있어 문화경관에 대해 살펴보면 경관법의 내용에는 문화경관에

3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 언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관법(2007)이 입법화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범위 및 대상이 특정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국제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문화경관의 보호 및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경관법이 세계화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용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에 대한 개념은 제2조 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현행 [경관법]의 경관계획에 있어 그 내용은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군은 그

[표 92] 경관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리
목적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경관 계획	제6조 ①항 경관계획 수립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①항 9호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④항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제14조(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항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경관 사업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항 1호 가로환경, 2호 지역의 녹화(綠化), 3호 야간경관, 4호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 5호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경관 협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항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④항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5.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경관 심의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법의 강제적 성격이 강한 의무적인 계획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따른 선택이 가능한 자치적 법정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경관계획 수립에 있어 그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경관법의 내용에 우선한다. 즉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경관사업은 지역의 자연·문화·역사적 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가로환경, 지역의 녹화(綠化), 야간경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관법에서는 ‘문화경관’ 관련 언급이 거의 없으나 16조 경관사업의 대상에 있어 ①항 4호에서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나마 문화경관의 정의에 비슷한 개념의 대상을 경관사업부분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경관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이 극히 드물며, 중앙정부에 따라 법적 체계 형성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최근 수정된 경관법은 지자체가 경관 관련 계획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주기 위한 기초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즉 경관법은 지자체의 지방분권을 배려한 반강제적 성격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와 유사한 문화재보호법제 체계를 갖춘 나라가 일본이므로 선행연구 대상으로서 일본의 문화적 경관 보호제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의 제도로 정착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기존의 법체계 속에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문화적 경관의 보호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법률은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으로 대표 될 수 있으며 「고도보존에 관한특별법」 등의 개정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도의 지역·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조)으로 한다.

이 법 또한 자연경관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문화경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절대/상대 보전지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도로써 표93과 같이 주요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표 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경관 관련 주요 내용

조문	주요 내용 정리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5조(기초조사)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
제35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도시와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55조(절대보전지역)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湖沼)·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제356조(상대보전지역)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357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는 1장에서 총칙, 2장 경관계획 등, 3장 경관사업, 4장 경관협정, 5장 경관심의, 6장 경관위원회, 7장 보칙 등 7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관법]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 법규의 목적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관 조례에서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경관사업대상에서는 그 밖에 경관 보전·관리와 형성을 위해 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사업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 경관조례에서도 문화경관에 관한 어떠한 제정 사항도 없었으며 경관법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형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는 건설공사와 문화재 보존의 영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고도경관, 역사·문화 환경, 문화재 주변경관’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문화경관과 유사 의미의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나 문화경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개념을 정립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법적 관리를 위해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94]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관련 조례 현황

법령명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개선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 28조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검토) ③항 2호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④항 2호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④항 6호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 환경 저해 여부

4) 종합

법률에는 상하위의 위계가 존재한다. [경관법]의 경관계획은 엄격히 말해 도시계획의 내용 하(下)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경관 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즉 [경관법]의 경관계획의 내용에서는 경관보전 및 그에 대한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률 항목이 부재한 상황이며 보다 큰 틀에서 계획·보전 측면의 경관계획에 관한 내용을 제정해 둔 상황이다.

또한 [경관법]에서 ‘문화경관’ 관련 용어와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다. 이에 경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전 방안이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 첨부 및 수정되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내용이 명기 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더 나아가 [문화재보호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문화경관’의 도입과 체계 정립을 위해 우선 [경관법]에서 ‘문화경관’에 대한 부분적 법의 제정이나 그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계를 통한 법적 제정 및 내용적 함의로 인해 제주의 조례 또한 그 체계가 분명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자연경관이나 문화경관 등 특수한 경관적 자원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으로써 다양한 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7대자연경관이나 발담의 농어업유산 지정 등 다양한 유산이 존재함으로 더욱 세분화된 법적 함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제주 밭담의 문화경관적 가치 및 보전방안

1. 문화경관적 가치

1) 밭담의 현황 및 실태

① 조성 목적 및 기능

화산섬인 제주의 토양은 화산회토³⁸⁾(火山灰土)가 대부분으로 입자가 가벼워 바람에 쉽게 날리는데다 돌이 많아 농사를 짓기 힘들다. 그래서 돌을 골라내 쌓아둔 것이 밭담이 되었고, 그 밭담이 섬 구석구석 이어져 ‘흑룡만리(黑龍萬里)’가 되었다. 흑룡만리는 검은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밭담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실제 밭담의 총 길이는 2만2108km로, 전체 돌담의 60%를 차지³⁹⁾하며 만리장성의 3배에 이른다.

밭담은 경작지인 밭 가장자리에 쌓아올린 돌담으로 높이는 약 1~1.5m 내외를 유지하며, 특히 감귤 농사를 짓는 과수원인 경우 감귤나무의 높이로 인해 담 높이를 더 높게 쌓는 경우가 많으며, 1970년대 이후 밭담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과수원에는 밭담과 더불어 삼나무를 방풍 목적으로 식재하여 관리하는 곳도 많다.

우선 밭담은 돌 많은 토지에 널려진 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 정리하는 기능을 가졌으며 열기설기 쌓은 제주 돌담은 바람에 무너지는 일없이, 효과적으로 풍속(風速)을 줄여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흙의 유실을 막았다. 셋째, 방목하고 있는 우마가 침입하여 농작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것을 막았다. 넷째, 명확한 경계표지 역할을 하므로 토지영역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돌담은 방어시설, 어로시설로도 활용됐다.

이렇듯 다양한 돌담의 기능에서 밭담의 기능은 자신이 소유하는 경작지임을 의미하는 경계선 기능 이외에 우마(牛馬)의 침입을 막고 바람에 의한 토양의 표토층의

38) 습윤 또는 아습윤 기후하에서 화산재·부석 그 밖의 화산분출물로 이루어진 토양을 말하며 앤도 토양이라고도 한다. 부식층은 두껍고 검정색 또는 암갈색이며 표층은 황갈색을 띤다. 뉴질랜드·칠레·알래스카·인도네시아·하와이·아프리카 동부 등지에 분포한다.(<http://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39) 국가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밭담의 길이는 2만2108km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 전체 돌담길 3만 6355km의 60%를 차지한다. 이는 제주도 전체 경지면적에 평균 돌담길이를 적용해 계산한 것으로 정확한 길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경향신문, ‘흑룡만리’ 제주 밭돌담, 과연 10만리나 이어졌을까?, 2013.03.11.)

침식방지와 작물 보호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밭담은 제주도 해안 지역과 중산간지역의 들녘에 마치 용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경관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 상품작물의 대대적인 요입으로 상당한 속도로 파괴되는 현실에 처해있다(고성보 외3, 2009). 실제로 제주 전역에 밭담을 돌아보면 밭담의 제거 흔적이나 제거 중에 있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오늘날 제주의 밭담은 농촌지역의 특히 제주의 특별한 경관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민운동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② 축조 유형

돌담의 외견상 형태는 외담과 겹담으로 나눌 수 있다. 외담은 담을 한 줄로 쌓아올린 것을 말하고, 겹담은 두 겹으로 쌓아올린 돌담을 말한다. 보통 일반적인 용도의 돌담은 외담의 경우가 많고, 다소 특수한 용도를 띠는 경우에 겹담인 경우가 많다. 돌담을 쌓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외담과 겹담 외에 잣굽담이라는 형태도 있다. 잣굽담은 하단부에 일정한 높이까지 작은 돌로 쌓은 다음, 그 위에 큰 돌로 쌓은 돌담을 말한다.

[표 95] 밭담의 축조 유형

축조 유형	개념
외담	‘외담’은 ‘잡담’이라고도 하며, 주변에 흩어진 돌들을 외줄로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쌓아올린 담으로 이 담은 바람에 유연하기 때문에 거센 바람에도 안전하다.
겹담	안팎 두 줄을 큰 돌로 쌓고 그 사이에 잡석을 채워 넣어 완성한 담으로 ‘겹담’이라고도 하며 무덤을 두르는 산담에 사용하는 양식이다. 경작지 잡석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한다.
잣담	잣담은 겹담이 변형된 것으로, 자갈을 넓게 쌓아올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쌓은 담이며 경작지까지 진입하는 농로로 이용한다. ‘잣길’ 또는 ‘잣백담’이라고도 부른다.
잣굽담	바위나 자갈이 많은 농토에서 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농토사용의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경작지까지 진입하는 농로(農路)가 되므로 우천 시에도 불편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담이다.
아래쪽에 작은 돌을 쌓고 그 위에 큰 돌로 쌓은 담이다.	

제주도의 돌담을 쌓는 방식에는 바른층쌓기(성층쌓기), 막쌓기(허튼층쌓기), 다이아몬드식 쌓기 등이 있다. 먼저 바른층쌓기란 돌을 위로 쌓아 올리면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돌을 서로 맞물리며 겹치게 쌓는 방식을 말하며, 막쌓기(허튼층쌓기)는 말 그대로 자연적인 형태의 크고 작은 돌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쌓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막쌓기에는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석을 거의 그대로 쌓기 때문에, 돌과 돌의 맞물리는 틈새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생긴 특징이 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식 쌓기는 돌을 가공하여 다이아몬드(마름모꼴) 형태로 계속 연결시키며 쌓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방식이며 새로 만든 도로변의 돌담이나 공공시설의 담벽 혹은 조경용 돌담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a. 외담



b. 겹담



c. 잣곱담



d. 잣담

그림13. 제주 돌담의 축조 유형

③ 분포 현황 및 훼손 상태

제주도의 밭담은 국내 여타 농촌지역의 농경지나 밭담에 비해 경지정리 면적이 나 원형의 보전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으나, 제주의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상황으로 최근 들어 급속히 그 훼손이 증가 있는 추세이다.

제주의 밭담의 특징은 제주 전역에 걸쳐 연결되어 마치 미로를 연상하게 하는 면적인 분포와 그 보존의 상태 특징일 것이다.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밭담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제주시의 한경, 신촌, 애월, 구좌, 한림, 조천 밭담 등이 있으며 서귀포시지역은 남원, 재정, 성산 등으로 총 9개 지역을 대표적인 밭담의 보전 우수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밭담은 대부분 해안연안 지역에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산간 지역에도 밭담은 다수 존재하나 그 보존 상태와 분포 면적에 있어 해안 연접지역에 그 분포가 많았으며 중·산간지역은 목장이나 여타 다른 용도의 토지 이용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4. 제주 밭담의 분포 현황

보전이 우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밭담의 훼손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도로를 기준으로 가까울수록 먼 지역에 비해 그 훼손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 표 96은 제주의 밭담이 잘 보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훼손률을 측정한 것이다. 이러한 훼손률에서 알 수 있듯이 밭담의 훼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밭담의 보전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96] 제주 밭담 훼손 상태

경관구역	한경밭담	성산밭담	신촌밭담	남원밭담	대정밭담	애월밭담
100m 구역	-3,812m (30.6%)	-1102m (9.3%)	-193m (1.9%)	-831m (10.8%)	-2071m (18.8%)	-1896m (17.8%)
200m 구역	-2136m (22.9%)	-995m (10.4%)	-149m (1.8%)	-350m (5.1%)	-394m (4.0%)	-443m (4.8%)
300m 구역	-1679m (23.1%)	-1406m (14.2%)	-500m (6.4%)	-374m (5.0%)	-737m (8.4%)	-954m (11.1%)
계	-7627m (26.2%)	-3503m (11.2%)	-842m (3.2%)	-1555m (7.1%)	-3202m (10.8%)	-3293m (11.6%)

출처: 고성보 외2, 제주의 돌담-가치평가와 문화관광자원화 방안-, 제주대학교출판부, 2009.

④ 물리적 특성

보존 상태가 양호가 밭담 9개 마을의 행정적 범위 안에서 밭담의 축조방식, 높이, 재료, 보존현황 등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밭담의 기초적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밭담의 물리적 특성에 관해 현장조사 시, 대부분 큰길이나 주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밭담의 상태를 체크하였으며, 그 수치나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약 500m 간격으로 밭담의 형태를 체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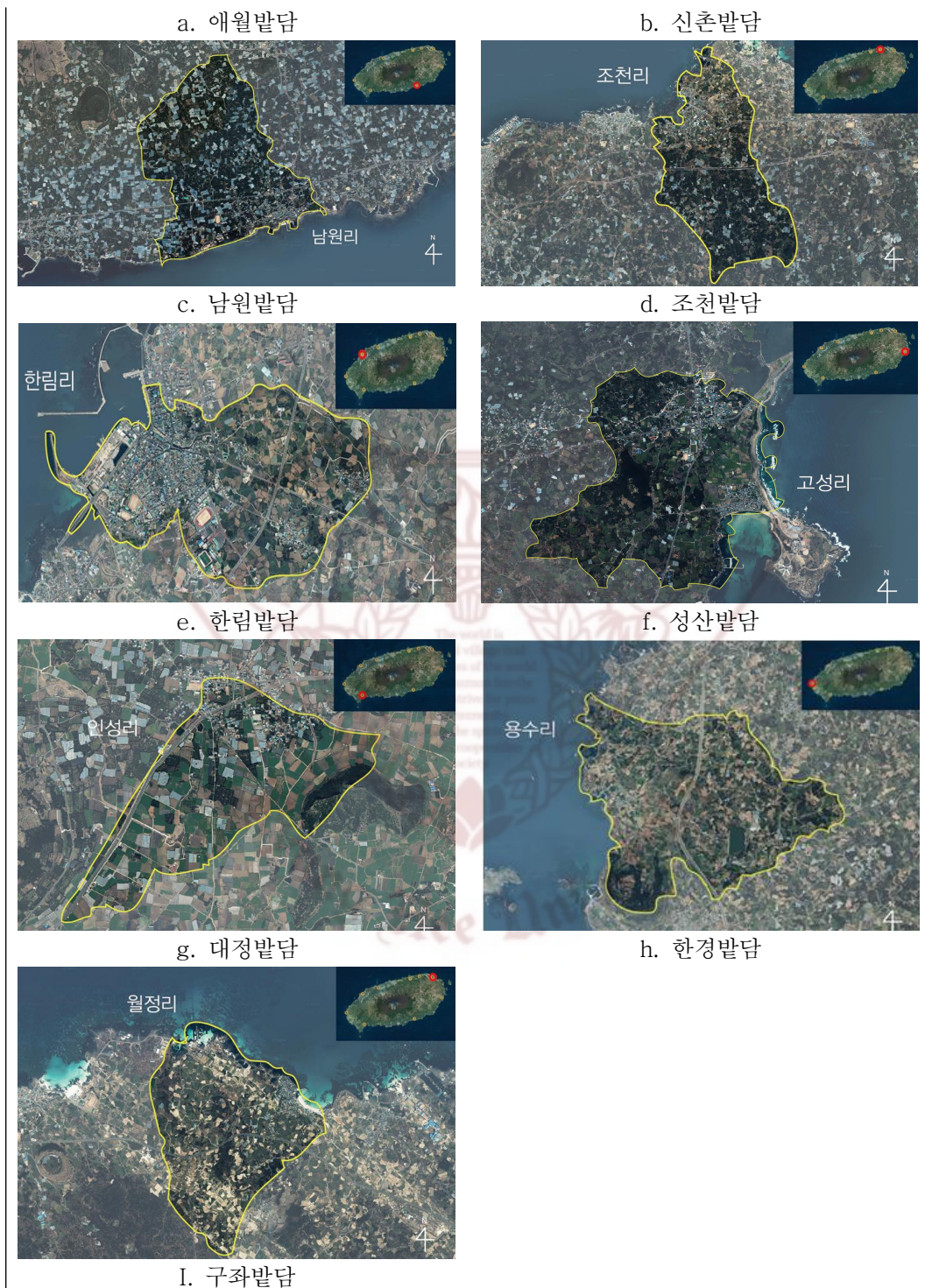


그림 15. 제주 발담의 분포 현황

종합적으로 제주도 지역의 발담의 상태에 관해 평가하자면 대부분의 발담은 외담(허튼층쌓기)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높이는 평균 1m 정도이고 재료는 다공질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개보수나 훼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도 다수 있었으며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은 대부분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해안지역 근처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표 97은 제주 발담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한 것이다.

[표 97] 제주특별자치도 발담의 물리적 기초 특성

	소재지	축조방식	높이	재료	현황
한경발담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일대	외담 (허튼층 쌓기)	약 1m	다공질 현무암	훼손 및 개보수 흔적 많음
남원발담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일대	외담	약 1.2m	다공질 현무암	훼손 및 개보수 흔적 많음 중간 방풍림 다 다수 존재
대정발담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일대	외담 (허튼층 쌓기)	약 0.5m	다공질 현무암	훼손 및 개보수 흔적 많음 발담이 아주 낮음
성산발담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일대	외담 (허튼층 쌓기)	약 0.8m	다공질 현무암	발담 정리 양호 방풍림 없음/시아 좋음
신촌발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일대	외담 (허튼층 쌓기)	약 1.5m	다공질 현무암	훼손률 적음.
애월발담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일대	외담+ 겹담	약 1m	다공질 현무암	훼손 및 개보수 흔적 적음 높낮이와 폭 편차 큼
한림발담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대	겹담	약 1m	다공질 현무암	훼손 및 개보수 흔적 많음
구좌발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일대	외담+ 겹담	약 1m	다공질 현무암	돌이 각 짐(빌레)
조천발담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일대	외담 (허튼층 쌓기)	약 1.2m	다공질 현무암	훼손 및 개보수 흔적 많음 돌담 높이 다양함

2) 문화경관유산 등재기준 측면의 가치

제주 돌문화자원이 가지는 경관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치의 객관화를 위해 우선 문화유산의 등재가치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문화유산의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탁월함’은 세계적 차원의 아주 높은 뛰어남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리고 ‘보편적’의 의미는 세계인이 그 가치의 탁월함을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세계유산적 가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기준으로 발담의 경관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경관평가에 있어 문화유산 등재기준인 ‘진정성’은 진실과 원상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해당 유산의 문화적 가치가 기법, 형태, 소재, 용도, 기능, 관리체계 등이 진실 되어야하고 신뢰성 있는 경우에 한한다. ‘완전성’은 유산의 본연적 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제주 발담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충족하는 충분한 경관 요소와 문화경관의 특징을 대표하는 충분한 면적, 개발 및 방치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 돌담의 현재 보존 상태와 정책적 대안은 충분한가를 검증해야 한다.

이에 제주 발담의 문화경관적 가치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의 (iii), (v)의 기준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며,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제주 발담에 관한 등재기준별 가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탁월한 보편적 가치_(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측면

제주 발담은 화산분출로 생긴 자연 돌을 농업과 자연 환경에 맞게 이용함으로써 제주만의 전통경관을 이어오고 있으며 농업·생활환경 체계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제주 발담의 문화경관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그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재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발담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독특한 예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발담은 이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적응 방식을 매우 훌륭하게 보여 주며 바람을 쫓는 기능으로 제주의 강한 바람에 대응하여 800여 년 이상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이러한 밭담은 고려시대 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제주만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선조들의 생활 노력으로 아주 완성도가 높으며,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도 단연 농업과 생활 문화, 정주생활의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농업, 생태계, 자연환경 이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밭담은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집단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타 지역의 경관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중요한 기능체로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두드러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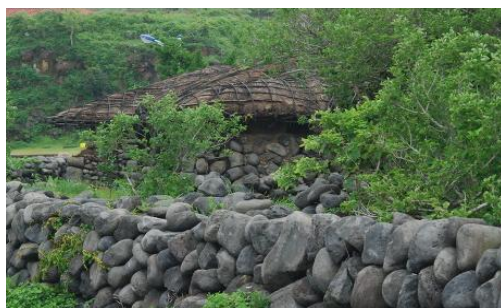
제주도에서는 밭담을 통해 지역적으로 농업환경의 악조건을 슬기롭게 극복한 제주도민들의 삶과 더불어 한반도와는 다른 고유 풍습도 살펴볼 수 있어 제주의 지역성을 설명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밭담은 화산섬인 제주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로서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 안덕면의 산방산 주변의 밭담은 산방산의 조면암질 용암으로 인해 제주에서도 흔하지 않은 단단한 조면암으로 형성되어있고, 서귀포시 성산을 신양리 밭담은 퇴적암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밭담 자체가 각 지역의 지질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리적 요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밭담은 농경지의 경계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특정지구의 토지이용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고도에 따라 다양한 암석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서, 해안가에서는 먹돌을 이용한 밭담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중산간지역의 밭담은 이 지역이 오랜 기간 목장으로 활용되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밭으로 사용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조면암질 밭담



서귀포시 성산을 신양리 먹돌 밭담

그림 16. 다양한 암석의 밭담

② 탁월한 보편적 가치_(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측면

제주 밭담의 지배적 특징인 돌담은 바람이 강한 해안 지역의 환경에 직면한 제주의 적응 전략을 보여 준다. 돌담을 만드는 데 드는 노동은 모든 주민의 통일된 결속을 필요로 했으며 주민의 협동과 사회의식을 보여준다. 제주 주민은 경관의 유지·보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바람에 대해 체득한 효율적인 지식과 토양 보존 노하우를 통해 환경에 적응한다는 강력한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밭담은 주민들이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 속에서 강한 바람의 영향에 적응한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요소로서 시간적으로는 800년에 가까운 역사성과 함께 경지정리사업의 영향 속에서 많은 변화를 거듭했지만, 현시점에서도 농경지의 경계선 기능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과 상속제를 통해 농경지의 경계가 점점 복잡해질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짚질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을 엿볼 수 있는 기능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밭담은 제주도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낸 작품이며, 도시화·산업화 이후 현재까지도 그 역할이 지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으로 밭담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문화경관으로서 밭담은 제주도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태도 및 가치관 등을 반영한 요소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더욱이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고 농업이 기계화된 오늘날에도 그 역할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 진정성 측면

제주 밭담은 원래의 형태와 모양을 지금까지도 대부분 보존하고 있다. 밭담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인 돌은 주위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완성된 밭담은 마을 주민들이 보존하였으며 원래의 용도와 기능으로 현재 아직도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담이 있는 마을은 공동체가 거주하며 전통 제도가 존재한다.

제주 밭담은 경관 요소의 전통적인 형태, 경관 기능의 연속성 등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진정성을 유지해왔다.

진정성이 취약하거나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근래 들어 축조방식의 변형이나 재료 등을 말할 수 있다.

④ 완전성 측면

제주 돌담은 총길이가 36,355km이며 그 중 발담의 길이는 22,108km이다. 이러한 길이는 지구의 지름인 12,756km의 3배에 해당하는 길이로 예로부터 제주 돌담을 가리켜 ‘흑룡만리’라 일컬어지는데 이는 이 정도로 제주 돌담의 길이가 긴 것을 표현한 것이며 그 중 발담의 길이가 3/2를 차지한다.⁴⁰⁾

제주발담의 경계는 제주 주민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였으며 돌담 경관 전체의 완전함도 고려되었다.

경관은 자연적·문화적 표식으로 경계로 지어져 있으므로 그 완전성 또한 유지되었다.⁴¹⁾ 발담의 경계는 발담 전체 체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대한 지역을 포함하며, 마을, 밭, 해안 등의 모든 구성 요소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제주 발담은 기후변화나 강풍 대응하는 높은 대응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평소 강한 제주의 바람에도 수백 년을 견딘 발담의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발담은 대체로 해안 평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개발 압력에 취약하다.

40) 고성보, 강정효, 최용복, 양진철, 『제주의 돌담』,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9, p.23

41) <http://heritage.unesco.or.kr/whs/konso-cultural-landscape/>

3) 문화경관의 유형 측면의 가치

문화경관은 그 유형을 ‘분명히 규정된 경관’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결합한 경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각 등재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담의 경우 그 유형을 유형 1의 분명히 규정된 경관과 유형 2의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중 지속경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등재기준과의 관련성에 있어 유형1의 ‘분명히 규정된 경관’은 등재기준 (v), 유형 2의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중 ‘지속경관’은 등재기준 (iii)과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표 98에서 각 유형과 등재기준에 따른 발담의 의의를 정리하여 발담의 문화경관적 가치에 있어 그 의의를 정리하였다.

[표 98] 세계문화경관의 유형(종류)과 등재 기준관련 의의

구분	유형	등재기준의 관련성
①	분명히 규정된 경관(설계된 경관) (Designed landscape)	(v)
	발담은 1200년 초부터 제주의 자연·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이 결속의 하여 만들어낸 바람막이 기능과 바람의 의한 피해 방지 기능을 하는 담으로써 사유재산과 상속제 등의 사회제도에 따라 주민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유산 임.	
②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Organically evolving landscape)	지속(Continuous) (i), (ii), (iii), (iv)
		화석(Fossil) (i), (vi)
③	연상적 경관(결합한 경관) (Associative landscape)	(vii)
	800여 년간을 이어온 제주의 발담은 계속하여 발담의 형태와 그 기능을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훼손과 변형은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의 노력을 보여주며, 제주의 환경에 맞는 제주 발담의 독특한 형태와 모양을 하고 제주 전역에 걸쳐 유지되고 있는 점.	

4) 종합적 가치

제주 밭담은 세계 어느 문화경관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제주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있으며 특히 경관적 측면에 있어 밭담의 연속성은 세계 어떤 유산보다 뛰어나다. 특히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의 대응방식으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빚어낸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제주 밭담은 제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해안지역을 비롯하여 중·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밭담은 그 분포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역의 고도와 입지적 위치, 그리고 토양에 질에 따른 밭담의 재료와 축조방식, 형태도 모두 제각각으로 그 또한 제주 밭담만의 중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제주 밭담은 문화경관유산으로써 탁월한 보편적 가치 (iii), (v), 진정성, 완전성 등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화경관 자원이라 판단된다.

아래 표 99은 문화경관 등재기준에 따른 밭담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99] 등재 기준에 따른 밭담의 문화경관적 특징

등재기준	밭담의 특징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 담으로서의 연속성 · 자연 환경을 이용한 주민의 결속
탁월한 보편적 가치(v)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 제주 전역에 걸쳐있는 농업·경제의 정주지 · 인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근거 · 800여년에 걸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특성
진정성(Authenticity)	· 제주 화산암을 활용한 바람을 이용하는 담의 축조 방식과 화산암의 단일 재료 · 제주 밭담만의 독특한 축조 방식
완전성(Integrity)	· 제주 전역을 걸쳐 분포하는 면적 넓이와 원형 유지 상태 · 방대한 밭의 경계와 모든 경관요소 포괄

2. 보전 방안

① 유네스코 문화경관 도전

제주 발담은 관리·보전되어야 한다. 관리·보전에 있어 첫 번째의 노력은 제주 발담이 보전·관리되어야 할 만큼의 중요 자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의 발담이 그러한 가치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유산의 등재 기준에 합당하게 그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유산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본다.

유네스코가 문화경관을 세계유산으로 선정하였으며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을 문화유산의 일종으로 ‘자연과 인간이 결합된 노작’ (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주 발담을 문화경관유산에 등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발담의 보호와 함께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적 자원으로서의 제주 발담의 중요도가 널리 인정받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 발담은 문화유산 등재기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iii, v, 그리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그 우수성은 이미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경관은 자연경관과 더불어 문화적경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관에 있어 발담의 비중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발담의 분포 역시 제주 전역에 걸쳐 있어 제주 전체 경관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토자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문화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iii), (v)를 중심으로 제주 발담을 관리하고 그 특성을 부각시켜 유네스코의 문화경관의 등재에 도전해 보는 것이 곧 발담과 제주 경관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문화경관 유산 등재 도전을 위해서는 잠정목록에 신청하는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법제화 체계 구축

현재 경관관리에 있어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령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한 경관은 도시경관 뿐 아니라 농촌과 문화경관까지 많은 부분이 규제와 합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국가적으로도 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각종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어 국토를 관리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법이 경관에 관해서 규정은 하고 있으나 현재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화경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문화경관에 합당한 법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 중앙정부

국가적으로 현재 경관관리를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국가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까지 경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경관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에 있어 단연 경관법이 상위의 법률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관법 개정과 더불어 문화재 관련 법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 부처별 관련 법제와 문화적 경관 관련 법제간의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문화경관을 보호해 줄만한 그 어떤 언급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문화경관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가적인 법체계 재편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예로써 우리와 유사한 문화재보호법제 체계를 갖춘 일본이므로 선행연구 대상으로 일본의 문화적 경관 보호제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의 제도로 정착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문화적 경관의 도입과 보존을 위해 관련법제와 주요 주무부서간의 상호 연계를 통한 실효적인 추진방안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는 특히 경관관련 보호와 법적 제재가 필요한 천연 섬으로 그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 할 것이다. 하지만 제주의 경관조례에서도 문화경관에 관한 어떠한 제정 사항도 없었으며 경관법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관리에 있어 그 효용성이 절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본다. 이에 제주는 제주만의 경관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주만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특별법은 자연경관, 문화경관, 도시경관, 농촌경관, 역사경관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법률 제정과 그에 합당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제주는 많은 유산과 유적이 있는 천연섬 이므로 다른 법률과의 상충이나 중복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경관관련 법령 제정이 법의 상하위의 위계에서 효율적인 효력 발생을 위한 합리적인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VI. 결론

최근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의 개념이 세계유산의 한 유형으로 정립되면서 유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세계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인간이 생활을 통하여 관계하게 되는 인문·자연적 요소의 총체인 경관’⁴²⁾을 유산의 개념으로 취급하면서 나타나게 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문화유산은 주로 인류의 기념적인 건조물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자연유산은 주로 자연환경에 그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포괄하고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중요 가치를 가지는 자원들을 세계유산으로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문화경관을 보유한 제주의 돌문화자원의 경관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서 그 특성을 분석하고 대표자원인 발담에 대해 문화경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보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제주의 가장 대표적 문화경관자원으로는 발담이 도출되었다. 발담의 이미지는 ‘아름다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발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법적 고찰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42) 최중희, 자연유산의 가치와 조경의 역할: 1. 경관, 유산과 문화, 환경과조경 4월호(276), 2011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크게 연구의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기본으로 돌문화자원의 특성과 대표 자원인 발담의 문화경관적 가치에 관해 평가하고 경관보전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돌문화자원에 대한 인지적 특성에 있어 16개의 경관형용사는 안락성과 자연성, 쾌적성으로 설명되어지며, 제주 돌문화자원의 이미지에 대해 형용사는 '조화로운', '매력적인',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넓은', '아늑한', '시원한'의 이미지가 낮은 평가되었다.

경관자원에 대한 이미지는 용천대를 '자연스러운'으로, 봉천수를 '푸르른'으로, 발담을 '아름다운'으로 평가하였으며 불턱을 '조화로운'으로, 산담을 '자연적인', 방사탑을 '매력적인'으로, 돌하르방은 '친근한'등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돌문화경관의 선호도에 있어 내국인은 발담>인공포구>용천대>돌하르방 순으로, 중국인의 경우 돌하르방>발담>본향당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한·중인이 가장 선호하는 돌문화자원인 발담과 돌하르방의 대한 한·중인의 선호도는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돌문화경관의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는 양국 전문가 모두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완전성>진정성>탁월한 보편적 가치(v)순으로 평가하였으며, 등재 기준별 자원의 중요도에 관해서는 모든 기준에서 발담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발담을 제주 돌문화자원의 대표자원으로 도출하였다.

발담의 가치에 관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 담으로서의 연속성', '자연 환경을 이용한 주민의 결속'을 그 가치로 평가하였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v) 측면에서는 '제주 전역에 걸쳐 농업 경제 정주지'와 '인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근거', 그리고 '800여년에 걸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특성'을 그 가치로 평가하였다. 진정성에서는 제주 화산암을 활용한 바람을 이용하는 담의 축조 방식과 화산암의 단일 재료 측면을, 완전성에서는 제주 전역을 걸쳐 분포하는 면적 넓이와 원형유지 상태와 방대한 밭의 경계와 모든 경관요소를 포괄하는 점을 그 가치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제주 경관보전에 관한 법제의 고찰에서는 국내 법령에 있어 '문화경관'에 관한 법적 정의와 정확한 적용 및 보호 방안 또한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문화경관'의 도입과 체계 정립을 위해 우선 [경관법]에서 '문화경관'에 대한

부분적 법의 제정이나 그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주도의 경우도 경관조례에서 좀 더 다양한 대상의 지정과 더불어 문화경관의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치로 인한 발담의 보전방안으로 발담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문화경관 등재 도전과 더불어 국내의 법제화 체계 구축 및 제주만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특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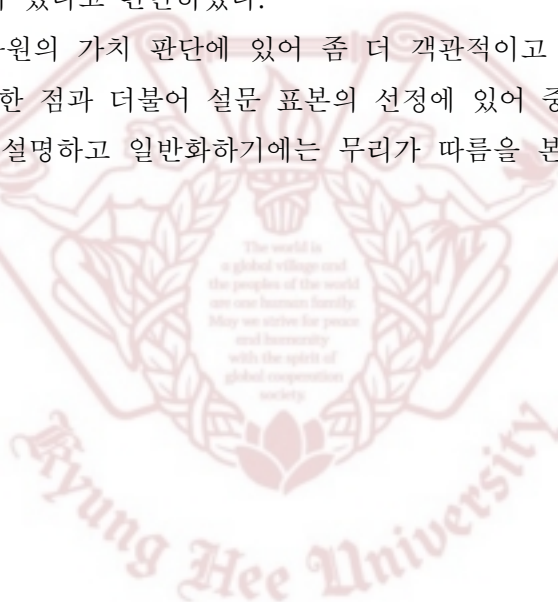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최근까지 계속 중요하게 인식되어온 경관 보전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문화경관과 관련하여 제주 돌문화자원의 경관에 관한 것이다. 돌문화자원의 대표자원으로 도출된 제주 밭담을 중심으로 그 가치평가에 의한 검정과 더불어 경관의 보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제주는 빠른 성장과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성장 이면에 제주 향토자원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하여 그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제주의 대표적 문화경관 자원을 도출하고 그 가치와 보전방안을 검토·제안한 바, 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돌문화자원의 가치 판단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가치를 측정하지 못한 점과 더불어 설문 표본의 선정에 있어 중국인의 선정이 세계인으로서의 전체를 설명하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름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1. 강정효, 『화산섬, 돌 이야기』, 도서출판 각, 2000
2. 고성보, 강정효, 최용복, 양진철, 『제주의 돌담』,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9, p.93
3. 농림수산물식품부, 『20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매뉴얼』, 농림수산물식품부, 2010.
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유산_ 새천년을 향한 도전”, 2010, p.40.
5. 이운형·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2006
6.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7. Saaty, T. L., 「Desision Making for Leaders」, 1995 / 조근태·홍순욱·권철신 역, 「리더를 위한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2000.

[연구보고서]

1. 송미령 외1,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2011, p.1.
2. 정갑영 외2,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pp10~12.
3. 한림대학교, 『농촌활력증진사업 성과분석 및 포괄보조사업 평가지표 적합성 연구』, 농림수산물식품부, 2010.

[학술논문]

1. 길지혜 외2, 「조선시대 옛글을 통한 한양도성 연지(蓮池) 일대의 문화경관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34 no.1, pp. 1-17, 2016.
2. 김상범 외1, 「농촌경관계획을 위한 공간별 주요경관요소에 관한 연구 -농촌전통테마

-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12 no.3, pp. 13-18, 2006.
3. 김수진 외2,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28 no.4, pp. 14-27, 2010.
 4. 김순기, 「미국역사경관조사를 통해 본 문화경관 기록방법의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11, pp. 31-39, 2013.
 5. 류제현, 「한국의 문화 경관에 대한 통합적 관점」,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문화역사지리 v.21 no.1, pp. 105-116, 2009.
 6. 박재민 외1, 「장소기억을 통한 문화경관의 층위 해석 : 형용사를 사용하여」,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v.42 no.2, pp. 10-18, 2014.
 7. 박익수, 「광산지역 문화경관자원의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v.14 no.4, pp. 125-133, 2012.
 8. 반영운 외3,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한 농촌경관 유형분류 및 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14 no.3, pp.53-61, 2008.
 9. 양희은 외1, 「경리단길 창조계급의 유입과정과 문화경관 형성요인」,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v.41 no.6, pp.158-170, 2013.
 10. 엄태건 외4, 「밀양 금시당 12경의 문화경관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29 no.2, pp. 1-18, 2011.
 11. 이성우 외1, 「제주도 해안마을 울담의 높이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v.47 no.3, pp. 390-406, 2012.
 12. 이춘홍, 「안좌도의 경관이미지와 경관잠재력 제고를 통한 문화경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 신안군 안좌도의 경관 테마 공원을 사례로-」, 한국경관학회, 한국경관학회지 v.4 no.1, pp. 61-72, 2012.
 13. 전종한, 「국가 유산 '명승'의 조사 기록을 위한 가치 범주의 구상 : '문화 경관으로서의 명승'의 관점에서」,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v.49 no.4, pp.563-584, 2014.
 14. 주신하 외1,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 정립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14 no.4, pp. 69-76, 2008.
 15. 천현진 외3, 「중국 이주민 거주지역 내 시장공간의 문화경관해석 - 서울시 대림동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v.40 no.5, pp. 73-87, 2012.

16. 최원석, 「세계유산의 문화경관 유형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지리학회, 문화역사지리학회지 v.24 no.1, pp. 17-49, 2012.
17. 최원석, 「지리산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18 no.1. pp.42-54, 2012.
18. 최원석, 「세계유산의 문화경관 유형에 관한 고찰 : 산(山) 유산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문화역사지리 v.24 no.1, pp. 27-49, 2012.

[학위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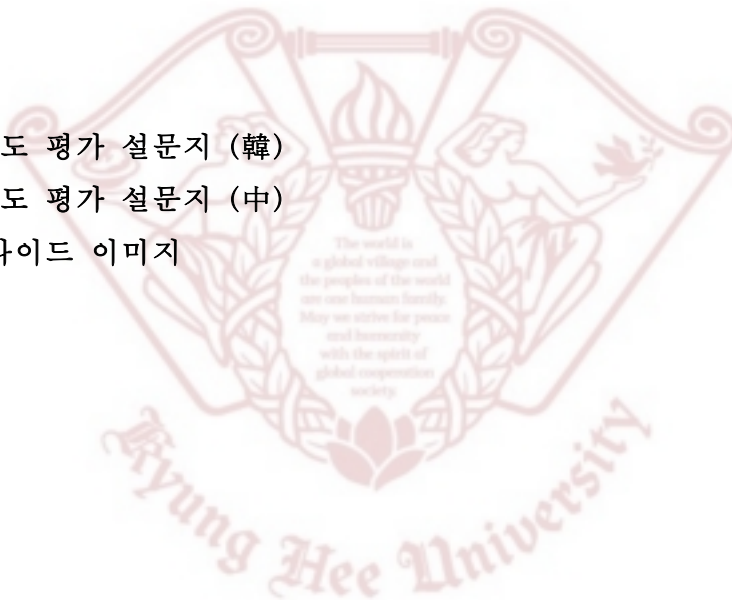
1. 강민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 강용,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마을과 한족마을의 문화경관 비교연구 : 창차이촌(長財村)과 무이동(慕義洞)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
3. 김민우, 「특화가로 문화경관 해석: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4. 김수희, 「해안 마을숲의 문화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 김이갑, 「도시의 토지이용과 문화경관 연구 : 신사동 가로수길 중심으로」, 공주대학교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
6. 김종석,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 문화: 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7. 박은희, 「도산구곡의 문화경관 해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 환경자원학과 조경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4.
8. 조준현, 「울산 대곡천 유역 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
9. 천현진, 「국가 유산 '명승'의 조사 기록을 위한 가치 범주의 구상 : '문화 경관으로서의 명승'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5.

[인터넷 자료]

1. <http://heritage.unesco.or.kr>, 유네스코와 유산, 세계유산등재정책, 2016.07.26.
2. http://heritage.unesco.or.kr/wh/wh_intro, 2016. 07.15
3.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2016.11.07.
4. <http://news.khan.co.kr>, ‘흑룡만리’ 제주 발돌담, 과연 10만리나 이어졌을까?, 2013.03.11.
5. <http://www.lafent.com>, 최중희, 자연유산의 가치와 조경의 역할: 1. 경관, 유산과 문화, 환경과조경 4월 호(276), 2011

[부록]

1. 자원중요도 평가 설문지 (韓)
2. 자원중요도 평가 설문지 (中)
3. 사례 슬라이드 이미지





제주 돌문화자원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자는 「제주 돌문화경관 특성 및 문화유산적 가치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표는 돌문화경관의 문화경관유산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은 제주돌자원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므로 일반 설문조사의 응답 방식과 비교하여 평가항목 간의 반복적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평가합니다. 평가항목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평가할 때 일관성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신중하게 응답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제주 돌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있어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중요한 조사이므로 성의 있게 응답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515
- 연구자 : 임진강 (T. 010-8814-7707 / E-mail: jklim@khu.ac.kr)
- Fax. 031-204-8127

성명	
연락처	
소속기관 명 (직급)	
경력	(년) 또는 (개월)

※ 본 설문서의 각 문항에 답변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 작성 예시)

- 만약 중요 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성 A의 중요성과 특성 B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비슷하게”	중요하면	숫자 1	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약간”		숫자 3	
“매우”		숫자 5	
“확실히”		숫자 7	
“절대적으로”		숫자 9	

참고로 “매우”와 “확실히”의 중간 정도로 생각되면 5와 7의 중간 수 인 6으로 응답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수 2, 4, 6 _ 근접한 숫자 중간 정도로 중요)

(응답 예시)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를 결정할 때 특성A(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특성B(진정성)를 비교하여 특성 A(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특성 B(진정성)보다 매우 중요할 경우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응답 (✓) 하시면 됩니다.

제주돌문화자원의 중요도 평가																		
특성 A	A가 절대로중요		A가 확실히중요		A가 매우중요		A가 약간중요		서로 비슷한정도		B가 약간중요		B가 매우중요		B가 확실히중요		B가 절대로중요	특성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													탁월한 보편적 가치(v)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															진정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iii)							✓											완전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v)						✓												진정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v)					✓													완전성
진정성				✓														완전성

제주 돌문화 자원의 우선순위 조사

※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에 관한 측정입니다. 중요 부문에 체크 해 주십시오.

문1>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에 제시한 기준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시고 해당란에 ✓ 표하여 주십시오.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기준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 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서 탁월한 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중 제주돌문화와 상관성이 높은 기준의 항목

-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 ② **진정성(Authenticity)**은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원래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

- ③ **완전성(Integrity)**은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

★ 먼저 4가지 등재기준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신 후, 그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평가하시면 응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원의 중요도가 서로 비슷할 경우 같은 순위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해당 부분에 체크하십시오]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도 평가																		
특성 A	A가 절대로 중요		A가 확실히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약간 중요		서로 비슷한 정도		B가 약간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확실히 중요		B가 절대로 중요	특성 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탁월한 보편적 가치] (iii) 특출한 증거																		[탁월한 보편적 가치] (v)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
[탁월한 보편적 가치] (iii) 특출한 증거																		[진정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 (iii) 특출한 증거																		[완전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 (v)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																		[진정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 (v)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																		[완전성]
[진정성]																		[완전성]

문2> 다음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시한 각각의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하여 (iii)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특출한 증거 측면에서 평가하시고, 그 중요성을 해당란에 ✓ 표하여 주십시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서 탁월한 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제주 돌문화경관 관련 자원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탁월한 증거 측면 >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주거 (住居)	집 담	정주석	①	②	③	④	⑤
		축담	①	②	③	④	⑤
		울담	①	②	③	④	⑤
		통릿담	①	②	③	④	⑤
	올렛담		①	②	③	④	⑤
	용천대		①	②	③	④	⑤
	봉천수		①	②	③	④	⑤
	듬돌		①	②	③	④	⑤
농·축 산업	밭담		①	②	③	④	⑤
	우영담		①	②	③	④	⑤
	갯성(갯담)		①	②	③	④	⑤
어업	불턱		①	②	③	④	⑤
	해안 인공포구		①	②	③	④	⑤
	도대불(등명대)		①	②	③	④	⑤
	원담(갯담)		①	②	③	④	⑤
	소금빌레		①	②	③	④	⑤
종교 신앙	산담		①	②	③	④	⑤
	고인돌		①	②	③	④	⑤
	방사탑(돌탑)		①	②	③	④	⑤
	본향당(산당)		①	②	③	④	⑤
	석 상	돌하르방	①	②	③	④	⑤
		미륵불	①	②	③	④	⑤
		동자석	①	②	③	④	⑤
군사 방어	연대		①	②	③	④	⑤
	성 담	진·현성(육지)	①	②	③	④	⑤
		환해장성(해안)	①	②	③	④	⑤

문3> 다음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시한 각각의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하여 (v) **환경, 인간의 상호작용,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측면에서 평가하시고, 그 중요성을 해당란에 ✓ 표하여 주십시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서 탁월한 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

(v) 환경, 인간의 상호작용,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제주 돌문화경관 관련 자원			<인간의 상호작용, 정주지나 육지·바다 사용 예증 측면>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주거 (住居)	집 담	정주석	①	②	③	④	⑤
		축담	①	②	③	④	⑤
		울담	①	②	③	④	⑤
		통릿담	①	②	③	④	⑤
	올렛담		①	②	③	④	⑤
	용천대		①	②	③	④	⑤
	봉천수		①	②	③	④	⑤
	듬돌		①	②	③	④	⑤
농·축 산업	밭담		①	②	③	④	⑤
	우영담		①	②	③	④	⑤
	갯성(갯담)		①	②	③	④	⑤
어업	불턱		①	②	③	④	⑤
	해안 인공포구		①	②	③	④	⑤
	도대불(등명대)		①	②	③	④	⑤
	원담(갯담)		①	②	③	④	⑤
	소금빌레		①	②	③	④	⑤
종교 신앙	산담		①	②	③	④	⑤
	고인돌		①	②	③	④	⑤
	방사탑(돌탑)		①	②	③	④	⑤
	본향당(산당)		①	②	③	④	⑤
	석 상	돌하르방	①	②	③	④	⑤
		미륵불	①	②	③	④	⑤
		동자석	①	②	③	④	⑤
군사 방어	연대		①	②	③	④	⑤
	성 담	진·현성(육지)	①	②	③	④	⑤
		환해장성(해안)	①	②	③	④	⑤

문4> 다음은 진정성을 기준으로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시한 각각의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하여 진정성 측면에서 평가하시고, 그 중요성을 해당란에 ✓ 표하여 주십시오.

진정성(Authenticity)은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원래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

제주 돌문화경관 관련 자원			<진정성 측면>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주거 (住居)	집 담	정주석	①	②	③	④	⑤
		축담	①	②	③	④	⑤
		울담	①	②	③	④	⑤
		통싯담	①	②	③	④	⑤
	올렛담		①	②	③	④	⑤
	용천대		①	②	③	④	⑤
	봉천수		①	②	③	④	⑤
	듬돌		①	②	③	④	⑤
농·축 산업	밭담		①	②	③	④	⑤
	우영담		①	②	③	④	⑤
	жат성(жат담)		①	②	③	④	⑤
어업	불턱		①	②	③	④	⑤
	해안 인공포구		①	②	③	④	⑤
	도대불(등명대)		①	②	③	④	⑤
	원담(갯담)		①	②	③	④	⑤
	소금빌레		①	②	③	④	⑤
종교 신앙	산담		①	②	③	④	⑤
	고인돌		①	②	③	④	⑤
	방사탑(돌탑)		①	②	③	④	⑤
	본향당(산당)		①	②	③	④	⑤
	석 상	돌하르방	①	②	③	④	⑤
		미륵불	①	②	③	④	⑤
		동자석	①	②	③	④	⑤
군사 방어	연대		①	②	③	④	⑤
	성 담	진·현성(육지)	①	②	③	④	⑤
		환해장성(해안)	①	②	③	④	⑤

문5> 다음은 **완전성**을 기준으로 제주 돌문화자원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시한 각각의 제주 돌문화자원에 대하여 **완정성** 측면에서 평가하시고, 그 중요성을 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완전성(Integrity)은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

제주 돌문화경관 관련 자원			<완정성 측면>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보통	중요	아주 중요
주거 (住居)	집 담	정주석	①	②	③	④	⑤
		축담	①	②	③	④	⑤
		울담	①	②	③	④	⑤
		통식담	①	②	③	④	⑤
	올렛담		①	②	③	④	⑤
	용천대		①	②	③	④	⑤
	봉천수		①	②	③	④	⑤
	듬돌		①	②	③	④	⑤
농·축 산업	밭담		①	②	③	④	⑤
	우영담		①	②	③	④	⑤
	жат성(жат담)		①	②	③	④	⑤
어업	불턱		①	②	③	④	⑤
	해안 인공포구		①	②	③	④	⑤
	도대불(등명대)		①	②	③	④	⑤
	원담(갯담)		①	②	③	④	⑤
	소금빌레		①	②	③	④	⑤
종교 신앙	산담		①	②	③	④	⑤
	고인돌		①	②	③	④	⑤
	방사탑(돌탑)		①	②	③	④	⑤
	본향당(산당)		①	②	③	④	⑤
	석 상	돌하르방	①	②	③	④	⑤
		미륵불	①	②	③	④	⑤
		동자석	①	②	③	④	⑤
군사 방어	연대		①	②	③	④	⑤
	성 담	진·현성(육지)	①	②	③	④	⑤
		환해장성(해안)	①	②	③	④	⑤

No.



제주 돌문화자원의 심미적 특성 평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자는 「제주 돌문화경관 특성 및 문화유산적 가치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돌문화경관의 문화경관유산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제주 돌문화자원의 선호도 및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제주 돌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있어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중요한 조사이므로 성의 있게 응답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515
- 연구자 : 임진강 (T. 010-8814-7707 / E-mail: jklim@khu.ac.kr)
- Fax. 031-204-8127

Chapter 1. 시각적 경관선호도 평가

※ 제주 돌문화경관의 '시각적 선호도'에 관한 측정입니다. 중요 부문에 체크 해주십시오.

문1> 제주 돌문화경관을 형성한 이미지를 보고 각 이미지의 총체적인 시각적 선호도를 매우 낮음(1점) ~ 매우 높음(7점)으로 그 느낌을 해당란에 ✓ 표하여 주십시오.

제주 돌문화경관	< 총체적인 시각적 선호도 평가 >						
	매우 낮음	낮음	조금 낮음	보통	조금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사례 1) 정주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 축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3) 올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4) 통짓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5) 올렛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6) 용천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7) 봉천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8) 듬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9) 밭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0) 우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1) 잣성(잣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2) 불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3) 해안 인공포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4) 도대불(등명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5) 원담(갯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6) 소금빌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7) 산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8) 고인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9) 방사탑(돌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0) 본향당(산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1) 돌하르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2) 미륵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3) 동자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4) 연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5) 진·현성(육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6) 환해장성(해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제주도의 독특한 **돌문화경관**을 형성한 이미지의 사진을 보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서 (iii)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특출한 증거** 측면에서의 느낌 정도를 매우 낮음(1점) ~ 매우 높음(7점)으로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제주 돌문화경관	<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특출한 증거 측면에서 시각적 선호도 평가 >						
	매우 낮음	낮음	조금 낮음	보통	조금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사례 1) 정주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 축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3) 울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4) 통숫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5) 올렛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6) 용천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7) 봉천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8) 듬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9) 밭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0) 우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1) 갯성(갯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2) 불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3) 해안 인공포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4) 도대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5) 원담(갯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6) 소금빌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7) 산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8) 고인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9) 방사탑(돌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0) 본향당(산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1) 돌하르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2) 미륵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3) 동자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4) 연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5) 진·현성(육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6) 환해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3> 제주도의 독특한 **돌문화경관**을 형성한 이미지의 사진을 보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서 (v) **환경, 인간의 상호작용,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측면에서의 느낌 정도를 **매우 낮음(1점) ~ 매우 높음(7점)**으로 해당란에 ✓ 표하여 주십시오.

제주 돌문화경관	< 인간의 상호작용, 정주지나 육지·바다 사용 예증 측면에서 시각적 선호도 평가 >						
	매우 낮음	낮음	조금 낮음	보통	조금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사례 1) 정주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 축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3) 울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4) 통싯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5) 올렛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6) 용천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7) 봉천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8) 듬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9) 밭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0) 우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1) 갯성(갯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2) 불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3) 해안 인공포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4) 도대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5) 원담(갯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6) 소금빌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7) 산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8) 고인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9) 방사탑(돌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0) 본향당(산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1) 돌하르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2) 미륵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3) 동자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4) 연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5) 진·현성(육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6) 환해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 제주도의 독특한 **돌문화경관**을 형성한 이미지의 사진을 보고 **진정성**(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원래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 측면에서의 느낌 정도를 **매우 낮음(1점) ~ 매우 높음(7점)**으로 해당란에 **✓** 표하여 주십시오.

제주 돌문화경관	< 진정성 측면에서 시각적 선호도 평가 >						
	매우 낮음	낮음	조금 낮음	보통	조금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사례 1) 정주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 축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3) 올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4) 통싯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5) 올렛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6) 용천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7) 봉천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8) 듬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9) 밭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0) 우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1) 잣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2) 불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3) 인공포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4) 도대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5) 원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6) 소금빌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7) 산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8) 고인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9) 방사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0) 본향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1) 돌하르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2) 미륵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3) 동자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4) 연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5) 진·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6) 환해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5> 제주도의 독특한 **돌문화경관**을 형성한 이미지의 사진을 보고 **완전성**(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 측면에서의 느낌 정도를 **매우 낮음(1점) ~ 매우 높음(7점)**으로 해당란에 **✓** 표하여 주십시오.

제주 돌문화경관	< 완전성 측면에서 시각적 선호도 평가 >						
	매우 낮음	낮음	조금 낮음	보통	조금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사례 1) 정주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 축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3) 올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4) 통짓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5) 올렛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6) 용천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7) 봉천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8) 덩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9) 밭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0) 우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1) 잣성(잣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2) 불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3) 해안 인공포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4) 도대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5) 원담(갯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6) 소금빌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7) 산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8) 고인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19) 방사탑(돌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0) 본향당(산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1) 돌하르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2) 미륵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3) 동자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4) 연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5) 진·현성(육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례 26) 환해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hapter 2. 이미지 평가

※ 제주 돌문화경관의 '시각적 이미지의 느낌 정도'에 관한 측정입니다.

제주도의 독특한 **돌문화경관**을 형성한 이미지의 사진을 보고 느낌 정도를 1점 ~ 7점으로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1 ~ 문26>_ (사례 1) 정주석_ 본 자원을 본적이 있는가? (① 있다 / ② 없다)

No.	느낌	< 시각적 이미지 평가 >		느낌
		← □□	□□ →	
		0		
(1)	조화로운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부조화적인
(2)	매력적인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매력 없는
(3)	넓은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좁은
(4)	아늑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황량한
(5)	쾌적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불쾌한
(6)	푸르른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푸르르지않은
(7)	친근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낯선
(8)	자연적인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인공적인
(9)	시원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답답한
(10)	자연스러운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부자연스러운
(11)	정돈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어수선한
(12)	편안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불편한
(13)	다정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삭막한
(14)	안락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불안한
(15)	아름다운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추한
(16)	안정감있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안정감없는

Chapter 3. 돌문화경관에 대한 기초 인식

※ 제주 돌문화경관에 대한 기초적인 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표하여 주십시오.

문1> 제주도의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

- ① 여행 ② 업무 ③ 거주 ④ 쇼핑 ⑤ 경유

문2> 제주도에는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가?

- ① 2년에 1회 이하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4~6회 ④ 한달에 1회 ⑤ 한달에 1회 초과

문3> 제주도 방문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 ① 자연경관·경치 ② 역사·문화 ③ 위락·휴양시설 ④ 소요시간 ⑤ 독특성·고유성

문4> 제주도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향토자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① 제주 돌 ② 제주 오름 ③ 제주 해안 ④ 제주 초가 ⑤ 한라산

문6> 제주 돌문화경관 중 시각적으로 가장 특징적이거나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 ① 연속된 돌의 체성 ② 돌의 자연성 ③ 돌의 인공성 ④ 돌의 형태·색채 ⑤ 돌의 규모·밀도감

문5> 귀하는 평소 제주의 돌문화경관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 ① 자주 생각함 ② 1~2번 생각 ③ 생각해 본 적이 없음 ④ 처음 들었음 ⑤ 전혀 관심 없음

각함

적 없음

어봄

문7> 현재 제주도의 자연경관에 있어 돌문화경관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만족스럽지 않다 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문8>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결정하는데 돌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역할하지 않는다 ⑤ 전혀 역할하지 않는다

문9> 제주 돌문화경관이 역사·문화적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작용을 하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작용하지 않는다 ⑤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문10>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위하여 돌문화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문11> 현재 제주의 돌문화경관을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문12> 만약 제주돌문화경관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면 지역경쟁력과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도움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Chapter 4 응답자 속성에 관한 질문

※ 응답자 속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표하여 주십시오.

문1> 귀하의 국적은?

- ① 한국 ② 중국

문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문3> 귀하의 연령대는?

- ① 20~29세 ② 30~39세

문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 ① 시가지 지역 ② 산업지역 ③ 농·산촌지역 ④ 어촌지역

설문에 성실히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o. 

关于济州石文化观光资源文化遗产 价值评价调查问卷

本研究员正在进行名为「济州石文化观光特性和文化遗产价值研究」的研究项目

。

为了了解石文化景观的文化景观价值,作为先行阶段,

展开了本次对于济州石文化观光资源的重要度和形象把握的问卷调查。

本研究的结果可作为之后济州石文化世界遗产价值研究中具有重要参考意义的基础资料, 希望能够认真填答。

谢谢!

□

韩国京畿道龙仁市器兴区德灵大路1732, 庆熙大学艺术设计学院515号。

□ 研究者: 林珍江 (T. 82-10-8814-7707 / E-mail: jklim@khu.ac.kr)

□ Fax. 031-204-8127

※ 本调查问卷各问题的填答要领如下所示。(问卷填答示例)

- 在决定资源的重要性时, 特性A与特性B相比

“一样的”	重要的话, 请用	数字 1	来作答。
“稍”		数字 3	
“更”		数字 5	
“明显更”		数字 7	

作为参考, 如果认为重要程度位于“更重要”和“明显更重要”中间的话, 也可用5和7的中间数字6来作答。

(中间数字2、4、6的重要程度位于其相邻数字重要程度的中间)

(回答示例) 在决定“济州石文化景观资源的重要度”时,特性A (突出的普遍价值) 和特性B (真实性) 相比, 如果认为特性A (突出的普遍价值) 更重要时, 请如下所示在相应位置中划“√”

农业·农村的文化·景观资源重要度评价														
特性 A	A 明显更重要		A 更重要		A 稍重要		重要度相似		B 稍重要		B 更重要		B 明显更重要	特性 B
	7	6	5	4	3	2	1	2	3	4	5	6	7	
突出的普遍价值			✓											真实性

资源重要度评价

※ 这是关于济州石文化景观资源重要度的测定,请在您认为的重要度上划“√”。

问1> 请对下面所展示基准的相对重要度进行评价, 并在对应栏里划“√”。

[对于世界文化遗产登载基准的说明]

- ① **突出的普遍价值(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是指人们一直以来认为是正确的,并具有卓越性质的价值

“突出的普遍价值 (OUV)”中与济州石文化关联性较高的基准

- (iii) 能为延续至今或业已消逝的文明或文化传统提供独特的或至少是特殊的见证;
- (v) 可作为传统的人类居住地或使用地的杰出范例, 代表一种(或几种)文化或人类与环境的相互作用, 尤其在不可逆转之变化的影响下变得易于损坏。

- ② **真实性(Authenticity)** 是指在材质或技法等方面保留了原来的价值。

- ③ **完整性(Integrity)** 是指拥有能充分展示出遗产价值的诸多要素

济州石文化景观的重要度评价

特性 A	A 明显更重要		A 更重要		A 稍重要		重要度相似		B 稍重要		B 更重要		B 明显更重要	特性 B
	7	6	5	4	3	2	1	2	3	4	5	6	7	
[突出的普遍价值] (iii) 为文明或文化传统提供特殊的见证														[突出的普遍价值] (v) 代表一种 (或几种) 文化或人类与环境的相互作用, 可作为传统的人类居住地或使用地的杰出范例
[突出的普遍价值] (iii) 为文明或文化传统提供特殊的见证														[真实性]
[突出的普遍价值] (iii) 为文明或文化传统提供特殊的见证														[完整性]
[突出的普遍价值] (v) 代表一种 (或几种) 文化或人类与环境的相互作用 , 可作为传统的人类居住地或使用地的杰出范例														[真实性]
[突出的普遍价值] (v) 代表一种 (或几种) 文化或人类与环境的相互作用, 可作为传统的人类居住地或使用地的杰出范例														[完整性]
[真实性]														[完整性]

- 问2~5 -

问2> 接下来是以[突出的普遍价值]为基准的济州石文化景观资源重要性的评价。请对下面所出示的各个济州石文化景观资源在(iii)为文明或文化传统提供特殊的见证 层面上进行评价，并在相应的重要性栏里划“√”。

突出的普遍价值(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是指人们一直以来认为是正确的,并具有卓越性质的价值		
(iii) 能为延续至今或业已消逝的文明或文化传统提供独特的或至少是特殊的见证		

问3> 接下来是以[突出的普遍价值]为基准的济州石文化景观资源重要性的评价。请对下面所出示的各个济州石文化景观资源在 (v) 代表一种 (或几种) 文化或人类与环境的相互作用，可作为传统的人类居住地或使用地的杰出范例 层面上进行评价，并在相应的重要性栏里划“√”。

突出的普遍价值(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是指人们一直以来认为是正确的,并具有卓越性质的价值		
(v) 代表一种 (或几种) 文化或人类与环境的相互作用，可作为传统的人类居住地或使用地的杰出范例		

问4> 接下来是以真实性为基准的济州石文化景观资源重要性的评价。请对下面所出示的各个济州石文化景观资源基于 真实性的层面上进行评价 并在相应的重要性栏里划“√”。

真实性(Authenticity) 是指在材质或技法等方面保留了原来的价值。

问5> 接下来是以完整性为基准的济州石文化景观资源重要性的评价。请对下面所出示的各个济州石文化景观资源基于 完整性的层面上进行评价，并在相应的重要性栏里划“√”。

完整性 (Integrity) 是指拥有能充分展示出遗产价值的诸多要素

济州石文化景观相关资源		<代表一种（或几种）文化或人类与环境的相互作用， 可作为传统的人类居住地或使用地的杰出范例层面上资源 的重要度 >						
		根本 不重要	不重要	不太 重要	一般	稍重 要	重要	相当 重要
住居	정주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축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울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통싯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올렛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용천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봉천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듬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农业 、 畜牧业	밭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우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жат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渔业	불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공포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도대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원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금빌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宗教 信仰	산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고인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사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본향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돌하르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미륵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자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军事 防御	연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진·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환해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hapter 1. 视觉喜好度评价

※ 这是关于济州石文化景观“视觉喜好度”的测定,请在您认为的重要度上划“√”。

问1> 通过观看济州石文化景观的图片, 请对各图片的整体视觉喜好度进行评价, 并在相应的栏中划“√”

济州石文化景观	< 总体视觉喜好度评价 >						
	很低	低	较低	一般	较高	高	很高
정주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축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울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통싯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올렛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용천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봉천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듬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밭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우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갯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불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공포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도대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원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금빌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산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고인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사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본향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돌하르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미륵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자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연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진·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환해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问2~5 -

问2> 通过观看济州岛独特的石文化景观图片，请在[突出的普遍价值]中 (iii) 为文明或文化传统提供特殊的见证的基准上 对各图片的视觉喜好度进行评价，并在相应的栏中划“√”。

问3> 通过观看济州岛独特的石文化景观图片，请在[突出的普遍价值]中 (v) 代表一种（或几种）文化或人类与环境的相互作用，可作为传统的人类居住地或使用地的杰出范例层面上对各图片的视觉喜好度进行评价，并在相应的栏中划“√”。

问4> 通过观看济州岛独特的石文化景观图片，请在**真实性**（在材质或技法等方面保留了原来的价值）的层面上对各图片 的视觉喜好度进行评价，并在相应的栏中划“√”。

问5> 通过观看济州岛独特的石文化景观图片，请在**完整性**（拥有能充分展示出遗产价值的诸多要素）的层面上对各图片 的视觉喜好度进行评价，并在相应的栏中划“√”。

济州石文化景观	<为文明或文化传统提供特殊的见证层面上的视觉喜好度评价						
	很低	低	较低	一般	较高	高	很高
정주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축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올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통식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올렛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용천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봉천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듬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밭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우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갯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불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공포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도대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원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소금빌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산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고인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사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본향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돌하르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미륵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자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연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진·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환해장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hapter 2. 图片评价

※ 关于济州岛石文化景观的“视觉形象感受程度”测定。

请根据观看济州岛石文化景观图片所感受到的程度（1分~7分），在相应的里数字上划“√”。

问1~26>_（事例 1）정주석_ 是否有见过这项资源？（① 有 / ② 没有）

感受	< 视觉形象评价 >							感受
	← □□			0	□□ →			
协调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不协调的
有魅力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没魅力的
宽广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狭窄的
温馨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荒凉的
惬意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不惬意的
葱绿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不葱绿的
亲切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陌生的
自然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人工的
爽快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压抑
自然协调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不自然的
整顿好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混乱的
舒服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不舒服的
多情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薄情的
安乐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不安的
美丽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丑的
稳定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不稳定的

Chapter 3. 对于石文化景观的基础认识提问

※ 这是对于济州石文化景观基础认识的关联提问，请在相符的栏上划“√”。

问1> 您对济州岛的访问目的是什么？

- ① 旅行 ② 出差 ③ 居住 ④ 购物 ⑤ 转机

问2> 您多久访问一次济州岛？

- ① 2年不到1次 ② 1年1~2次 ③ 1年
4~6次 ④ 一月1次 ⑤ 一月超过1次

问3> 访问济州岛重要的原因是？

- ① 自然景观 ② 历史文化景观 ③ 娱乐疗养设施 ④ 便利性 ⑤ 独特性·固有性

问4> 您认为代表或象征济州岛的乡土资源是什么呢？

- ① 济州的石头 ② 济州火山丘 ③ 济州的海岸 ④ 济州的草房 ⑤ 汉拿山

问5> 您认为济州的石文化景观中视觉上最有特色或印象最深的是什么呢？

- ① 石头的整体性 ② 石头的自然性 ③ 石头的人工性 ④ 石头的形态·色彩 ⑤ 石头的规模·密度感

问6> 您平时对济州的石文化有过思考吗？

- ① 常常思考 ② 思考过一次 ③ 没思考过 ④ 第一次听说 ⑤ 完全不关心

问7> 您对现在作为济州岛自然景观的石文化景观满意吗？

- ① 很满意 ② 满意 ③ 一般 ④ 不满意 ⑤ 完全不满意

问8> 您认为在济州岛的自然景观中石头扮演了很重要的角色吗？

- ① 扮演了非常重要的角色 ② 扮演了重要的角色 ③ 一般 ④ 不是太重要的角色 ⑤ 没有扮演任何角色

问9> 您认为济州的石文化景观在历史·文化方面对济州的形象有很大的影响作用吗？

- ① 作用很大 ② 有作用 ③ 一般 ④ 没什么作用 ⑤ 完全没有作用

问10> 为了济州岛的自然景观，您认为对石文化景观进行系统的管理以及国家层面的努力是需要吗？

- ① 非常需要 ② 需要 ③ 一般 ④ 不需要 ⑤ 完全不需要

问11> 您认为是否需要把济州的石文化景观指定成文化遗产来保存？

- ① 非常需要 ② 需要 ③ 一般 ④ 不需要 ⑤ 完全不需要

问12> 要是将济州石文化景观指定为了文化遗产，您认为会对地域的竞争力和文化发展产生帮助吗？

- ① 帮助非常大 ② 会 ③ 一般 ④ 不会 ⑤ 完全不会

Chapter 5. 关于问答者个人情况的提问

※ 这是关于问答者个人情况的提问，请在相符的栏上划“√”。

问1> 您的国籍是？

- ① 韩国 ② 中国

问2> 您的性别是？

- ① 男性 ② 女性

问3> 您的年龄层是？

- ① 20~29岁 ② 30~39岁 ③ 40~49岁 ④ 50~59岁 ⑤ 60岁以上

问4> 您现在居住的区域是？

- ① 城市 ② 工业区 ③ 农村 ④ 渔村

非常感谢您能抽出时间填写这份调查问卷！

济州石文化资源调查

林 珍 江
010-8814-7707
j.kim@khu.ac.kr

名称: 정 주 석

与居住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1 -



放置在民居的大门两侧，带有3~4个插槽，可插入长木条的石柱

名称: 축 담

与居住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2 -



传统草屋的外墙

名称: 울 담

与居住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3 -



房屋外围的围墙

名称: 통 싯 담

与居住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4 -



猪圈的围墙

名称: 올 렷 담

与居住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5 -



小路两旁堆砌的具有引导作用的石墙

名称: 용 천 대

与居住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6 -



海岸边的地下水泉眼

名称: 봉 천 수

与居住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7 -



山村中用于储存涌泉水或雨水的池塘

名称: 덩 돌

与居住关联的石化资源
- Case 8 -



放置在村口处象征村庄力量的石头, 同时祈求村里能够诞生出能举起这石头的壮士, 并且具有防御作用

名称: 밭 담

与农业、畜牧业关联的石化资源
- Case 9 -



农田边界垒起的石墙

名称: 우 엄 담

与农业、畜牧业关联的石化资源
- Case 10 -



房屋周边农田周围垒起的石墙

名称: 갯 성 (갯담)

与农业、畜牧业关联的石化资源
- Case 11 -



牧场周围垒起的石墙

名称: 불턱

与渔业关联的石化资源
- Case 12 -



海女更替潜水服和休息的空间

名称: 인 공 포 구

与渔业关联的石化资源
- Case 13 -



形成港海的石墙

名称: 도 대 불 (동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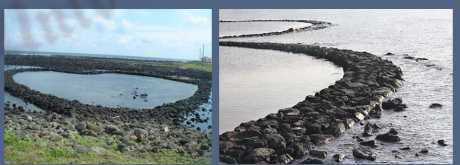
与渔业关联的石化资源
- Case 14 -



小港口处立起的灯台

名称: 원 담 (갯담)

与渔业关联的石化资源
- Case 15 -



海岸边利用涨潮退潮捕鱼而筑起的围堰

名称: 소금 빌레

与渔业关联的石化资源
- Case 16 -



为了晒盐而筑成的石台

名称: 산 담

与宗教信仰关联的石化资源
- Case 17 -



坟墓周围形成边界的石墙

名称: 고인돌

与宗教信仰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18 -



史前时期中青铜器时代的坟墓

名称: 방사탑

与宗教信仰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19 -



阻止恶鬼进入村庄而立起的石塔

名称: 본향당(산당)

与宗教信仰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20 -



掌管村庄土地和村民生死的村庄守护神的神堂

名称: 돌하르방

与宗教信仰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21 -



立在城门前推测为增添威严性和具有守护神作用的一种长生柱，

名称: 미륵불

与宗教信仰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22 -



守护村庄，掌管幸福与寿命的神，是民间信仰和佛教所结合而产生的神像。

名称: 등자석

与宗教信仰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23 -



守护死者灵魂的重量文石像

名称: 연대

与军事防御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24 -



传达军事急报的烽火台

名称: 성담 (진성 / 현성)

与军事防御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25 -



朝鲜初期防御倭寇入侵的城墙

名称: 성담 (환해장성)

与军事防御关联的石文化资源
- Case 26 -



海岸边具有防御作用的石墙

非常感谢您的认真填写！

中文摘要

济州石文化资源的文化景观价值

- 以田埂石为例 -

林 珍 江

庆熙大学 一般大学院 环境造景学科

济州具有卓越的自然环境以及独特的石文化资源，在发掘济州多样化的石文化资源的背景下，本研究以具有济州石文化代表性的田埂石为例，探究济州石文化的价值以及考察其被列为世界文化景观的可能性，同时还对其进行保护为根本目的进行了一系列的探究。在此目的下，希望能通过本研究为济州在自然生态方面的开发起到一定的指向性作用。

研究方法主要先通过对有关济州地区的古文献、研究报告书以及研究论文的考察，掌握济州地区石文化资源的特性，然后对世界文化遗产和文化景观遗产的相关政策以及运营机关的相关文献进行了考察，并且在2016年4月到9月之间分10余次对各资源的所在地以及现状进行了实地调查，同时进行了照片拍摄和特性分析。

为了探究济州田埂石和其它石文化资源的喜好度，视觉特性以及石文化资源的优先顺序，本研究针对石文化资源导出了一个评价基准，并且在以此为基准实施评价的同时还进行了调查问卷的发放，通过此过程综合评出了田埂石为最重要的石文化资源。由此本研究针对田埂石为例，在文化景观的层面上对其价值进行了考评，同时在对文化景观的相关法律制度进行考察后导出了保存方案。

最终，在对石文化资源认知特性的16个形容词调查中，出现的结果为“安乐的”、“自然的”和“舒适的”；在对石文化资源的视觉评价中，“协调的”、“有魅力的”和“自然的”调查评价结果占多数，反面“宽广的”、“温馨的”以及“畅快的”评价结果占少数。

在对景观资源的视觉评价中，龙泉带的结果为“自然的”，奉天水的结果为“葱绿的”，田埂石的结果为“美丽的”，其后，火墟的评价结果为“协调的”，坟冢墙、防邪塔以及石爷爷的评价结果分别为“自然的”，“有魅力的”和“亲切的”。

石文化资源的整体喜好度调查结果中，以韩国人为调查对象的整体结果为田埂石>人工浦口>龙泉带>石爷爷的喜好顺序，以中国人为对象的调查结果为石爷爷>田埂石>本乡堂的喜好顺序。以韩中都较为喜好的田埂石和石爷爷为对象进行比较后，得出两国的喜好度存在一定差异的结果。

对于石文化资源评价基准为基础的重要度评价中，以韩中两国的专家为对象的评价结果均为“突出的普遍价值(iii)”>“完整性”>“真实性”>“突出的普遍价值(v)”的重要度排序；各评价基准下，田埂石都被认定为最重要的资源，因此将田埂石导出为最具有代表性的济州石文化资源。

在对于景观保存相关法律进行考察后，发现韩国法令中对于“文化景观”的定义和准确运用以及保护方案存在不足，需要对其进行补充制定。所以，为了“文化景观”的导入和体系整理，首先需要在《景观法》单独制定出“文化景观”的相关法令，其次，针对于济州岛的情况，需要在景观条例中对更多的对象制定出有针对性的景观特别法令。

对于济州田埂石的价值探究中，在“突出的普遍价值(iii)”层面上，判定济州田埂石具有“作为世界上独有的单一石墙”以及“居民一致地充分利用自然环境”的价值；在“突出的普遍价值(v)”的层面上，判定济州田埂石具有“济州全境农业经济的定居地”和“人类顺应自然的根据”还有“从800年前其特性一直保持不变”的价值；在“真实性”的层面上，其很好地利用了风以及单一的使用济州火山岩来进行筑造；在“完整性”的层面上，其在济州全域具有广泛的分布，并且保持了原有的状态，以及保有优异的景观要素。

作为田埂石保存方案的一部分，以及为了使其价值得到公认，本研究认为有必要对其进行联合国世界文化景观登载申请，并且在韩国国内建立起相关法制体系和济州条例。

最后，本研究的局限之处为在一定程度上没能利用更客观以及更多样的方法对石墙价值进行判定，另外，问卷调查的外国对象只局限在了中国人，在全世界范围来说代表性有所不足。

关键词： 济州田埂石, 文化景观, 石文化资源, 文化景观价值, 世界遗产, AHP